

2017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 홍성의 금석문

洪城의 金石文

홍성문화원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 홍성의 금석문 洪城의 金石文

C O N T E N T

01. 修城紀蹟碑	4
02. 七義碑	8
03. 洪陽清難之碑	14
04. 丙午殉難義兵將士公墓碑	24
05. 孝子通政大夫行龍驤衛副護軍金應喜之門	34
06.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折衝 將軍龍驤衛副護軍張君墓碣銘并序	40
07. 逸農徐先生興學紀念碑	46
08. 韓雲女史獎學紀念碑	50
09. 贈軍務參議金公秉噲有功之碑	52
10. 孝子靈光金卜煥之碑	60
11. 魯恩書院遺墟碑	64
12. 成先生遺墟碑	70
13. 成先生遺墟碑 陰	76
14. 成先生神主遷奉記	80
15. 孝子掌令卜僕之里	88

16. 韓性東孝行紀念碑	90
17. 贈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教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行奉正大夫吏曹正郎兼 經筵侍講官春秋館修撰官 昌原俞公諱 炯追慕碑	94
18. 孝子大成學院直員宋夏燮之門	102
19. 領議政府事安平府院君贈謚文簡李公神道碑銘	106
20. 贈吏曹判書行文昭殿參奉謚毅憲公驪州李公光輪之墓	116
21. 孝子監察孝公圭錫之碑	120
22. 贈通訓大夫司僕寺正連山徐公諱效積之墓 贈淑人茂朱金氏祔左	124
23. 高麗平章事張公夏神道碑	132
24. 文純公南塘韓先生墓碣銘	140
25. 清難功臣平城君林公神道碑銘	170
26. 烈婦南陽洪氏之碑	178
27. 吏曹參判水北先生金公神道碑銘	184
28. 洋夷侵犯大院君斥和碑	198
29. 連山徐氏石譜	200
30. 贈兵曹參判徐公墓碣銘	218

## 修城紀蹟碑

夫器無大小任得其人破而完毀而全洪州地邊海  
西南之大關防也洪之城未知創於何時而城之復  
隍幾數百季矣文之牧武之將皆任此城者也終以  
財力之不給而未能修焉幾乎無城矣上之二十  
三季癸未春鎮將金啓默牧使李憲圭相繼莅任乃  
巡視城喟然嘆曰不可謂之城也相與謀曰吾二人  
非任此城者乎苟能同心財力之不給非所憂也各

捐其廩請于方伯得贖環數百自八月始牧使日董  
役夙夜無怠鎮將親操板錘爲役夫先至十一月功  
告成城凡七里役之日百餘日人皆曰誠之至也神  
所助也民之赴役者不以苦以爲樂爲之歌曰隍而  
城我帥之誠舊而新我侯之仁屹然復爲湖西之保  
障民人有所倚恃焉賈子曰天下重器也置之安則  
安天下之大得其人則安況洪之城之小乎  
護軍安東金愚淳著

監董將校 朴基德 朴萬源 李邦秀 李裕文

色吏 李宗□ 戶長 李必培 吏房 韓祉賢  
軍色 孫弼琦 別看役 李仁樂 朴宗學 金允郁 李  
希得 金聖郁 李二大 張俊亨 黃基中 韓永秀 差  
使 崔光玉 等牌 徐今福  
官里面任 李命植  
道光四季甲申四月 日立.

## 수성기적비



무릇 그릇은 크고 작음이 없이 벼슬에 마땅한 사람을 얻어야 하는 것이니 깨짐에 완전히 하고 무너짐에 온전히 하는 것이다.

홍주는 지역이 바다에 연한 서남방의 큰 관방(關防)이다.

홍주의 성이 언제 비롯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벽을 회복한 것은 거의 수백 년이나 문(文의) 목사(牧使)와 무(武의) 장수가 모두 이성을 맡은 자이나 마침내 재력이 넉넉하지 못해 보수할 수 없어서 거의 성이 없는 듯하다. 이십삼년 계미년(癸未, 순조 23년, 서기 1823년) 봄에 진장 김계묵과 목사 이현규가 서로 이어서 부임하여 이에 성을 돌아보며 탄식하여 말하기 “우리 두 사람은 이 성을 맡은 사람이 아니냐. 진실로 능히 마음을 같이하면 재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걱정할 바가 아니로다.”하고 각각 방백에게 청하여 수 백금을 돌려받았다. 팔월로부터 시작해서 목사는 날마다 역사(役事)를 감독해서 낮이나 밤이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진장은 친히 판(板)과 삽(鋤)을 잡고서 역부(役夫) 앞에 나아갔다.

십일월에 이르러 곧 마치니 성을 이룬 것이 칠리(七里)요 역사 한날이 백 여일이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정성의 지루함이요 신이 도운바라 하고 백성들의 부역함에 모두 괴롭다 여기지 아니하고 즐겁게 생각하였도다. 이를 위하여 노래하여 말하기를 “무너진 성으로 한 것은 우리 장수의 정성이요 옛 것이 새로 된 것은 원님의 어짐이라.”고 하였다. 홀연히 다시 호서(湖西)의 보장(保障)이 되어 백성들이 의지하고 믿는 바가 있도다 라 하였다.

현자(賢者)가 말하기를 천하 같은 큰 그릇도 편안히 모시면 편안하고 천하도 큰 사람을 잘 만나면 편안한 법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홍주의 작은 쯤이야 못하겠는가.

호군 안동 김우순 지음

감동(監董) 장교 박기덕 박만원 이방수 이유문

색리 이종빈 호장 이필배 이방 한지현

군색 손필기 변간역 이인낙 박종학 김윤욱 이희득 김성욱 이이대 장준형 황기중 한영수

차사 최광옥 등패 서금복 관리면임 이명식

도광사년(청나라 연호, 1824년) 사월 일 세우다.



비명 수성기적비 〈기념비〉

지역 홍성읍 위치 및 장소 홍성읍 오관리 412-6(홍주성내 북문 앞)





## 七義碑

昔欒共子論生三事一之義曰惟其所在則致死焉夫孔子萬世之師也人人而有致死之義況齋生乎吳景根崔敏志方世應方錫奎李準馥徐宗得崔學信洪陽人也爲孔子廟西齋生往往在甲午東匪之賊薄郡城肆焚掠七人者相與謀曰此賊獵匈無所不爲我聖廟不可不謹守且我輩旣爲齋生爲聖廟死職耳遂與家人訣入聖廟嚴鎖鑰整巾服羅立門外

而守之旣而賊果至要開門居首者曰聖廟尊嚴不可以擅入餘六人者亦一口無異辭群賊劫之不得遂亂用凶器一竝燒殺而去當是時聖廟之不事卽七人之力也嗚呼悲夫七人者死於當死然死於當死者有幾人哉復庵李公謂服儒冠儒而斃不失其正韋觀金公謂章甫之微者而能卓然自立皆確論也朱子於山僧衛士之死猶皆表出而獎之有世秉春秋之筆者得七人之事則其大書特書而不一書也明矣今距其死殆四紀之久而舉一郡人士每語及輒涕洟如昨日事非大義之感人深者能若是

乎直員李莊魯及掌議諸人協議境內捐財出力閣而碑之甚盛舉也僉意以俊煥忝爲郡長謂宜有一言以銘之余愧匪其人而旣慕其義亦不敢以不文辭謹撮其槩撰之如右而係以銘曰.

於虞烈哉七齋生以身殉義明大經昭揭耳目炳丹  
青垂之百禩不朽名鳴呼烈哉七齋生

洪城郡守從六位勳六等河俊煥 撰  
全城人李莊魯 書  
歲在旃蒙大淵獻 月 日

## 칠의 비



옛적에 난공자(欒共子 : 난공자는 중국 晉나라 大夫名은 성(成)이고 시호는 공(共)이다.)가 인생에 세 가지 일을 논하매 그 하나가 의(義)이다. 오직 의가 있다는 것은 의롭게 죽는 것이다.

무릇 공자는 만세의 스승이시다. 일반서민도 의로써 죽거늘 하물며 재생(齋生)향교 동재 서재 재실에서 수학하는 유생(儒生)에 있어 서랴. 오경근 최민지 방세웅 방석규 이준복 서종득 최학신은 홍양인(洪陽人 : 홍성의 옛 이름)이다. 공자묘(향교) 서재(西齋) 유생(儒生)이 되어 지난 갑오년(1894년) 동비(東匪)의 적도(賊徒)가 성을 공박하고 저자거리의 상점을 불사르고 노략질하니 칠인 서생이 서로 더불어 의론 월 이 동비는 미친개와 같이 무소불의로 행하니 우리 성묘(聖廟 : 공자성인의 사당 곧 향교)를 삼가 지키지 않을 수 없다 하여 또 우리 등은 재생이 되어 성묘를 위하여 직책을 다하여 죽는다하고 가인(家人)과 더불어 결별하고 성묘에 들어가 엄히 자물쇠를 잠그고 의관을 정제하고 문 앞에 나열하여 지키니 적도가 과연 이르는 지라 적도가 문을 열 것을 요구하니 수장자(首長者 : 그중 연장자)가 말하길 성묘는 존엄한 곳이며 함부로 침입할 수 없다 하니 나머지 육인이 또한 그렇게 말하였다.

적도의 무리가 이들을 겁박하였으나 뜻대로 이루지 못하자 흉기로 어지럽게 사용하여 칠인을 아울러 불살라 죽이고 갔다. 당시 성묘는 무사하였으니 칠 재생의 힘이다. 오호라! 슬프도다!

칠인이 마땅히 죽을 곳에 죽었으나 그런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복암공(復庵公 : 이설)이 이르되 의관을 갖춘 선비로서 그 정상(正常 : 올바른 행실 인의예지 효제충신을 행하는 것)을 잊지 않고 죽었도다. 김공(金公)을 보고 이르되 한미(寒微 : 구차하고 지체가 변변치 못함) 한 선비로서 능히 자립하는 확실한 논거를 가졌다.

주자께서 산승(山僧)과 위사(衛士 : 호위병사)도 죽으면 오히려 세상에 표출하였거늘 장차 춘추 정의 의붓대를 잡은 자를 장려함에 있어서랴. 칠인의 일인즉 특별히 크게 쓴다 해도 한 줄의 글로 밝힐 수 없는 것이며 지금도 죽은지 45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고을 인사들이 매양 그 말을 하면 문득 눈물을 흘리고 어제일과 같이하니 대의(大義)로서 사람을 감읍함이 이와 같지 아니한가. 직원(職員, 직원은 일제 때 향교 현교의 직을 편하게 직원이라 불렸음. 유교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장로(이 장로는 당시 향교현교 이었음) 및 장의(掌議 : 향교일을 논의하는 임원) 모든 사람이 협의

하여 경내에 돈을 출연하여 비각을 성대히 세워 거행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하준환(일제 때 홍성군수 역임)이 군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한말로 이에 새김이 마땅하다하나 나는 부끄럽게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을 앙모하여 감히 글로서 하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삼가 자료를 모아 그 대략을 짓고 右와 같이 계서(係書 : 명(銘) 비문 말미에 명문을 다시 첨가하여 짓는 것)하여 가로되 탄식하노 열사여! 칠 재생이 살신순의(殺身殉義 : 의롭게 죽음)하여 대경(大經 : 유교의 경전 유교의 경윤대의)을 밝혀 그 빛남을 계재 하노니 백세까지 그 이름이 썩지 않는도다. 오호라 칠 재생이여!

홍성군수 종육위 훈육등 하준환 지음

의성 이장로 씀

세재 을해년(1935년) 월 일

註. 旂은 구 甲子로 천간 乙을 말함

大淵獻 대연현은 구갑자로 지지 亥에 해당함(을해년)

홍주향교에서 유림과 유족들이 매년 음 9월 15일 칠의 사제향을 올림.



비명 칠의비 〈추모비〉

지역 홍성읍 위치 및 장소 홍성읍 대교리 124-1(홍주향교 내)







## 洪陽清難之碑

洪州牧使晚全先生南陽洪公清難碑銘并序

通訓大夫原任弘文館典翰知製 教兼 經筵  
侍講官春秋館編修官 趙 紅 撰  
通訓大夫原任刑曹正郎 柳時英 書  
嘉善大夫原任司憲府大司憲 金光炫 篆

達萬曆二十四年逆豎李夢鶴稱兵湖內攻陷六邑  
縛二邑宰聲振遠近時洪州牧晚全洪公以文吏嬰  
孤城不數日劙削其亂 昭敬大王嘉之 賦書  
增秩又 命書之策俄又 賦清難功臣號位二品  
爵寧原君於是吾東方薦紳大夫以至田畯婦孺亡  
不豔公名而知慕之矧惟洪民之親被公之拯之餓  
虎之蹊而安之衽席之上者哉其德公也宜無已而  
未聞有肖像之祀戀德之頌四十餘年蓼蓼何哉嘉  
靖年間福建按察使宗臣子相遭嶼夷躡福清開城  
門內辟寇氓所活衆福人爲之立祠烏石山顯刻之

歌德不衰今洪公之活洪人譬子相有過之無不及  
焉平難之烈非子相可幾也豈洪獨不足烏石山一  
武地輿麗牲之一石乎雖謂俗之椎亦宜今年春完  
山李候由銀臺代言來蒞是州遂慨然洪公之事與  
鄉父老謀相廟地且具石以書謁漢陽趙紅曰願子

借一言發晚全公忠若德以示永永不佞謝不敏不獲則謂洪陽巨防也失洪陽則是亡湖內也亡湖內則國其如何晚全公保守洪陽豈直一時之功哉始賊猝起不意利在攻劫非有深遠之慮而乘壬癸兵饑后誑誘無聊氓朶頤州顯蓋久由是賊之耳目覘

瞞雜於吏民中是則比他盜難矣丙申七月七日定山縣告急於公公即激勵吏民諭以死守徧檄將士之在旁邑者畢至然城中見兵不滿數百城又薄而庫人或勸公棄城勤 王公曰守國扞蔽之臣死於城郭封疆古之制也我非封疆之臣乎又勸出妻孥辟之公又曰我死於國妻孥死於我傷於義乎迺盡召在外子姓咸聚城中於是衆心坐牢荷擔者弭臥牆者奮手下吏胥無非紀綱之僕矣水使崔湖檄公使領兵會營公不受曰湖內咽喉無如此州我離一步賊必乘破竹之勢反要湖同守州城湖然公言帥

藍浦保寧二邑縣監至軍勢稍振公曰椎鋒之任必資武力奈何把摠林得義曰虞候朴名賢州產而百夫特也方家居公以書招之至委以戰鬪公又曰我治守具未完誰能爲間留賊數日我之城守可以萬全有言州吏李元命可者公用元命不問出入所以諭得韓絢之爲賊魁而禽誅賊間二十五人縣首東門元命之力居多云公又捕伏聽者誅之又輿水使分城而守推其堅完輿水使自當其虛親步巡干掘親自勞軍至手執餐饋之勉之言輒慷慨指天誓死國衆皆泣下居數日賊自大興大至城下分屯三處

左夸圍城狀右張恐喝白馬將三周城馳突極其妖惡言以動城中公令城中密若無應整樓櫓盛鶴列以示不可犯之色而已賊於是計窮逡巡會日且入天且雨賊衆蜂蟻雜閑閑公曰賊不陳而囂可計破也撤廡宇甓籬取武庫竹作炬令守俾者人熱三炬選弩手數十人夜縋城出覆禾谷中誠候城中火舉向賊亂發於城上復用火箭射燒草賊廬舍火烈風孟仍勒城中兵一時多鼓勻聲賊大驚遂亂遁走朴名賢等追擊殲旃賊徒林億明斬夢鶴以來明日以計又執韓絢檻送京師冊勳公爲第一朴名賢以

下有差蓋公以儒學進兵謀師律非所素閑惟其主辱臣死之義炳炳一心曠乎每生爲辱故臨大難人皆刲刲我獨安閒決莢應會神出鬼捷動中賊忌逆折機牙性且知人才鄙勇怯悉當其任士皆樂爲之用用是能成功云方賊之進迫也韓絢腹心李益南者師選鋒二百餘潛若我軍者而隈入城中爲賊內應公先事候情暉其手足奸不得發賊之失計破膽實由於此云公可謂不戰出謳人兵者矣於乎今去丙申四十餘載矣 國家列城之堅非不萬于洪陽兵甲之多非不萬又洪陽謀臣猛士頽頽作氣勢者

非不頽視晚全公功業響丙子亂顧無一城一將守而抗敵曷故舉國控弦誠不可與論於逆節烏合而誠使今之爲將者懷死義之心一如晚全公所爲則未必不有可觀者且使晚全公當今時則雖不能提一旅遏十三萬之強敵如巡遠之才不幸則亦必不

后巡遠之節矣此李侯之汲汲爲晚全公刻碑之深意也奚啻撕警洪民也已耶今而后過洪之城池者爲封疆之臣則思其所守爲介胄之士則思其捐軀衛國爲縫掖儒冠新學小生則大覺其辦知戡亂不由乎瞋目語難而由乎詩書禮樂之場也觸類而感

發者其在斯碑歟其在斯碑歟晚全公諱可臣字興道南陽人游退溪李先生許草堂之門學有淵源宣廟初徵爲持平掌令論事有古諍臣風后官至刑曹判書不專以勳以開城留守致仕十年而終晚全號也銘曰

鷹鵠逐雀匪止觜距其性卽剛人臣伐叛不在強弱在暫大綱於赫洪公嬰此嬰帶抗彼猖狂義以忘身以及其孥以激士腸盜夫易慮勦勤思奮咸願一當公迺筭成指授諸將維謀之臧于儻汝鼓于宵汝枚汝弩伏張火矢喟發喊聲助威賊遂犇亡名賢先縱

得義爲承亂領齒鈸寵頭囊緘關生就禽馳奏明光逆氣雲銷河岱卽序公功 上颺爰降 命書繼以鐵券盟府是藏公歿旣久世歷屯艱公忠益彰洪人戀德廟而祀之月山之陽松檻栢板妥靈晉豆荔丹蕉黃維此繫羊我銘韙迹庸示范茫

辛巳二月 日立

## 홍양청난지비



홍주부사 만원 선생 남양홍공 청난비명 병서

통훈대부 원임 홍문관 권한지제 교겸 경연  
시강관 춘추관 현수관 조형 지음  
통훈대부 원임 형조정랑 유시영 씀  
가선대부 원임 사현부 대사현 김광현

지난만력 이십사년(1596) 역력 이몽학이 호내에서 군사를 일으켜 여섯 고을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두 명의 고을수령을 포박하여 성세가 원근에 떨쳤었다. 그때에 홍주목사 만전 홍공이 문관으로써 외로운 성을 굳게 지키고 며칠 되지 않아서 도적을 베었으니 선조대왕이 가상히 여겨 벼슬을 더해주었다. 또 명하여 협아라 쓰게하고 다시 청난공실 호위 이품을 내리고 영원군에 봉작하였다.

이때 동방의 사대부와 시골농부 아낙네에 이르기까지 공의 이름을 부리워하고 알면서 사모하지 않음이 없었다. 하물며 홍주백성이 친히 공이 짚주린 범의 발톱에서 건져냄을 입었으니 가까운 사이 아니겠는가. 그 공의 송덕함이 마땅히 끝이 없어야 하나 초상을 그려 봉안한사 당온이 있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고 공덕을 사랑하는 기림이 사십 여년이 잠잠했으니 어찌된 일인가. 가정년간(중국 명나라 연호) 복건안찰사(중국 복건성 안찰사) 종실(중국 명나라 황제 종친) 자상 이험나라 오랑캐가 복건을 유린되어 깨끗이 성문을 열어 도적을 물리쳐 백성들이 오석산에 사당을 세우니 덕을 노래하여 새겨놓은 현판이 쇠미하여지지 않았다. 지금 홍공이 홍주의 백성을 살린 것이 자상에 비교하여 지나치지만 여기에 미치지 않음이 없다. 난을 평정한 충렬은 자상 과서로 몇이 아닐진데 어찌 홍주만이 오석산처럼 조그마한 자리와 좋은 희생을 놓는 돌 하나가 부족하단 말인가. 비록 풍속이 거칠어도 또한 마땅하다. 금년 봄에 완상 이공이 은대의 대언으로 있다가 이고을에 부임하여 드디어 개연히 홍공의 일을 이 고을 부노와 상의하여 사당과 비석을 갖추어 한양의 조형에게 알리니 원컨대 당신의 말씀을 빌려 “만전공의 충절과 덕을 드리내며 보이고자 합니다.” 하며 재주 없다고 사양했으나 어쩔 수 없이 말하니 홍양은 큰 방어지 이니 홍양을 잊게 되면 이것은 호내를 잊는 것

이오. 호내를 잃게 되면 나라가 어찌 되었을 것인가. 만전공이 홍양을 지킨 것이 어찌 다만 일시의 공이겠는가. 처음에 도적들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일어난 것은 공격하여 겹박하기에 이로서이지 깊은 생각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임진년 난리와 계사년 기근 뒤에 불만이 있는 백성들을 꾀어서 각 고을을 공격하려고 함이 오래되었는데 이때부터 도적 중에 눈치 빠른 염탐꾼들이 아전과 백성들 사이에 섞여 있었으니 이것이 다른 도적에 비해 어려운 것이었다. 병실년(1597) 7월 7일 정산현에서 공에게 일이 급함을 보고하자 공이 즉시 아전과 백성들을 격려하고 사수 할 것을 깨우치며 격문을 돌려 주변 고을에 있는 군사들을 모두 모이게 하였다. 그러나 성중에서 군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수백명도 되지 않고 성이 또 한 얇고 낮아 사람들이 간혹 성을 버리고 임금을 호위하자고 말하였으나 나라를 지키고 방어해야 할 신하가 봉하여진 강역의 성곽에서 죽는 것은 옛날의 볍도이다. 내가 봉강의 신하가 아닌가 라고 또 처자식을 내보내 피하게 하라 권하니 공이 또 말하기를 “나는 나라에 죽고 처자식은 나에게 죽는 것이 의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였다. 이에 밖에 있던 자손을 모두 불러들여 다 성중에 모여 있게 하였다. 이때부터 백성들 마음이 안정되고 굳어서 보따리를 매던 자들은 그만 두었다. 담장 옆에 숨어있던 자들이 떨치고 일어났으며 수하의 아전들이 기강을 따르지 않음이 없었다. 수산 최호가 공에게 격문을 보내어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진영에 합세하고자 하였으나 공이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기를 “호내에서의 목구멍 같은 곳은 이 고을만한 것이 없다. 내가 한발자국이라도 떠나면 적이 반드시 파죽지세로 틈을 타 공격할 것이니 드디어 호내를 중시하여 같이 고을을 지키자.”고 하였다. 최호가 공의 말을 그렇게 여겨 남포와 보령 두읍의 현감을 거느리고 오니 군세가 점점 진작되었다. 공이 말하기를 “전투하는 임무는 반드시 무사의 힘을 빌려야 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하자 파종 임득의가 말하기를 “우후 박명현이 고을 출신이니 일부당백의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집에 거하고 있으니 공이 편지를 불러 이르게 하여 전투를 맡기소서.”라고 하였다. 공이 또 말하기를 “방어 장비를 갖추지 못했으니 누가 능히 중간에 적을 며칠만 머물게 하여 우리 성을 지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겠는가”라고하자 고을 안전 이원명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어 공이 이원명으로서 적의 출입을 불문에 붙여서 한현이 도적의 괴수임을 알았고 적 사이에서 이십오명을 사로잡아 베어 동문에 목

을 걸어 놓았으니 이원명의 공이 컸다. 공이 또 숨어서 듣는 자를 붙잡아 베이고 수사와 성을 나누어서 지키는데 견고하고 안전한 곳을 미루어 수사에게 주었다. 자신은 그 허한곳을 맡아서 친히 딱다리를 치며 걸어서 순착하고 친히 군사를 위로하여 손수 음식을 가져다가 먹이고 힘쓰게 하여 말하면 문득 강개하여 하늘을 가리키며 죽음을 맹세하니 성안의 백성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며칠이 지나자 도적들이 대홍으로부터 크게 이르러 성 아래에서 세 곳으로 나누어 주둔하였는데 위쪽에서는 성을 포위하고 오른쪽에서는 장황하게 공갈하며 백마를 탄 장수가 세 번이나 성을 돌다가 달려들어 돌진하여 그 요망하고 악한 말을 극도로 해서 성안을 요동시키려 하자 공이 성중에 명하여 가만히 대응이 없는 것 같이 하고 서 성루에 험열하여 학의 날개처럼 펼치고서 범할 수 없는 빛을 보일 뿐이었다. 도적들이 이때에 계략이 궁진하여 머뭇거리고 있는 즈음에 날은 저물고 하늘은 또 한 비를 내려 적의 무리들이 별이나 개미처럼 성 아래에서 전열이 어지러워지고 비게 되었다. 공이 말하기를 “적들이 진열을 갖추지 못하고 시끄럽기만 하니 적들을 가히 계교로 파 할만 하다.”하고 관청 울타리를 거두고 무기고 대나무를 쥐하여 횃불을 만들어 성을 지키는 사람들마다 횃불 세 개를 불태우게 하고 궁수 수십 명을 선발하여 밤에 밧줄을 타고 성에서 내려와 논두렁 가운데 엎드려 있다가 성중에 횃불을 드는 것을 살펴서 적에게 화살을 어지러이 쏘게 하고 성 위에서는 불화살을 쏘아 비적들의 막사를 불태우니 불길이 치열하고 바람이 매섭자 이에 성중의 병사들을 거느려 일시에 북을 치고 사방에서 소리를 지르자 도적들이 크게 놀라 어지러이 숨고 도망가자 박명현등이 추격하여 섬멸하니 도적무리 중에 임억명이 이동학의 목을 베어 왔다. 다음날 계고로서 또 한현을 붙잡아 람차에 태워 한양으로 보내니 공로를 책봉함에 공은 제일로 삼았으며 박명현 이하는 차등을 두었다. 대개 공은 유학자로서 병법을 꾀하고 군사를 거느림에 나아갔으니 평소에 익힌바가 아니었지만 오직 그 임금이 욕되면 신하가 죽는다는 의리가 빛나고 매번 살아있음을 욕되게 여겼다. 고로 큰 어려움에 임해서도 사람들이 주저할 때 홀로 안정되게 계책을 결정하여 응하니 신출귀몰하여 빠름에 적이 꺼리고 거슬려 하는 바를 적중하였으며 본성이 사람이 재주가 있는지 비역한 자와 사나운 자와 겹 많은 자를 알아서 모두 그 쓰임을 마땅하게 하니 군사들이 쓰임이 되기를 즐겨하고 곤능 성공할 수 있었다. 적이 바야흐로 진격하여 압박할 때에 한현의 심

복 이익남이란 자가 이 백여 명을 선발하여 거느리고 몰래 아군처럼 하여 모퉁이로 성 안에 들어와 적을 위하여 대응하고자 하였는데 공이 일에 앞서 정황을 살펴 그 수족을 붙잡아 매어 간악함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니 적이 계교를 잊고 간담이 깨뜨려진 것이 진실로 여기서부터 말미암았고 하니 공은 싸우지 않고도 사람과 병사를 굴복시키는 사람이라고 할만하다. 오후라 병신년으로부터 지금 사십 여년이 되었도다. 나라에 있는 여러 성의 견고함이 홍양보다 만전하지 못하지 않고 병사의 많음이 홍양보다 만전치 못하지 않으며 지모있는 신하와 사나운 장사가 서로 오르내리며 기세를 짓는 자들이 만전공의 공업 아래로 내려봄이 없지 않건만 지난 병자호란을 돌이켜보매 한성이나 한 장수도 성을 지켜 적에 대항함이 없으니 어찌된 일인가. 온 나라에 병사를 모집한 것이 진실로 역적들의 오합지졸과 더불어 논할 수 없으나 진실로 지금의 장수된 자들로 하여금 의리에 죽는 마음을 품음이 모두 만전공이 한 것 같이 한다면 반드시 가히 볼만한 것이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만전공으로 하여금 지금의 때를 당하게 된다면 비록 한 군사를 들어 십만의 강적을 막을 수 없겠으나 멀리 내다보는 재주가 불행하다. 또한 반드시 멀리 내다보는 절개를 뒤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급급하게 만전공을 위해서 비석을 새기려고 하는 깊은 뜻이니 어찌 진실로 홍주 사람들만 경계할 뿐이겠는가. 지금 이후에 홍주성을 지나가는 자가 봉강의 신하된 즉 그 지킬 바를 생각하고 무사들은 그 봄을 벼려 나라를 지킴을 생각하고 선비와 새로 배우는 소생들은 그 난을 이겨내는 것을 헤아려 아는 것이 눈을 부릅뜨고 어려운가를 말함에 말미암지 않고 시서와 예 앞의 비탕에서 말미암는 것을 크게 깨달을 것이니 일을 당함에 감발할 것이 이비석에 있지 않은가. 만전공의 휘가신이요 자는 흥도이며 남양인이다. 퇴계 이황과 허초당의 문하에 유학하였으니 배움이 연원이 있다. 선조초에 지평 장령으로 불렸으며 일을 논함에 쟁신풍도가 있었고 벼슬이 형조판서에 이르렀으나 공훈만으로 오른 것은 아니었다. 개성유수로 치사 하였다가 십년 뒤에 돌아갔다.

만전은 호이니 명하되 새매가 참새를 쫓을 때 부리가 큰것에 그치지 아니함은 그 성품이 곧 강함이요 인신이 역적을 칠때는 강약에 관계없이 그 강성막힘에 있느니라. 빛나도다 홍공이여 이영대를 떼고서 저 미친 역적에 항거함에 의리로 봄을 잊고서 그 처자식에 이르고 군사의 마음을 격동시키도다. 굽은 자는 생각을 급한 자는 분발을 생각하여 모두 한결

같이 마땅하기를 원하고 공은 이에 이로운 것을 해아려서 제 장수에게 가르쳐주는데 그 꾀함이 선하였다. 너의 북을 어지러이 치고 밤에 말을 채찍하여 너의 활을 당기니 불화살 고슴도치 피어나듯 함성은 위세를 더해주니 적들이 달아나고 망하였다. 명현 먼저 놓아 득의로 알아보니 난적의 우두머리 이빨처럼 뾰족하다. 괴수를 자루에 둑어 놓은 듯 산채로 사로잡아 달력이 주를 올려 밖에 빛나도다. 역적의 기세가 구름처럼 사라지고 산천이 안정하니 공이 높이 솟네. 이에 명한글을 내시고 철권을 이으시며 맹부를 감추었도다.

공의 죽음은 오래되고 세상에 난이 그쳐 공의 충성이 더욱 빛나도다. 홍주의 사람들이 그 덕을 생각하여 사당에 제사하니 월산의 남쪽이라 소나무지 도리요 잣나무 판에다 신령을 모셔두고 진나라의 제기 위에붉은 여지 누른 파초로다. 오직 이에 양을 메어두니 나의 명이 큰 자취라면 뒷날을 이것으로 보이리라.

신사 십이월 일 세우다.



비명 **홍양청난지비** 〈기념비〉

지역 홍성읍 위치 및 장소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625-15(산해암 입구)



## 丙午殉難義兵將士公墓碑

韓光武十年閏四月九日夜倭攻洪州東門我義兵將士出擊力戰至曉皆死之世所稱洪州丙午之役也先是乙巳冬倭連賊臣結保護約國權驟移中外忠義之士思糾旅誓死而會有受旨南下者聲氣湊應起自藍浦入洪州部署甫定報敵至且薄城主者跳由恒例之臨敵失統其下宣不能自整而獨以此義兵也人懷國亡之哀幅憶森張芒刃方閃故見敵

如十年跡仇而猝遇之於林薄之間夫誰得以沮之由是是日義兵在城中不去者部伍加肅手足加敏非制之由人由義制也成載翰蔡光默田泰鎮徐基煥爲義兵領官或謂載翰主者去矣將伺爲載翰叱曰南兒在此斷頭耳豈爲賊屈哉光默泰鎮基煥皆與同美益督戰兵士益用命非聽領官聽于義也義兵所持械皆羸舊敵砲火所擊天地爲震而前仆後奮沫血爭敵殺傷大當敵酋土方原之助睦太郎皆死焉方戰月明忽黃霧濃合不分咫尺敵益兵夾攻城遂陷義兵死者尸如邱陵平明昇瘞澗坑是時敵

勢怠怠近者拘執加委積蒸變驗視道絕故尸歸家者無幾姓名晦昧并人數而莫有明者或云七八百或云五六百至今遇其日則性內外忌祭夜哭往往相聞蓋自乙巳變後域中義兵繼起皆單外散行其

以城守而抗大敵獨洪州之役爲然卒之一軍全沒雖慘其感動民衷而作興敵愾烈亦與之宏矣夫以當時之勢則單外散行與以城自守等之無取勝之籌以寸刃衝巖石折者耳此不待智者然後知知之洪州義兵諸君子豈不知勢之如此哉知其不可勝而猶戰之而至於死是義之盡而仁之至也惟其然

也故彼此之強弱利鈍愈相懸絕而諸君子之義愈益昭明如日星久愈欄然至其義之所□柱積四十年而旣墜復整山河返故則知義終定天而強弱利鈍之於勝敗其數非能久也州邑東諫洞左麓不故義尸瘞處也每雨潦過則散骼隨流立政之明年州人士尹大榮等議于官役民發土出其瘞坎坑南十步之原而禮遷之忠南產業局長鄭樂勳督林政諸官授圖賦功大封廣翼臺砌崇壯植樹有揭鋪莎有尺衆虔其事若奉家先普過拜封塋肅然愴敬樂勳謂以諸君子之義而名之不傳爲可恨嗟乎普亦恨

之然由後人而恨其不傳是乃滋所以永其傳也且旣已壹於義而爲國殤矣芳風正氣終古不散又伺用某某之爲始以受旨起師而聞敵跳免者曰閔宗植此不可不書以示後銘曰

國步中跋狡寇乘之內結羣慝外勢相維謂無外交謂無內治鱗介猖狂桓解傷悲惟義不遠人心卽是孰爲斯民而畏蘪糜泣涕漣如傳擎帶祕烈性風驅一夕乃萃乃授之械乃揭之幟旣禡藍浦洪陽于次農舍其畝工釋其器曰女無遲國不可棄賊氣漫漫

彌三千里有截一城充以忠義賊如川至東門方急

羣受衣制失率紀立齊我果毅一以當十射豈素練  
酋顛猶疊父母生我用之今夜懸彼明月照此不下  
勢有強弱義則一个屬於連踣息存槍把翦鶴天醉  
黃霧俄塞義骯臘屬城爲賊得得以我死我惟有拒  
身雖隕喪拒則終古烈烈之精爲日爲星扶胥民衷  
俾久無更導之迓續景命有僕非種遂去嘉實復熟  
故旗央央羣神受職瞻言往昔曷以無惻月山之峨  
金馬清逝州人談故覆土薈翳鵠鵠號黑青燐開閉  
散骼熒熒長霖初霽爰選明壇爰遷荒塗敢云報功  
寔告有濟深坎厚封夫須如毳土女薦華遠近遞至

於赫明靈瞻顧伊何窀穸之美於慰豈多一乃心力  
凝茲僅遇無苟纖微造次循度靡大靡小靡官靡民  
期以自樹恤然依人張目蚤夜懲艾往恥無俾三光  
延厥分披非國有鳩骨孰與寧非民有成骨孰與榮  
八域永貞一封有耀苟推其誠厚夜如杲蘭菊非馨  
山河是慶九天擁幼萬世民正

東萊人 鄭寅普 記

青松人 沈相直 書

檀紀四二九二年七月 日

## 병오순난의병장사공묘비



대한제국 광무 10년(1906) 윤달 4월 9일 밤 왜군이 홍주의 동문을 공격하였다. 우리의 의병과 장졸은 이를 무찌르려 나아가 밤새 싸웠으나 모두 전사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홍주에서 일어난 병오년의 일이라 한다.

그 이전 을사년(1905) 겨울 일본이 5적 대신과 연결하여 을사보호조약을 맺어 국권이 느닷없이 일본에게 넘어갔다. 정부와 민간의 충절과 의리 있는 인사들은 대중을 모아 사투를 맹세하였다. 마침 고종의 밀지를 받아 남으로 내려 온 자가 있어 기세를 모아 밀지를 따랐다.

의병이 남포를 기점으로 홍주로 들어가 부서를 처음 정하고 왜적이 쳐들어와 성에 다다를 것을 알리자 주장이 달아났다. 지난 항쟁사로 예를 들어도 적을 만나 장졸을 거느리지 못하면 부하들도 스스로 정비하지 못하였다. 오직 이번에 제어한 일은 의병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마다 나라 잃은 슬픔에 사무쳐 답답한 가슴이 가득하여 칼날에 눈빛이 번득인 자리 왜적을 만남이 10년의 한 남긴 원수 같았다. 그러나 우거진 숲 속에서 갑자기 적을 만났으니 누가 이를 막을 수 있었겠는가. 이 일로 이날 성에 남은 의병들은 줄지어 선 대오가 장엄하였고 손발이 매우 날렵하였다. 이는 사람들에 의해 제어한 것이 아니고 정의에 의한 것이다.

성재한(成載翰) 채광목(蔡光默) 전태진(田泰鎮) 서기환(徐基煥) 등이 의병영관이 되었다. 어떤 이가 재한에게 “주장이 가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라 하니 재한이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남아가 여기서 머리와 귀를 베일지언정 어찌 왜적에 굴복하랴.”고 하였다.

광목 태진 기환 등도 모두 뜻이 같아 더욱 싸움에 힘쓰게 하니 병사들도 그 명령에 따랐다. 이는 영관을 따른 게 아니라 정의를 보고 따른 것이다.

의병이 보유한 병기는 모두 낡았으나 왜적의 대포위력은 천지가 진동하여 앞뒤의 건물들이 전복되고 뒤흔들렸다. 피투성이 된 얼굴로 왜적과 싸워 크게 살상시켰다. 적방 토방 원지조(土方原之助)와 목태랑(睦太郎)이 모두 죽었다.

한참 싸움이 벌어진 때 달빛이 밝다가 갑자기 누런 안개가 짙게 끼어 지척간도 알아 볼 수 없었다. 적은 군사를 늘려 양면으로 공격하여 성은 결국 함락되고 말았다. 이 때 의병으로 죽은 이의 시신은 언덕만치나 쌓여 이튿날 이를 가져다 골짜기의 구덩이에 매장하였다.

당시 왜적의 기세가 더욱 치열하여 근방의 사람들도 잡혀 시체더미만 늘어 나 길이 막힘

을 볼 수 없었다.

시신이 자기 집에 보내진 자는 거의 없었다. 그들의 성명도 알지 못해 인명수가 중복되어 밝혀지지 않은 자가 어떤 이는 7,8백, 또 어떤 이는 5,6백명이라 했다.

지금도 그 날이 되면 성과 안팎으로 기제를 지내는 밤에 곡소리가 이따금씩 들려온다. 대저 을사의병 이후 그 지역의 의병은 계속 일어나 모두 각기 흩어져 행동하였다. 의병들이 성을 지켜 큰 왜적을 대항한 것은 오직 홍주의 일이었는데, 졸지에 일군이 전멸하였다.

비록 비참했지만 그 주민들의 충정에 감동하여 의병이 다시 일어났다. 왜적은 더욱 포악해져 우리 의병은 이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 당시 형세는 의병이 각자 흩어져 행동한 것과 성을 스스로 지키는 일인데, 모두 승리하지 못한 계획이었다. 한 치의 칼날로 암석을 찔러 자를 수 있는 것은 칼날뿐이었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도 알 수 있는 일이니, 홍주의 의병과 여러 군자들이 어찌 당시 형세가 그와 같았음을 몰랐겠는가?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줄 알면서도 오히려 왜군과 싸워 전사했으니 이는 의가 극진하고 인이 지극한 것이다. 오직 그리하여 의병과 왜군 사이의 강약과 예리, 노둔함이 더욱 차이가 있었고 여러 군자들의 정의가 더욱 밝아져 해나 별이 오랠수록 뽑시 빛나게 되는 것과 같았다.

그 정의가 바로잡힘에 이르러 나라 위한 기둥을 쌓은 지 40년만에 이미 실추된 것이 다시 정비되었다.

산하가 복구되어 정의는 마침내 하늘의 이치를 바로 잡아 강약과 예리, 노둔함은 전쟁의 승패에 있어 그 운명이 오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고을의 동쪽 간동의 원편 산기슭 아래는 전사한 의병들의 시신이 묻힌 곳이다. 늘 큰비가 내리면 이곳의 유골들이 빗물에 쓸려 떠내려갔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 이 고을의 인사 윤대영(尹大榮) 등이 관원과 의논하고 주민을 징발하여 흙을 파내 매장된 구덩이에서 유골을 꺼내 남쪽 60척 떨어진 평원에 국장으로 옮겼다. 충청남도 도청 산업국장 정낙훈(鄭樂勳)이 산림행정과 여러 관리를 감독하고 부역 사업에 관한 계획을 세웠다. 무덤의 큰 봉분을 더욱 넓히고 돌계단도 높고 견고하게 만

들었으며, 나무를 세워 표지를 만들고 열 치 정도의 잔디를 깔았다. 많은 이들이 그 일을 경건히 하여 마치 자기의 조상을 받들 듯 한 지라 나도 이봉분을 지나다 배례드리면 숙연히 슬퍼지고 조심스러워졌다.

낙훈은 여러 군자들이 정의로웠어도 그 이름이 전하지 못함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 나 역시 안타깝게 여겼다. 이 번 일은 후세 사람이 그들의 이름이 전하지 않음을 한스러워하기 때문에 더욱 그 일의 전함이 오래 가게 한 것이다. 또한 정의에 전일하여 나라 위해 일찍 전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향기로운 봄바람을 내는 천지의 바른 원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니, 또 어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당초 고종의 밀지를 받아 의병을 일으키고 왜적의 소식을 듣자 급히 달아나 죽음을 면하게 된 자는 바로 민종식(閔宗植)이다. 이는 기록에 남겨 후세에 반드시 알려야 할 것이다.

명에 이르기를

국운이 기울자 교활한 도적이 기회를 노려  
안으로 간교한 무리를 맺고 외세를 서로 연결했네.  
외교권, 내정권도 없이  
갑옷 차린 의병들 격전하여 용맹으로 슬픔을 잊었네.  
오직 정의는 가까워 인심 올바르니  
누가 이 백성을 위해 나물 죽 먹기를 꺼냈으랴?  
눈물 흐느껴 밀지 전해 듣고  
세찬 바람 밀려오듯이 하룻저녁에 모였네.  
병기 주고, 깃발 높이 세워  
남포에서 지낸 마제(禡祭) 그 다음 홍성에서  
농부는 밭을 버리고 공인은 기구에서 손을 놓아  
자네 지체하지 말게 나라는 버릴 수 없는 것  
왜적의 기세 끝없이 삼천리에 퍼져  
홍주성 함락에도 충성으로서 의리를 빛냈네.

왜적은 냇물이 밀려오듯 동문이 위급한데  
의병들은 의로운 명령에 따라 거느림 없이 기강이 섰네.  
우리 모두 과감히 굳세게 혼자서 열 사람 물리치고  
활쏘기 서툴지만 적장 쓸어 트려 두려워했네.  
부모님 나를 낳아 오늘 밤 써먹게 하시니  
저 밝은 달 떠 여기 비추는 한 굴하지 않으리.  
세력은 강약이 있지만 정의는 오직 하나  
연속 패배로 괴로워 다시 수복하기 숨 가빴네.  
왜놈들 하늘도 아찔 누런 안개 자욱했고  
우리의 시신은 분투한 몸이나 성은 왜적이 차지했었으니  
의병의 전사로 방어할 일만 남아  
비록 죽었지만 한 번 방어로 영원하리  
분투한 정기는 해와 별이 되어  
우리의 고충을 도와 길이 변함이 없으리  
따라오니 천명이 내린 무리들  
종나 내 벼려 좋은 열매 다시 익으리  
의병의 깃발 휘날려 여러 신령도 할 일 맡는 데  
이런 날 회상에 어찌 슬프지 않겠나!  
월산 아래 금마천 맑게 흐르고  
사람들 옛 이야기에 땅 가린 수풀만 무성하네  
부엉이 어둠을 알려 파란 도깨비불 깜박깜박  
해진 백골에 불빛 비추어 긴 장마 이제야 개이누

밝고 높은 땅을 찾아 거친 무덤을 옮겨  
감히 선인의 공을 갚으려 진정 이 고을 건진일 알리려네.  
깊은 묘구덩이, 높은 봉분에 띠풀은 솜털인 듯

아리따운 여인 꽃 바쳐 여기 저기서 찾아오네.  
아! 밝은 혼령이여! 돌아보심이 어떠한가?  
묘혈 아름다워 매우 위안되시리  
그대 심력 기울여 작은 예우라도 다해  
섬세하진 못하나 별안간 먼저 할 일 했네.  
크고 작음, 관리 백성 따지지 않아  
스스로 세우려 남 의지하지 않네.  
온 종일 두 눈 부릅떠 지난 치욕 징계하니  
해와 달 별빛은 더함이 없이 밝은 광선 길기만 하네.  
나라 없이 편안한들 육신은 누구와 함께 하며  
백성 없이 번성한들 육신은 누구와 누리리  
팔방이 길이 안정되어 이 한 봉분 빛나니  
진실로 정성 드리면 깊은 밤도 밝아지듯  
난초, 국화 좋은 건 향기만 아니라 신하가 더욱 좋아서네  
높은 하늘이시어! 약한 자를 돌보시니  
영원히 백성 바르게 되리

서기 1949년 7월 일

동래인 정인보 짓고 씀

서기 1995년 8월 중추

아연 노승석 번역함.



비명 병오순난의병장사공묘비 <묘비>

지역 홍성읍 위치 및 장소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산124-2(홍주의사총 내)





## 孝子通政大夫行龍驤衛副護軍金應喜之門

孝子通政大夫行龍驤衛副護軍公諱應喜子元之慶州人也高麗太師仁琯爲遠祖八傳至有諱自粹號桑村當我太宗朝守義效死有亨院歷八世有諱弘翼當丙子力戰不屈爲賊所害諡忠愍至六世處士公諱魯淵卽公之禰也公自齠齡天姿確礪遊戲親側下氣順旨每遇珍需異果必哀歸而進之誠敬若慈烏反哺羝羊跪躅也及弱冠之年立脚於

純孝至行之地素志靡懈事無由已行無專制養親之誠如執玉奉盈扇枕溫被一夜五起行傭辦直負米斗升賣菜爲業以供菽水剖冰求魚入山採樵處士公泥醉而歸背負至門太平之世不失時而養便身之物莫不畢具不能違膝下不從斗筲之職焉父母饗奇崇有沈疾衣不解帶行不正履診候視病迎醫合藥嘗糞恬苦冒寒祈禱淚如冰筋丁憂之日歲月之製壽器等節致敬盡禮朝夕哀號墓庭草不生芽見榻泣血子侄廢蓼莪居則致其敬喪則致其哀可謂終身慕父母者天普舊老桑海遺民指點謂黃

金一釜之孝焉至有棹楔之典木生連理條葉被澤鳳雛無凡毛其祀孫桓濟生於世孝積德之家懼其祖業墜地袖其孝行行狀請余爲壽世之文而刻石宜辭不避者移孝於君義旗討賊敦睦於族親嫁娶

設產視人若已歟年私賑忠孝仁三事 本朝人物  
以公謂第一故載筆以待立言君子云  
通政大夫前行承政院右副承旨兼 經筵參贊  
官春秋館修撰官金炳億謹撰

大正十五年丙寅四月 日立

## 효자 통정대부 행용양위 부호군 김응희 효자문



효자 통정대부 행용양위부호군 김공 휘(諱) 응희는 자는 원지(元之) 경주인이라 고려 태사 인관(仁琯)이 면 조상이라 팔 세손을 전하여 오다 휘(諱) 자수(自粹) 호 상촌(桑村)에 이르러 조선 태종때 의(義)를 지키다 죽으니 서원에 제향하여 내려오다가 팔 세손 휘(諱) 홍익(弘翼)이 병자 호란을 당하여 굽히지 않고 적과 싸워 친히 시호를 충민공 이라하고 육 세손에 이르러 처사공 휘(諱) 노연(魯淵) 즉 공의 아버지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천품이 다르고 어버이 곁에 놀 적에 기가 순하고 마음이 좋아 특별한 과일이나 음식은 반드시 부모님께 돌아와 드리니 정성이 자오반포(慈鳥反哺 : 까마귀는 어릴적에는 어미가 기르고 커서는 새끼가 어미를 먹인다는 효조이다)와 같고 염소가 궤족(염소는 어미 젖을 먹을 적에 앞무릎을 끓고 먹는다)하듯하였다. 약관이 되어서는 순효지행(純孝至行 : 효의 행실)을 세웠다. 본디 뜻이 계으름이 없고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 뜻으로 오로지 전제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하는 정성이 옥구슬을 가득 담은 그릇을 받들 듯하였다. 여름에는 덥지 않게 부채질을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며 하룻밤 사이 다섯 번 일어나 살피었다. 쌀 말되를 장만하고 채소를 팔아 생업을 하니 변변치 않은 음식이었으나 봉양을 하였다. 겨울엔 얼음을 깨고 고기를 잡아 봉양하고 또 산에 가서 나무를 하였다. 처사공(부친)이 취하여 돌아올 때는 업고 서문에 이르니 태평지세 때를 놓지 않고 편안하게 봉양하는 물건이 다 갖추지 않음이 없으니 슬하에 자손이 뜻을 어김이 없고 작은 직책도 나아지 않고 부모가 무사하기를 빌었다. 부모가 병이 드니 의복을 풀지 않고 병환을 살피고 의원을 모셔와 약을 쓰고 분뇨를 맛보며 추위를 무릅쓰고 기도하니 눈물이 고드름같이 하더라. 정년에 돌아가시니 수위와 그릇 등 제절을 정성을 다하고 조석으로 묘소에 애통해하니 묘 앞에 풀이 나지 않았다. 상탑(喪榻) 전에 피눈물을 흘리었다. 아들과 조카는 기르지 않고 거상에 공경을 지극히 하는 것이 종신토록 부모를 사모하는 바라 천분년간에 상해(桑海) 유민이 효로 황금을 점지 받고 효가 지극하니 도설전(棹楔典)에 연리지 나뭇가지 잎에 봉추(鳳雛)가 혜택을 입는다 하니 뭇새는 그렇지 않게 그 손자 황제가 적덕과 효를 세상에 내고자 하나 그 할아버지의 업적이 땅에 떨어질까 두려워 그 효행의 행장을 내게 지어줄 것을 청하였다. 오랜 세월 세상에 나타낸 글로 마땅한 글로 돌에 새기니 피하여 옮기지 못할 것은 효도와 임금에 충의와 기치를 들어 적을 토벌하는 것이라. 친족에게 화목하고 흥년에 가산을 사재로 규훌하니 충과 효와 인(仁) 세 가지를 본조(조선) 인물 중에 공이 제일인고로 군자

라고 이를만하도다.

통정대부 전 행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연관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김병억 삼가짓다  
대정 15년(1927) 병인 월 일 입



비명 효자 통정대부 행용양위 부호군 김응희 효자문 〈효행비〉

지역 홍성읍 위치 및 장소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산 45-1





#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折衝 將軍龍驤衛副護軍張君墓碣銘并序

昔朱先生之任南康也修舉荒政民無流殍特除直  
祕閣先生以前所勸出粟人未推恩三辭不拜及其  
出粟人推恩然後始受職名仁人君子之用心可知  
矣近歲丙丁大歉振古所罕而內浦爲尤甚時有洪  
州人張君潤興賣田買米救活飢民前後以千數公  
布未收爲一千餘戶君皆辦納此不啻勸出者比也

本州牧使及監司御史相繼褒賞一鄉人士豎碑紀  
蹟而獨未聞聞上推恩何哉余與人語及丙丁時  
事每以是歎惜焉今其子永植孫昇煥謁余以銘余  
何忍辭諸陶庵李先生有言親有善而顯之固孝也  
余何忍辭諸迺攷其狀君字致諱本出結城清溪君  
夏爲其鼻祖父箕土贈戶曹參議祖述鐵贈掌  
樂正世居洪州之紙亭後徙治下君生有美質異  
凡兒見者稱奇十一歲丁外艱已能執禮致哀事母  
宋氏至孝非有故罔或離側每夜必三省其寢睡安  
否及喪居廬三年睦於貧族篤於穹交輕財好施寔

出天性而律身儉約食焉充飢而已衣焉蔽裸而已  
及其病革命進新汲水盥漱易衣而逝恬然無怛化  
意聞君平日喜讀庸學此乃讀書之力也又聞君一

生盡誠於先墓所在皆建齋舍置位土設石儀要爲世而始傳至六輿五合三世先窩卽酉谷面達安里負酉之原也其高祖兩位卽松枝谷面雌牛峙枕卯之麓也而其左龍卯坐曾祖之雙封在焉又其右階下卯坐祖若妣合祔在焉後葬其父州南面高接里庚坐葬其母德山蘿朴所面樂天里已坐今永植輿

昇煥請記其詳以示來裔故爲之書如此君生壬午正月四日庚申登武科庚午加折衝副護軍其贈戶參以子營將追營也終於丁丑六月二十七日葬于番川面佳谷里丁坐君聘慶州李命復女有二子長定植武科公州營將次永植武科五衛將定植前室朴氏有四女適新平李敏性通川金在洛清州李漢永寶城吳晟鎬後室有三男昇煥主事次晟煥教官次景煥永植有子一煥亦主事嗚呼如君者卽古所稱善人者非邪易曰積善之家必有餘慶余觀永植輿昇煥其爲人皆足以延慶有未艾也噫朱先生

於人乞銘多所不許而書務實二字貽之蓋以謁銘顯親非不爲孝而又莫如身自爲善貽令名於父祖之爲大孝也耳此義永植輿昇煥尤不可不知也遂爲之銘銘曰

嗚呼積善之墓兮古聞其墓今見此墓嗚呼積善之墓兮

皇上卽祚四十一年甲辰二月 一通政大夫前行承政院右副承旨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永膺后人李 傑撰

嘉善大夫行兵曹參判同知義禁府事月城后人金  
文濟書

配貞夫人慶州李氏之墓別在酉谷面桂月里甲坐  
之原追序

# 증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행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 장군 묘갈명 병서



옛적에 주선생(주자)이 남강에 부임하셔서 황폐된 정부를 수리하고 백성이 병들고 유랑하는 자가 없게 하고 특별히 직비각(直祕閣 : 벼슬 이름)을 제수하니 선생이 권출에 앞서 속인(粟人 : 벼슬 이름) 추은(推恩 : 병사나 수사가 부친에게 加資 하는 일)치 아니했다 하여 세 번이나 사양하고 급기야 속인(粟人)에게 추인한 연후에야 비로소 직책을 받았다. 어진 군자의 마음을 가히 알만하다. 근세에 병년과 정년에 크게 흥년이 나 옛날에도 드문 바라 내포가 더욱 심했다. 그때에 홍주인 장공 윤흥이란 사람이 있어 논을 팔아서 쌀을 사 주린 백성을 구제하고 전후 수천의 공포(公布 : 저포로 세금을 내는일)를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일천여 호가 되었다. 공이 이를 변세하여 대납했다. 이뿐만 아니라 권출자로 본루목사 및 감사어사가 서로 포상하여 한 고을의 의사(義士)로 비석을 세워 그 행적을 기록하니 임금께서 홀로 듣지 못하다가 들으시고 추은이 어떻겠는가 하니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병정년을 말하니 이로써 탄식하였다. 지금 그 아들 영식과 손자 승환이 내게 뵙고 내가 비석문을 명하니 어찌 글을 참을 수 있겠는가. 도암 이선생(도암이재)가 말하기를 선행하고 나타낸 것은 진실로 효이다. 내가 어찌 그 모두를 말하겠는가. 이에 글로써 상고하건데 공의 자는 치순(致淳) 본관은 결성 청계공하(夏)의 후손이다. 부친 기사(箕士) 증호조참의요, 조부는 술철 증장악정이다. 대대로 홍주의 지정리 후로 이사했다. 공은 미질로 남다른 아이로 태어났으니 보는 자가 기이하다고 하였다. 십일세 정년에 아버지 상을 망하여 몸노예로서 치상하고 어머니 송씨 상에는 지극한 효로써 하였다.

조금도 옆을 떠나지 않고 매야에 세 번씩 침수 안부를 살피었다.

거상시엔 시묘 삼년을 하였다. 가난한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빙궁한 교우들에게도 두텁게 하며 재물을 가벼히 하고 베풀기를 좋아하였다. 하늘에서 낸 성품으로 법도를 검약하고 식사는 주림을 채울정도로 하고 옷은 몸을 가릴 따름이었다. 급기야 병이 들어서도 세수 양치와 의복을 갈아입는 일을 손수하고 편안히 슬픈 기색이 없이 운명하였다. 들으니 공은 평일에 중용 대학을 읽기를 좋아하니 이것은 독서의 공이다. 또 들으니 공은 일생에 선 영의 묘소에 정성을 다하고 다사당을 지어 위폐를 모시고 토것을 쌓아 사당법도에 맞게 영

구히 하고 또 항상 자손들에게 삼가고 실수 없이 하라 경계하였으며 대개 그 선조의 묘소가 칠대로부터 전하여 육 오 삼대까지 묘소가 유곡면 달안리 유좌향으로 하고 그 조고양위는 농기곡면 자우치 묘좌유향하니 그 산기슭의 죄룡묘좌이다. 증조 쌍봉 우측아래 묘좌에 있고 조부는 조모와 합부하였다. 그 후 부친은 본주 남면 고접리 경좌로 장사지내고 모친은 덕산 나박소 낙천리 사좌에 장사지냈다. 지금 영식과 승환이 자세히 기록하기를 청하였다. 후손이 그 연고를 이와 같이 쓰니 공은 임오생정월 사일이요 경신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경오년에 절충부호군 증호참 아들은 영장으로 추영하고 정축년 유월 이십칠일에 운명하니 번 천면 가곡리 정좌에 장사지내다 공은 부인 경주이씨 명복의 딸로서 두 아들을 두었으며 장자는 정식 무과에 급제하였고 공주영장 차자는 영식 무과에 급제하여 오위장(五衛將)이다.

정식은 전실 박씨에서 넷의 딸이 있으니 신평 이민성에게 출가하고 통천 김재악 청주 이한영 보성 오성호 후실에서 세 아들을 두었으니 승환주사 친자 성환교관 셋째는 경환이라. 영식의 아들 일환이 또한 주사가 되었다. 오흐라 공과 같은 즉 고인이 칭한바 선인이라 삣됨이 없었다. 역에 이르기를 적선 한 집안에는 경사가 있다고 하였으니 영식과 승환의 사람됨을 보건데 사람됨이 족히 연경(延慶)의 싹이 있으리라. 아! 주자께서 비석의 명문은 많이 하지 않는바 두 자를 써주니 무실(務實 : 성실함에 힘쓰라는 말)이다. 비석의 명(銘)이 부모를 나타내는 것은 효 아님이 없다. 또 몸소 선행하는것만 같음이 없다 하셨다. 부조(父祖)가 대효(大孝)가 되었다고 이름함이라. 이 뜻을 영식과 승환에게 더욱 가히 알지 않을 수 없다하고 드디어 비명을 지어 말하기, 오흐라 적선한 묘소여 예부터 들린 묘가 이 묘소이라. 오흐라 적선한 묘소여.

황상 즉조(고종황제가 즉위한 해) 사십일년 갑진(1904년)

이월 통정대부전행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 영응후인 이설찬

가선대부 행병조참판동지 의금부사 월성후인 김문제 씀

배(配) 정부인 경주이씨 묘소는 별도로 유곡면 계월리 갑좌향에 있어 추서함.



비명 가선대부용양위부호군장군 묘갈명 <묘비>

지역 홍성읍 위치 및 장소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산 48-1



## 逸農徐先生興學紀念碑

湖中自古以文學稱之禮儀以是而備焉風俗由此而美焉此皆豪傑之士以興起斯學爲已任而然也繼而逸農徐先生出焉稟氣剛毅堅韌雖不與世浮沈終能達權低昂適彼地方公選長於面務道路交通公益增進風俗改善莫不慥慥識者贊之其美學良績今不能殫記略舉一二可窺其全豹之班先生

每以爲人文未備良村不產亶在於學教不興之故也焦心殫慮者積數十風霜矣距今二十八年前創設一校于私第揭以德明招集彥英開牖提撕靡不用極大鵬將舉斥鵠所笑高鴻奮飛燕雀安知時則地方物議安於古俗喧逐滋甚先生獨毅然邁進不屈不搖捐土質屋釀財充用惟以維持此校爲意傾盡蓋藏至於晚年飭粥難繼不以爲懷殫誠竭力教育英才爲八春秋也卒業數爲六回也而繼爲公立今廣川學校是也吁養成聰俊裨益世道迺使湖西一隅曙光溫曠此皆先生之所莊嚴也今當本校二

十周年記念式追憶舊蹟深寓誦慕鑄鑄文永圖不朽凡百君子庶幾矜式嗚呼先生寒年纖纖儉歲美梁遺風尙存山高水長先生前德明學校校主黃山徐公承台逸農其號也

昭和十年十一月三日  
廣川公立普通學校學父兄會員一同

## 일농서선생홍학기념비



호서에 자고로 문학과 예의가 갖춰져 풍속이 이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니 이것은 다 호  
걸지사의 사학(斯學)을 일으킴을 다했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것을 계승한 분이 일농 서선  
생이니 기품이 강의(剛毅)하고 견응(堅凝)하여 세상의 부침(浮沈)에 더불어 권세에 따라가거나  
현달하거나 부양(俯仰)함이 없었다. 지방의 공선(公選)으로 면장으로 피선되어 도로교통 공익  
증진에 힘쓰고 풍속을 개선하는데 성실하게 하지 않음이 없는 학자라 옳은 미덕과 공적을  
거량함에 지금에 이르러 능히 전부 다 기록하기 어렵고 대략 한 두가지를 들어 저모를 엿  
보고자 합니다. 선생은 매양 인문이 미비하고 양촌에 생산이 없는 것은 학교에서 일으키  
지 않는데 있다고 믿은 연고라 노심초사하고 침잠사색한지 십년 세월이라. 지난 이십 팔  
년 전에 창설한 학교의 교명을 덕명이라 걸고 영민하고 학식 있는 큰 선비를 모셔 문을 열  
고 이끌어 최고로 용무(用務)치 않음이 없으니 대봉(大鵬)이 장차 척안(斥鷁)을 웃는 바요, 높이  
나는 홍안(鴻雁)을 어찌 연작(燕雀) 따위가 알겠는가. 당시 그 지방의 물의가 어찌 옛 풍속을  
들어 그 시끄러움이 자심하지 안했겠는가. 선생은 홀로 의연히 매진하여 불굴하고 흔들림  
없이 전답을 내놓고 집을 담보로 하여 재정을 내어 충당하고 오직이 학교를 유지하니 뜻이  
소진되고 쇠진하여 기우러져 덮어지니 만년에 이르러 죽을 먹으며 생계가 어려워도 후회  
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영재교육에 힘 쓴지 팔년이라, 졸업한 수가 육(六)회로 이어져 오  
다가 공립이 되니 지금의 광천학교가 이 학교라. 아! 총명하고 영준한 자를 양성하고 세상  
의 도(道)를 도왔으니 이에 호서지방의 한 곳에 서광(曙光)이 빛나고 빛나니 이것은 다 선생  
의 장엄한 바라. 지금 당 본교 이십 주년 기념식에 옛 자취를 추억하여 깊이 사모함을 염송  
(念誦)하고 돌에 새겨 영원히 썩지 않기를 도모하나니 여러 군자는 몇 번이고 긍식(矜式)하노  
라. 오호라! 선생은 어려울 때에도 자세하고 능숙하며 검소한 미덕의 유풍이 오래도록 전  
경하도다. 선생의 전 덕명학교 주(主) 황산 서공(徐公) 승태(承台) 일농(逸農)은 그 호이다.

소화 십년 십월 이일(서기 1944년 십월 이일)

광천 공립 보통학교 학부형회원 일동



비명 일농서선생홍학기념비 <기념비>

지역 광천읍 위치 및 장소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48(덕명초등학교 내)





일농 서승태 선생은 1854년 8월 3일에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에서 태어나서 1921년 12월 30일에 돌아가셨다.

선생은 품성이 강직하였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르고 높았으며, 인재 양성에 큰 뜻을 품고 오랫동안 노력하여 1908년 덕정마을에 덕명초등학교의 전신인 광천사립덕명학교를 설립하였다. 학교 운영을 위하여 8년 동안 전 재산 많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다 옥고를 겪었다.

이와 같은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개교 20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기념비를 세운다.

1935년 11월 3일

광천공립보통학교 학부형회원 일동

## 韓雲女史獎學紀念碑

猗歟女史 克彰厥賢 念茲公校 財路逋遯  
傾庫捐金 三千其圓

騰頌閨巷 馳譽報章 社會福音 學界曙光  
一片嵌石 百歲留芳

昭和十三年四月 日立

### 한운여사장학기념비



아! 여사의 그 어짐을 능히 표창합니다.

이 공교(公教)를 생각하여 어려운 재정과 사재를 기울여 삼천원을 내셨습니다. 여향(閨巷)에  
서 칭송하고 영예로움을 글로써 보답합니다. 사회의 복된 말씀이요 학계에는 서광이니 한  
조각 돌에 새겨 백세토록 아름다운 일을 남기려 합니다.

소화 십삼년(1938년) 사월 일 입



### 비명 한운여사장학기념비 <기념비>

지역 광천읍 위치 및 장소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48(덕명초등학교 내)





## 贈軍務參議金公秉噲有功之碑

### 負商感義碑

嗚呼商忍言哉甲午東學之亂往牒所未有之變也  
一種狂誕之設陷溺民心不數月而水滋火熾八方  
之赤子盡化爲盜當是時以一身而作長城隻手而  
住頽波屹然獨立以斥邪禁暴爲己任竟能持欹器  
尊于衽席之安者惟洪州牧兼湖沿招討使李公一

人而已其麾下從事之士多不碌碌而故中軍 贈  
軍務參議金君秉噲尤傑然者也君字德卿其先出  
光山世居洪州嘗試於討捕營爲兵校既而從武舉  
出身而服役如舊有膽略多材能君雖欲自免爲討  
捕使者輒愛而不捨也及是年夏東學漸起勢甚猖  
獗方伯以下皆屏息坐待閔知攸措而招討公方新  
莅洪牧日事捕治特差君爲本府中軍以董城役凡  
事皆諮焉人或謂此賊名位入道不與他等民與賊  
無以區別不如因置勿問徐而圖之君尤忿憤唾罵  
痛心切齒殆若與之不俱生者招討公益賢之冬賊

兵四起暴掠郡縣聲言將屠洪州於是州城戒嚴設  
五陣固守君爲中軍領官又力言此賊氣燄雖暴盛  
不過是鋤耰棘矜之聚無終日之計以斧鉞而臨之  
勢心駭散宜出兵勦捕而滅噍類招討公可之十月

辛亥奉令出討廣川賊卽破之殺獲甚多先時城中器械多未備識者爲慮至是得大砲三十餘位以爲戰守之資甲寅討水沿賊癸亥又討合浦賊連破之官軍乘勝銳氣日壯人皆踴躍爭先追至于禮山之新禮院時賊兵之散者合亡者赴咸聚一處衆可數萬見官軍援絕勢孤圍而蹙之甚急君自度不得脫

乃諭士卒使各逃生因拔劔力鬪賊不敢近乃策馬突圍而出行未數里馬蹶追至遂遇害至死口不絕罵卽十月二十六日己巳也招討公聞之大傷痛若喪左右手君有母年七十餘嘆曰吾兒死於王事可無悲也粵三日辛未賊遂大學席卷至洪州城外翌日壬申大敗奔海美海美賊懼乃棄城出遁官軍及儒兵追及於島飛山大破之於是內浦諸賊悉平招討公以君效勞及立慬之事聞于朝特贈軍務參議以褒其忠嗚呼謹哉近日諭者或有以輕進敗績爲君之矣然抑有所不幸而幸者余竊念其時者

勢君若無恙則賊不敢入洪不入洪則亦未必遽敗也若使收合徒衆由禮山直向公州與南匪合勢而挾攻則錦營之不陷未可保也錦營陷而京師危矣由此觀之君之一敗寔出於誘致之計而无亦未必不有意於其間也死得其所功存民國不亦壯哉余於君重有感焉君嘗入錄負商爲班首御衆有法臨難而多獲其力今其徒又爲君勒石紀功以圖不朽之傳吁可嘉已夫商末技也國俗貴士重農而以商爲賤余觀昨年從叛梗化之民盡起於農畝之中

而近日士大夫之所爲者果甚事耶觀於此或可以

知愧也哉余嘗讀招討公誄君之詞久而悲之今於  
銘君之碑無容改贊乃述其意爲銘銘曰  
官浴其生賊欲其死必有以兮 君謂之忠母謂之  
孝他何校兮

當寧三十二年乙未十月上浣

永膺 李偰 撰

全州後人 李錫範 書

舊任：安學龍 李宗玄 金甫國 李用孫 崔聖九

新差班首：朴德信

漢產班首：李安州 韓東一 金秉夏

內洞新差：李日三

本所新差：韓泰德

戰亡人：李鍾旭 朴定連 徐奉祐 白石 梁聖學

閑官接長：劉漢奉

本房：李在浩

本所本房：李寬五 崔八文 田成必 金應七

都公員：尹相眞

丙申四月二十九日年時立石

# 증군무참의김공병돈유공지비



## 부상감의비

오호라! 참아 말하노라. 갑오 동학난은 지난 역사에도 이런 변이 있지 않은 바다. 일종의 광탄지설로 민심을 함정에 빠트리고 이개월이 안되어 물이 불어나고 불이 번지듯 사방팔방에 적자(赤子)로 되어 이때에 한몸으로 도적을 당하여 한손으로 장성을 지어서 주거가 파괴되는 파란속에 훌연(屹然)히 독립으로 삿됨을 물리치고 폭력을 금하도록 하는 책임자가 마침내 기울어짐을 불들어 편안히 하는자가 오죽 홍주목사겸 호연초토사 이공 하나이다. 그 휘하에 종사하는 군사가 녹녹치 않은 자가 많고 그 군사들 가운데 증군무참의 김군병돈(金君秉曠)이 더욱 걸출한 자라. 군의 자는 덕경(德卿)이요 그 선대는 광산김씨로 세거 홍주라 일찍이 토포영(討捕營)시험으로 병교(兵校)가 되고 무과출신을 따르며 복역함을 옛날과 같이 하였다. 담력과 지략이 많고 군이 비록 토포사를 면하고자 하나 훌연히 애착으로 놓지 않고 있다가 올해 여름에 동학이 일어나 그 형세가 심히 창궐하니 수령 방백이하가 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민(閔)관찰사의 조처하는 바를 기다리니 공이 초토사를 새로이 홍주목의 자리로 두어 포지(捕治) 일을 특별히 차사(差使)하니 군이 본부중궁이 되어 성죽의 감독과 무릇 일을 다 자문케했다. 사람이 혹 말하기를 동학의 이름으로 본도에 들어와 다른사람과 더불어 지내지 않고 일반백성과 적도와 더불어 구별이 없이 서서히 이를 도모하니 군이 더욱 분개하여 꾸짖고 아픈 마음으로 이를 갈고 이들과 더불어 함께 살지 않을 것이다.

### 초토공 익현(益賢)이 말하기를

겨울에 적병이 사방에서 일어나 군현(郡縣)을 무력으로 노략하고 들리는 말에 장차 이 홍주꼴을 도륙(屠戮)한다하니 성에 계엄을 설치하고 다섯 진을 고수하여 군이 중군(中軍)령관으로 또 힘써 말하되 이 도적들은 기고만장으로 기염을 토하고 폭력이 무성하나 논매는 농군에 불과하다. 종당엔 무기로서 임전태세 하면 그 끝이 없을 것이다. 형세가 흐려지고 마땅히 출병하여 죽이면 곧 멸하리라. 초토공이 이를 옳게 여겨 시월에 명령을 받들고 광천으로 나가 토벌하니 적병을 파하여 죽이고 사로잡을 자가 심히 많은지라. 그 먼저 성중에 무기가 많으나 이를 사용하는 자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염려지내니 대포 삼십의 위를 얻어 이르니 전투하는 물자라 갑인년에 적을 토벌하고 해안가의 계해년에 합토의 적을 토벌하

여 연달아 파멸시켰다.

관군이 승승(乘勝)하고 용예(勇銳)한 기운이 날로 강장하여 사람들이 앞다퉈 뛰어 추격하니 예산 신례원에 이르러 적병이 흘어지고 죽은 자 도망한 자 합하여 그 무리가 수만이라 일려라.

관군의 지원이 끊어지고 형세가 포위됨을 동학군에게 보고하여 사기가 위축됨이 심히 급하여 군이 벗어나지 못함을 헤아리고 이에 사졸들에게 말하길 “빠져나가 살려면 칼을 뽑아 힘을 다하여 적병과 싸워라. 적이 감히 가까이 하지 않는지라 이에 말을 채찍 하여 적병이 에워싼 곳을 돌격하여 나가니 이리도 안돼서 말이 미끄러져 넘어지니 적병이 추격해와 마침내 해를 입어 죽음에 이르러 적을 꾸짖음을 그치지 않더라. 곧 시월 이십 육일 기사이라.” 초토공이 이 소식을 듣고 대성을 통곡하고 나의 좌우 팔을 잃었구나 하더라. 군의 모친께서 연세가 칠십여 세라 통탄하여 말하길 내 아들이 임금님을 위하여 죽었으니 가히 슬픔이 없다 하더라. 이에 삼일 사미일 남은 적이 드디어 대거 무리로 홍주성 밖에 이르니 다음날에 적이 대패하여 해미로 달아났다. 해미는 적을 두려워하여 이에 성을 버리고 나와 숨었다. 관군과 유병(儒兵)이 도비산(島飛山)까지 적을 추격하여 이를 대파하니 이로써 내포의 제 적도들이 다 평정되었다.

초토공이 군의 노력분투를 본받아 용맹분투로 공을 세운 것을 조정에 알리니 특별히 증군무참의(贈軍務參議)로 그 충성을 포상하였다. 오호라! 옳음이여 근일에 말하는 자가 혹 경솔하게 나갔기 때문에 패하였다. 군을 말하나 그러한 것은 억지로 말하면 불행한 바가 있으나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간절히 생각해보니 그 때 형세에 군이 만약 무고했으면 적이 홍주성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홍주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또한 급히 패하지도 안하였을 것이다. 만약에 적의 무리들이 수합하여 예산으로 직향하고 공주의 남비(南匪)와 더불어 합세하고 협공한 즉 금영(錦營)이 함락되지는 않으나 보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금영이 함락되면 경사가 위급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데 군이 한번 패한 것은 적을 유인하기 위한 계획인 것이다. 또한 뜻이 그 사이에 있지 않은 것 아님이 없다. 죽음으로서 공을 이루고 백성을 보존할 수 있었다. 나라에 또한 장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군에게 거듭 감격한 바라 군이 일찍이 부상(負商)에 입적되어 들어가 반수(班首)가 되어 무리를 거느리고 법

도 있게 하기는 어려우나 그들의 힘을 많이 얻었으니 지금 그 무리가 또 군을 위하여 돌에 그 공을 새길 것을 도모하고 오래도록 썩지 않게 전하도록 하니 아! 가상하도다. 무릇 상인은 말업(末業)이라 나라의 풍속이 선비를 중히하고 농군과 상인을 천하게 여겼으나 내가 보건데 작년에 강경하게 반란군에 따라간 백성이 다 농민 가운데서 일어나니 근일에 사대부가 하는 바가 과연 심하다. 이로 보건데 이는 혹 가히 부끄러움을 알진저!

내가 일찍이 초토공의 조문하는 글을 읽고 군에 대한 글이 오래도록 비통함으로 지금에 명을 지어 이르기를 군의 비석의 낮면에 다시 고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그 뜻을 진술하여 명하여 이르되 관이 살고자하면 적은 반드시 죽고자 함이 있음이여. 군이 나라에 충성하고 모친께 효도함을 이름이니 어찌 다른 곳에서 살피겠는가.

당저(當寧) 삼십 이년 을미 시월 상왕

(서기1895년 을미년 시월 상순)

영응(永膺) 이설 지음

전주후인 이석범 씀

구임 : 안학용 이종현 김보국 이용손 최성구

신차수반 : 박덕신

한산반수 : 이안주 한동일 김병하

내동신차 : 이일삼

본소신차 : 한태덕

전망인 : 이종옥 박정연 서봉우 백석 양성학

한궁접장 : 유한봉

본방 : 이재호

본소본방 : 이관오 최팔문 전성필 김응칠

도공원 : 윤상진

병신 사월 이십 구일 일 오시 입석.



비명 증군무참의김공병돈유공지비 <기념비>  
지역 광천읍 위치 및 장소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509-15





## 孝子靈光金卜煥之碑

### 讚揚文

右讚揚事謹按忠南儒薦則洪城郡洪東面雲龍里故孝子嘉善大夫金卜煥系出靈光后忠貞公號雪庭諱思順十六代孫通政大夫諱重澤曾孫嘉善大夫諱命攢孫諱始潤子姿稟溫良操持明敏克承庭訓沈潛性理之學實踐孝右之行家雖貧寒事親之道能竭其力負米於百里以供甘毳專養心志少無

違戾不意有虎入洞其父被咬傷成崇委席在側不離盡誠救護嘗糞祝天漸至危劇指血注口甦延三日竟遭艱泣血行素禮終祥期虎患當時官民協力欲捕不得聞舒川捕虎發憤馳往拔刃啗肉賣屋得金二十緡分賞砲手此非誠孝所感安能致此哉噫純實其行宜乎楔棹以圖闡揚而時制不古尚在未遑輿情之齎恨去益彌社云故本會按狀難嘿先付鋟梓使建碑闕彰善行於八域壽令名於千秋之意依儒論讚揚事

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八年丁卯春立

### 慕聖公會

會長判書金宗漢 賛成判書朴箕陽  
顧問輔國閔丙奭 賛議長參領全冕朝  
都有司主事申鉉台 經學有司參事李肯齋  
典禮有司建士俞鎮晚 幹事有司教官崔承完

# 효자영광김복환지비



## 찬양문

우(右)찬양할일을 삼가 살피건데 충남 유림이 천거했으니 홍성군 홍동면 운용리 고(故)효자 가선대부 김복환 영광김씨 후인으로 충정공 호는 설정(雪庭) 휘(諱) 사순(思順)의 십육대손 통정대부 휘 중택(重澤)의 증손 가선대부 휘 명찬(命贊) 손자 휘 시윤(始潤)의 아들이다. 자품이 온랑하고 지조가 명민하며 부모님의 가르침을 믿고 계승하며 성리학을 깊이 배우고 침잠 사색하며 효와 우애를 실천하였다. 집은 비록 가난하나 어버이 섬기는 도는 힘들 다 하였다. 양식을 지고 백리를 걸어서 부모님께 공궤(供饋)하였다.

음식이 좋고 덜함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오롯이 봉양하며 조금도 어김이 없이 하며 불미한 일이 있으니 호랑이가 동네로 출몰하여 그 아버지를 물어 상해를 입혀 자리에 누었으니 곁에 떠나지 않고 정성으로 구호를 하였다. 대변까지도 살피고 하늘에 낫기를 기도하였다. 점점 위독함에 이르니 손가락의 피를 내어 입에 넣으니 삼일을 더 연명하였다.

운명하시니 피눈물을 흘리었다. 상(喪)을 다 마치는 때에 이르러 호환(虎患)으로 당시 관민(官民) 협력하여 잡고자 했으나 잡지 못하고 서천(舒川) 사는 포수가 발분하여 달려가 잡아 칼을 빼어 호랑이 고기를 씹었다는 소리를 듣고 집을 팔아 금 이십 민(銖)으로 포수에게 상으로 주었다. 이것은 효성에 감동한 바가 아니고 어찌 여기에 이르리요. 아! 순박하고 진실한 옳은 일이다. 널리 밖에 선양하나 그 때에 옛 일을 상론(尙論)치 못하고 정향없는 실정에 아쉬움을 가진 채 세월이 더욱 멀어져갔다. 사회에서 말하기를 그 실상을 살피건데 잠잠히 침묵하기 어려우니 먼저 비석에 새겨 효자각을 건립하여 그 선행(善行)을 사방에 표창하게 하고 그 이름이 오래도록 하야 한다는 뜻이 유림들 논의에 의거 그 일을 찬양하노라.

공부자탄강 이천사백 칠십 팔년 정묘 봄에 세움.

## 모성공회

회장 판서 김종한 찬성판서 박기양  
고문 보국 민병석 찬의장 참령 전면조  
도유사주사 신현태 경학유사 참사 이긍복  
전예유사자사 유진만 간사유사교관 최승완



## 비명 효자 영광 김복환지비 <효행비>

지역 광천읍 위치 및 장소 홍성군 광천읍 운용리 140-1(양지면 마을)







## 魯恩書院遺墟碑

### 魯恩書院遺墟碑銘竝序

天高地下萬物散殊人心之不同如其面之不同然  
至於忠義之卓異萬口一辭千載如一日者寔由於  
君臣大分實天經地義亘古今而不可易者也殷紂  
之惡天所廢也周武王有君師之德得八白之會應  
天順人除暴掠亂而墨胎氏獨恥食其粟餓死而無  
怨明文皇乘王者不死之運得飛燕上畿之讖以太

祖之子革建文之位廟社如故市朝不改非也人易  
姓之比而方陳諸君子盡忠所事赤族而不悔者何  
也其心以爲大義所係不欲以命數而易其素守故  
也我東六臣之忠亦如斯焉爾六忠之取義詳於諸  
先正敍述此不必贅也洪州魯恩院露梁愍節院寧  
越彰節院大邱洛濱院昌寧勿溪院公州達田祠皆  
成先生俎豆之所而先生之生寔在魯恩先人邱墓  
亦在其傍神理所安比他院尤爲典要者也嗚呼自  
戊辰廢撤以後六忠之他靈無地土流之展誠無日  
迄于今七十祀矣天道循環洪州人士設遺蹟保存

會而郡守河俊煥以忠烈公傍裔亦極用力至昨歲  
秋會長李莊魯會員金烈濟諸人協議振發釀金得  
千圓田土若干買入爲先墓位土今歲丙子之六月  
七日卽先生成仁之七周甲也就六忠祠版埋安處

設壇而焚香郡守及士林三十餘人且於是日冒雨齊會設祭告由舊宅老梧亦築垣以護之驪陽閔公所豎遺墟碑閣朽頽已久而朴敦圭以會員特出巨額重建其閣敷地一千三百五十三坪亦買以屬之考總管公妣朴氏及夫人金氏三墓歲久頽圯得俞忠穆傍裔興植之發議俞氏青陽一派及外氏後裔

朴氏諸宗傍裔咸喬煥各出財賄封之莎之壇與墓所在林野爲他人所有者還屬於本會迺豎碑于院宇舊墟以紀其事嗚呼日月不墜則先生之名不墜河海不竭則先生之澤不竭今日人士之□蹶奔走爲先生效力者實先生忠義之所激而其不顧利害慕義如渴者亦可嘉也抑又有一說焉故老相傳有一碑未刻者埋在院近而未詳厥由及院廢有人欲發掘爲己用則雷聲輒起遂惴而止今也試掘則晏然無事石亦精佳乃不復他求而用其石先生之忠魂義魄能感動天地留待乎今用而然歟嗚呼異

哉範益猥以匪才按節到此亦不無贊助之誠工旣訖屬余以銘之亦不敢以不文辭焉銘曰  
子而克孝乃名爲子爲臣克忠乃臣之義是曰秉彝極天罔墜凡爲人類好是之懿聖謨洋洋嘉言孔彰世道變幻雖百滄桑所不泯者惟此倫綱小子狂簡敢述銘章

忠南道知事從四位勳二等李範益撰

洪城郡守正七位勳六等申昌燮書

丙子復月日

## 노은서원유허비



### 노은서원유허비명병서

하늘은 높고 땅은 아래니 만물이 각각 달리 산재하여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은 것은 그 얼굴이 같지 않은 것과 같다.

충의가 탁월히 다른 것은 만(萬)사람의 말이 하나 같고 천년을 지나도 하루 같은 것은 이것이 군신 간에 크게 나누어 진 것에 말미암는 것이니 실로 하늘의 경륜과 땅의 의로움이 만고를 뻗쳐도 가히 바꾸지 못할지라. 은나라 주(紂)의 악함은 하늘이 이를 폐하였고 주나라 무왕의 군사의 덕이 팔백년 동안 하늘이 응하고 사람들이 순응하며 폭력을 없애고 난리를 구하였다.

목태씨(백이숙제)는 홀로 그 주나라 곡식을 먹는 것이 부끄럽다 하여 굶어 죽으며 원망함이 없었고, 명의 문황승은 불사의 운이 비연 상기의 참소를 당하였다. 태조의 자가 건문의 위묘를 개혁하여 건립한고로 시조(市朝)가 그름을 고치지 아니하였다. 사람의 역성(易姓)을 돋는 것은 바야흐로 제 군자의 충성을 다하여 적족(赤族)을 섬김바라 후회함이 없는 바는 어쩜 인가. 그 마음이 대의에 매인 바요 수명(數命)을 바꾸고자 한 것은 아니고 그 근본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동방의 육신(六臣)의 충성이 또한 이와같을 따름이다. 육충신은 의를 취한 것은 제선생(諸先生)에 자세히 서술하고 이로써 더할 필요가 없다. 홍주 노은서원 노량진의 민절원 영월의 창절원 대구의 낙빈원 창녕의 물계원 공주의 달전사다. 성선생의 제향한 곳 이라. 선생은 이 노은동에서 태어났고 선대의 묘소도 그 곁에 있다. 신위께서 타 사당보다 편안한 바요 법도로 행한바라 오호라 무진년에 폐철된(1868년 서원철폐) 이후로 육충신의 신주를 모시는 일을 할 곳이 없더니 사류(유림)가 정성으로 하지 않은 날이 없이 하여 지금 칠십여 차례 제향에 이르렀다. 천도(天道)가 순환하여 홍주 인사가 유적보전회를 설치하여 군수 하준환 충렬공(하위지)의 방계 후예로 극력 힘을 써서 작년 가을에 회장 이장로 회원 김열제 제인이 협의 발흥하고 금전 천원을 각출하여 전토(田土) 약간을 매입하여 선대 위토(位土)로 하고 병자년에 6월 7일 즉 선생이 살신성인한지 칠주 갑이니 육충신 사당의 위태를 묻은 곳에 단을 세우고 분행하니 군수 및 사람 삼십여 인이 또 비를 무릅쓰고 설단(設壇) 고유제를 지내고 성선생 고택에 늙은 오동나무 옆에 또한 담장을 쌓고 이를 보호하니 여양 민

공이 유허비를 세운 비각이 무너진지 오래므로 박돈규 회원이 특별히 거액을 내어 그 비각을 중건하였다. 부지 천삼백오십 평을 또 매입하여 여기에 소속되게하고 총관공 모친 박씨와 부인 김씨 세 묘소가 오랜 세월동안 무너졌는데 유 충목공 방계 후손 흥식의 발의로 유씨는 청양의 일파로 외씨의 후예 박씨 제종이라 방계후손(성선생) 성 교환이 돈을 출연하여 봉분제 폐를 잊하고 단과 묘소 임야가 타인의 소유였는데 다시 본회(설단설치추모회)로 귀속하게하고 이에 비석을 원우(옛 사당 앞) 구유허지에 기록하여 세웠다.

오호라 일월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즉 선생의 이름이 떨어지지 않으며 하해(河海)가 마르지 않을 즉 선생의 뜻이 마르지 않으니 금일 인사가 뛰어나가 선생을 힘써 본받는 자가 실로 선생의 충의에 감격한 바라 이해를 불고하고 사모하는 의가 목마른 것 같이 하니 또한 가상한 것이요. 또 일설 고로(故老)가 전하여 말하기를 비석 하나가 있었는데 글은 새기지 않고 서원 가까운 곳에 묻었다 하나 그 이유는 자세히 않고 서원이 철폐함에 사람들이 발굴하고자 하였으나 놈성 갑자기 발하여 두려움으로 일을 그치었다. 지금에 시험삼아 발굴한 즉 일이 무사할 것이나 비석이 또한 정가(精佳)하여 다른 곳에서 구하여 쓴다 하고 다시 발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선생의 충혼 의백이 감동한 것으로 지금에 와서 쓰라고 기다리심인가? 오호라 이상하도다 이 범의이 더욱 외람되어 비재로 안절(按節)로 여기어 이르러 찬조함이 없지 않으니 정성스러이 공역(工役)이 이미 마치며 내가 이를 새겨 감히 문사로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명에 이르기를 자식이 능히 효를 하니 자식이 된 도리요. 신하가 능히 충성을 하니 신하된 의리라. 이것이 떳떳한 이치요. 하늘이 다하도록 떨어짐이 없는 것이 무릇 인류이다. 이것이 좋은 의성의 모범이 넓고 넓어 가언이 크게 빛나고 세상의 도리가 변해도 비롯 백 번 창상(滄桑)이라도 민몰치 않는 것이 오직 윤강(倫綱)이라. 소자가 감히 거칠은 글로 명을 짓습니다.

충남 도지사 종사위훈 이등 이범의 지음  
홍성군수 정칠위훈 육등 신창섭 씀



비명 노은서원유허비 <유허비>

지역 홍북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홍북면 매죽헌길 403-12(홍북면 노은리 104번지)





## 成先生遺墟碑

洪州魯恩洞成先生遺墟碑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

事監春秋館事 宋時烈 撰

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同知 經筵事 金鎮商 書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 俞拓基 篆

先生我 世宗大王朝名臣也諱三問字謹甫世傳  
先生降時空中有問生乎者三故名云爾歷事 文宗  
魯山(端廟復位前君號)至 世祖丙子離  
丹書輿其考諱勝同朴彭年河緯地李塨柳誠源俞  
應孚等皆死世所稱六臣者也其時戮及其孥相坐屠  
滅者又三十餘家異武者安富尊榮累世不絕然至  
今累百歲而人之歛歎慕尚皆欲百其身者顧在此而  
不在彼豈史遷所謂其重若彼其輕若此者哉豈不  
以天理民彝極天罔墜不可以威武鑠而勢利奪哉  
嗚呼懿哉先生昌寧人以永樂戊戌生於洪州之

赤洞里邑人尙其第宅至今梁棟無恙庭有老梧世  
傳先生登第榮歸設宴時縣樂於樛枝云爾今 上  
九年驪興閔公維重按節來尋則木老屋壞滿目荒  
涼而烏山在傍屹然有柱天障天之勢想像其爲人  
不勝景仰之懷將立石以識其居時余承 命至漢  
師寓於掌苑署之外署內有老松數株老人指謂曾

以先生所居籍入官爲公廨此實先生手植云臃腫  
禿缺生意僅存而猶有歲寒之意正如志士仁人更  
歷變故而剛毅獨立凜然不變者矣撫事興懷慨然  
咏歎適閔公以書來曰赤洞之石已具願有文以記  
之遂書此以遺之使後人雖千百世之遠尙有以竝識乎彼此也

(赤洞魯恩洞一名)

## 성선생유허비



홍주 노은동 성선생 유허비  
대광보국 송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겸영 경연사감 춘추관사  
송시열 지음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 겸동지 경연사 김상진 씀  
대광보국 송록대부 행판중추부사 유척기 두전을 씀

선생은 우리 세종대왕때의 명신으로 휘(諱)는 삼문이요 자(字)는 근보이다. 세속에 전하기를 선생이 태어날 때 공중에서 아이를 낳았느냐고 세 번 물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삼문이라 이름하였다 한다. 선생은 문종(文宗 : 조선5대 왕)과 노산(魯山)때에 역사(歷事 : 내려오며 섭기다)하였는데 세조 병자년(세조2년 1456)에 단서(丹書 : 붉게 쓴 글씨로 단종복위문서)에 걸려서 그 아버지인 휘 승과 더불어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등과 함께 죽으니 이들이 곧 세속에서 일컫는 육신(六臣)이다. 그 때의 죽임이 그 처노(妻孥 : 부인과 종들)에까지 미쳐 도륙되고 멸문에 연좌된 자가 30여 가문이 되었으나 빨길을 달리한 여러 자들은 안전한 부귀와 높은 영광이 여러 대에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여러 백년이 되었어도 사람들이 흡선하고 탄미하며 경모하고 숭상하여 모두 이들의 죽음을 자기 몸으로 대신 백번이라도 바꾸고자 한 것은 도리어 이들에게 있고 저들에게 있지 않으니 어찌 사가(史家) 사마천이 이른바 그 중함이 저와 같고 그 가벼움이 이와 같다는 것이 아니겠으며 어찌 하늘의 이치와 백성의 본심을 하늘이 다하도록 떨어지지 않아서 위무(威武)로도 녹일 수 없고 세리(勢利)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아름답다! 선생은 창령인이다. 영락 무술년에 홍주 적동(홍주 노은리의 옛 이름)리에서 태어났는데 고을사람들이 그 집을 존중하여 지금까지 돌아보아 기둥이 아무 탈없이 보존되었다. 마당에는 늙은 오동나무가 있는데 세속에서 전하기를 선생이 등제하여 영광스럽게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 때에 그 가지에 북을 매달았다고 한다. 금상 9년(임금 숙종 1683)에 여홍 민공 유중(민유중 : 숙종의 장인이요 학자이며 관찰사였음)이 관찰사가 되어 이곳을 와보니 나무는 늙고 집은 허물어져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황폐되어 쓸쓸한 것 뿐이고 오산(烏山)이 곁에 우뚝이 서있어서 하늘을 떠받치고 냇물이 가로막은 형세가 있으므로 그 사람됨을 상상하며 크게 우러르니 회포를 이기지 못하여 문득 돌을 세워 그가 살던 집을 표시

하였다. 내가 명을 받들고 한양에 가서 장원서(掌苑署 : 조선조때 원유와 화초를 맡아보던 관아) 밖에 우거했는데 장원서 안에 늙은 소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 전에 선생이 살던 곳으로서 관에 적몰되어 공해(公廨)가 되었는데 이것은 실상 선생이 손수 심은 것이다 하였다. 그 나무는 여기저기 명이 들고 모자라져서 겨우 살아있는 정도였지만 오히려 세한(歲寒)을 견디어 내는 뜻이 있어 바로 지사(志士)와 인인(仁人)이 변고를 경력하면서도 굳세게 훌로서서 늠연히 변하지 않는것과 같았다. 지난 일을 더듬어 찾아보니 감회가 일어나 개연히 길이 탄식하였는데 마침 민공이 편지를 보내오기를 노은리에 돌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글을 지어 기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기에 마침내 여기에 써서 남겨두어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비록 천백년의 긴 세월이 흐르더라도 오히려 저를 아울러 알 수 있게 하노라.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겸 영경연사감 춘추관사  
송시열 씀



비명 성선생유허비 〈유허비〉

지역 홍북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홍북면 매죽헌길 403-12(홍북면 노은리 104번지)







## 成先生遺墟碑 陰

尤菴先生撰碑在 顯廟戊申蓋閔文貞將載之石  
未果後 肅廟庚午始豎石但書曰昌寧成先生某  
之閔文則闕焉時值斯文陽九豈有所畏忌而然輿  
今李公箕鎮以大冢宰斥補此州見而歎曰有碑而  
無文何以示後不曰遺墟而曰閔不亦無義乎遂更  
龍治而篆額勒其文如式爲其石實文貞之所具也  
碑文成後四年壬子成先生神主出仁王山厓京外  
章甫受尤菴指奉安於遺墟之舊廬盧亦文貞所嘗

修葺者也其詳在尤菴記文中又後丙辰多士立祠  
於其傍祀先生而神主移奉位版後至乙丑并享五  
先生丙戌又用其廬追享成先生考摠管公公同時殉  
節而不得合奉以位序有碍也壬申因儒生疏請  
賜院額曰綠雲文貞子判書公鎮厚以爲尤菴稱此  
洞必曰魯恩魯恩其有義己丑白于 上遂命改頒  
金額摠管公輿先生夫人墓在院東隔一岡而近  
朝廷許以成氏沒入田十七結屬本院俾供香火崇  
報之典於是備矣獨尤菴稱述之文尙闕顯刻久爲  
士林所嘅惜今得公乃成斯豈非有待而然歟凡事

在戊申後者公要余悉錄謹識之如此時 崇禎甲

申後百單一年甲子四月日也

後學坡平尹鳳九記

德水李箕鎮書

## 성선생유허비 음



우암 선생이 지은 비문 현묘(조선조 9년 1668년)

무신년에 있어 문정공(여홍민유중)이 장차 비석을 세우려다 이루지 못하고 후에 숙종 경오년(16년 1690년)에 비로소 비석을 세우고 단서에 이르기를 창영 성선생의 가문의 글이 없어졌다. 때에 사문(유교유학)이 성할 때에 어찌 두려워 꺼림이 있겠는가. 지금 이공기진(李公箕鎮)이 대총재(大冢宰)로 이 고을의 척보를 보고 탄식하여 이르되 비석은 있는데 글이 없어 어찌 후세에 보이겠는가. 이것은 안된 것이다. 유허는 있으니 또한 의로움이 있지 않는가? 드디어 비석을 새겨 이후 사년 임자년에 성선생 신루를 인왕산 봉애에서 나와 경외 장본인 우암(송시열)이 받들어 유허지의 구택에 봉안하고 문정공이 일찍이 수리한바라 그 자세한 것은 우암의 기록한 글 가운데 있으나 후에 병자년(숙종26년 1700년)에 많은 선비가 그 곁에 사당을 세우고 제사하였다. 선생의 신루를 옮겨 봉안한 후 을축년(1685) 오선생(사육신 다섯분)을 아울러 병술년(1706년)에 향사하였고 또 그 집에 성선생 아버지 총관공을 동시에 순절하고 추향(追享)하려 하였으나 부득이 같이 봉안함이 맞지 않아 하지 않았다. 임신년(1752년)에 유생이 청하는 상소로 인하여 사액하려 녹운이라 하고 문정공 아들 판서공 진후가 우암에게 이 고을은 반드시 노은(魯恩 : 노나라의 은혜)의 은혜가 있다하여 노은이라는 그 뜻을 하였다. 기축년(1769년) 상께 아뢰어 드디어 고치어 분포하라고 명하였다. 도총관과 선생부인 묘소가 서원 동쪽 건너 한 낮은 산에 있으니 조정에서 성씨를 몰수한 전토(田土) 십칠결을 허하여 본서원의 제사와 노비를 쓰게 하고 그 은혜로 보답하고 법도를 갖추었다. 홀로 우암이 칭술(稱述) 한줄로 현각하여 오래도록 사람들의 애석함을 지금 원을 이룬 것이다.

이는 어찌 기다림이 있지 아니한 것인가? 무릇 일이 무신년 이후 공이 나에게 이때의 일을 삼가 밝혀 기록할 것을 요한 것이다.

승정 갑신(1644년)후 백일년갑자년(1744년) 사월 일  
후학파평 윤봉구 기록  
덕수인 이기진 씀



비명 성선생유허비 음 <유허비>

지역 홍북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홍북면 매죽헌길 403-12(홍북면 노은리 104번지)



## 成先生神主遷奉記

今上壬子四月日京中儒士南宅夏張始顯呂必寬三人以書來曰某月日戶曹書吏嚴義龍來告成某神主在仁王山崩崖間生等驚且異奔往視之崩崖亂石間有甕器其中有三箇栗主其一果成先生也拂拭埃蘚而審之外面直書姓名三字及年戊戌生四字陷中如之而只小生之一字合內外十三字矣生等心神悚然遂展拜以致禮焉其二卽先生外

孫參纂朴壕夫婦也其所題則一如家禮之式矣生等不知如何處之還以安置于舊處未知將何以處之而得其宜也余不覺愴歎曰今去世祖丙子蓋數百年矣雖其顯揚於當時者無不聲沈響滅其鬼不靈矣況先生淫刑慘禍之餘誰作是主誰奉祭祀又誰埋安而今乃出現耶以禮則親已盡而當祧久矣然以先生壯節高義當百世祀之而其餒幾年于茲矣今茲之事蓋亦天誘嚴吏之衷而有此奇幸矣夫天既啓之而人又埋之豈其所忍曾因閔監司維重問先生舊宅尙在洪州魯恩洞當時庭木亦且無

羔云今姑奉安乎此則禮所謂神返室當者雖缺於始而得行於今矣既以是相報而又以告於鄉里士友則則亦有來見南呂書辭而感涕者矣卽而南呂諸人幸不以愚言爲悖卽以通于先生族屬之在洪

者而姑奉以神輿安置于先生彌甥嚴纘家於是搢紳章甫爭就展拜而前掌令趙世煥亦外出也幼學金瑾先生其外族也自洪相與至嚴氏家謀奉以南歸兵曹判書閔公鼎重將率館學諸生拜送于江頭適有公事而不果焉五月癸亥就道趙與金隨行焉先是京畿監司金宇亨行下沿路各邑使之護送惟

振威縣令李集成有疾外無不致其誠敬而水原府使成後高則至於豐潔羞酌妥侑于東軒又盛設供帳于野外迎送皆遠出矣未至舊宅五里許先生皇考摠管公墓在路傍亦與先生相殉者也遂停神輿于其前以順先生之孝心焉蓋是日出迎于路者傾州咽街遂入安于廳事而面南又北壁下蓋閔監司曾慾立石于其前而先加修葺故樑棟不改而塗壁聿新似亦有待焉乃以其日丁卯大祭而本州牧李侯遑初獻沔川守閔侯(日旁匀字)亦以外裔亞獻而終獻則趙掌令也其餘守宰諸生皆俯伏聽位

位各致愴憇嗚呼是孰使之然哉不過曰不期然而然矣余於是別有所感焉堂 魯陵之遇變于寧越也暴露於路傍而人莫敢收視有郡吏嚴興道獨往臨哭取棺而斂葬焉至今所謂 君王冢而 列聖之修祀者卽此也故陰崖李先生記之曰自古忠列之士不必出於世胄華族當時販君規利必置其君於淫禍然後快於心者其視嚴君爲如何哉而村婦里童至今快鬱不平不知其言之出於口果知人性之難誣也余嘗於 窠席請褒錄興道矣今先生神

主又見得於嚴義龍而又以權奉於嚴氏之堂是皆

寧越籍也是亦可異焉是不知是 魯陵君臣之幸  
歟抑亦諸嚴之幸歟比因朴參贊從玄之在尼山者  
聞丙子禍作日先生夫人金氏自寫其神主抱負於  
孥屬處而祭之及其沒而其主歸於參贊家參贊亦  
嗣絕而並埋云其言皆可徵矣其夫人墓今在魯恩  
洞香火廢絕嗚呼其亦悲矣京外諸生又將作廟于  
宅傍並享當時同志朴河李柳俞五先生蓋以爲  
世祖大王嘗有成某等萬世忠臣之教故河先生之  
祠建于善山朴先生之碑立于懷德而朝廷無禁焉  
矣閔監司所伐之石已致于宅前而未及磨刻今祠

與石二役州牧李侯及泗川閔守將終始經紀云

是歲七月日恩津宋時烈記

## 성선생신주천봉기



금상(今上) 임자 4월 일 서울사는 한 선비 남택하 장시현 여필관 3인이 글을 가지고와 말하기를 모월 일에 호주이(호조관리) 엄의용이 와서 고하길 성모(성삼문) 신주가 인왕산 봉애 사이에 있다하니 우리 등은 놀라고 기이하여 급히 가서 보니 절벽아래 어지러이 있는 바위 사이에 옹기그릇 속에 세 개의 밤나무 신주가 있으니 그 하나가 과연 성선생이라. 먼지를 닦아내고 살펴보니 앞면에 정자로 성명 삼자 및 무술년생 네 글자가 있었다. 그 가운데 빠진 자와 같이 다만 보라는 한 글자가 있었다. 앞면과 뒷면이 13자였다. 우리 등은 마음이 놀라 신주를 평고 절을 올렸다. 그 나머지 둘인 즉 성선생의 외손 참찬 박호 부부라고 쓰여있는 즉 하나같이 가례(家禮)의 법으로 하였다. 우리 등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구가(성선생의 구가)에 안치를 해야 하나 장차 어떻게 해야 마땅한지 알지 못하다가 내가 깨닫지 못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지금 세조 병자년이 지난지가 대개 수백년이라. 비록 당시에 현양(顯揚)한 자는 소리를 침잠하여 고요하지 않음이 없으니 귀신인들 영명(寧明)치 못하였다. 하물며 선생이 음형참화 여파로 누가 이 신주를 만들고 제사를 올리며 묻었으며 지금에 나왔는가. 예로써 친히 다하고 부조묘(조정에 내린 사당으로 불천지묘를 말함)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선생이 장절고의로써 마땅히 백세에 이를 제사를 올리려 하되 제사 절사한지가 몇 년인가.

지금 이 일은 대개 또한 하늘이 엄이(嚴吏)를 끌어내었으니 속으로 이와같이 기이하고 다행한 일이라.

무릇 하늘이 이미 열어놓고 사람이 또 묻었으니 어찌 참을 바요.

일찍이 민감사(閔監司)로 인하여 선생의 구택이 홍주 노은동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당시에 마당과 오동나무는 없고 지금 임시로 이곳에 봉안하니 이는 예로 신주를 집에 다시 들여오는 것이다. 비록 시작은 하였으나 지금 와서 행하게 알리고 또한 남씨와 여씨 제인은 일이 어그러지지 않게 함이 다행이다. 곧 선생의 친족이 홍주에 있어 통지하고 신여(神輿)를 선생의 먼 생질 엄찬의 집에 임시 봉안하니 이에 진신장보들이 가서 참배하고 전장령(前掌令) 조세환은 외척이라. 유학 김근 은선생의 외족이라 홍주로부터 서로 엄씨가에 이르러 받들기를 도모하고 남으로 간 병조 판서 민공 정중이 장차 관학제생을 거느리고 강두(江頭)에서 배송할 적에 결말내지 못한 공사로 간다고 하다 계해년 오월에 조와 김이 수행을 하였다. 먼

저 경기감사 김우형의 행차에 길가에 각 읍사(邑使)가 호송하고 진위 현령 이집성이 병환인데도 나와 그 정성이 그르치지 않는 것이 없더라.

수원부사 성후설은 음식을 풍족히 하였고 동현에 장막을 설치하여 야외까지 멀리 보내었다. 구택(성선생구택)에 오리 정도 이르지 않해서 선생 황고(성선생 당시 임금을 존칭한말) 총관공묘소가 노방에 있어 선생이 순절할 때 같이했다(성선생의 부친 묘소를 말함). 드디어 대청 안으로 들어가니 북벽에 남면하고 민감사가 일찍이 비석을 세우고자 한 그 앞에 먼저 집을 세우려 했으나 아직 마치지 못하여 열지 못하였다. 기다렸다가 이에 정묘일에 대제를 올리니 본주 목사(홍주) 이섬이 초현관 면천군수 민윤 또한 외척으로 아현하고 종현에 조장령 그 나머지 제생이 청에 엎드려 각위하고 슬프게 울었다. 이것이 누가 시켜 그렇겠는가. 지나침도 없고 서로 기약도 안했는데 자연히 그렇게 되었다.

내가 여기에 특별히 감격한 바라 노능(魯陵)의 변을 영월에서 당하여 노산군을 죽여 노방에 버리고 사람들은 거두지를 못하였다. 그 군의 아전인 엄홍도가 홀로 가서 곡하고 관에 거둬 염습하고 장사 지내니 지금의 이른바 군왕총 이라하고 열성(列聖)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 이 때문이다. 고로 음애(陰崖) 이선생 기록에 이르기를 자고로 충렬지사는 반드시 권문세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임금을 팔고 그 이를 꾀함에 그 임금이 참화가 있은 연후에 마음에 유쾌한 자가 있으니 엄홍도는 보건데 어떠한가. 촌부나 아동이라도 양울한 마음과 불평에 이르러서는 그 말을 입에 내는 것을 알지 못하나 과연 인성을 속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일찍이 연석에 엄홍도를 녹권에 기록하고 포상하라고 청하였다. 지금 선생의 신주를 엄의룡에게 얻어 엄씨의 집에 봉안(임시봉안) 하였다. 이것은 다 영월 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것 역시 기이한 것을 알지 못하겠노라.

노능군신(魯陵君臣)에 다행인 것이다. 또한 제 엄씨들도 다 다행한 일이다. 이로 인하여 볼 때 박참판 종현이 미산에 있는 자이니 병자년에 선생과 부인 김씨 신주를 써서 종들과 안고 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그가 죽으니 그 신주가 참찬액에 있다가 참찬이 또한 자손이 없어 다 같이 땅에 묻었다고 하니 그것 증험함이라. 부인 묘소는 지금 노은동에 있어 향화가 끊어졌다. 오호라 그 또한 비통하도다. 서울 외 제생들이 또한 장차 사당을 구택 곁에 짓고 그 때의 동지(박팽년, 하위지, 이개유, 성원, 유옹부) 오선생을 아울러 향사를 했다. 세조대왕이 일찍

이 성모등은 만세의 충신의 가르침이 있다 라고 하였다. 하선생(하위지)는 선산(善山)에 사당을 건립하고 박선생(박팽년)의 비석은 회덕에 세웠는데 조정에서도 금하지 않았다. 민감사가 일찍이 비석을 구역 앞에 세우고 글자를 새기지 않고 있다가 사당과 비석 두 가지를 공역하니 본주목사와 면천군수가 장차 처음과 끝을 섭렵하여 지시하였다.

세차 칠월 일 은진 송시열 기록.



비명 성선생신주천봉기 <현판>

지역 홍북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홍북면 매죽헌길 403-12(홍북면 노은리 104번지)





## 孝子掌令卜僭之里

命 端 勅  
 旌 四昭宗 之卜掌孝萬 命  
 月陽元 門僭令子拜  
 作年  
 曰噩

### 효자장령복한지리



칙명(勅命 : 임금의 명령)

효자 장령 복한의 문이라 만방에 알리노라

단종 원년(端宗元年 1453년)

소양(昭陽은 구 갑자로써 천간 계(癸)에 해당됨)

작악(作噩 구 갑자로 십이지에서 유(酉)에 해당됨)

위 천간과 아래 지지를 합하여 계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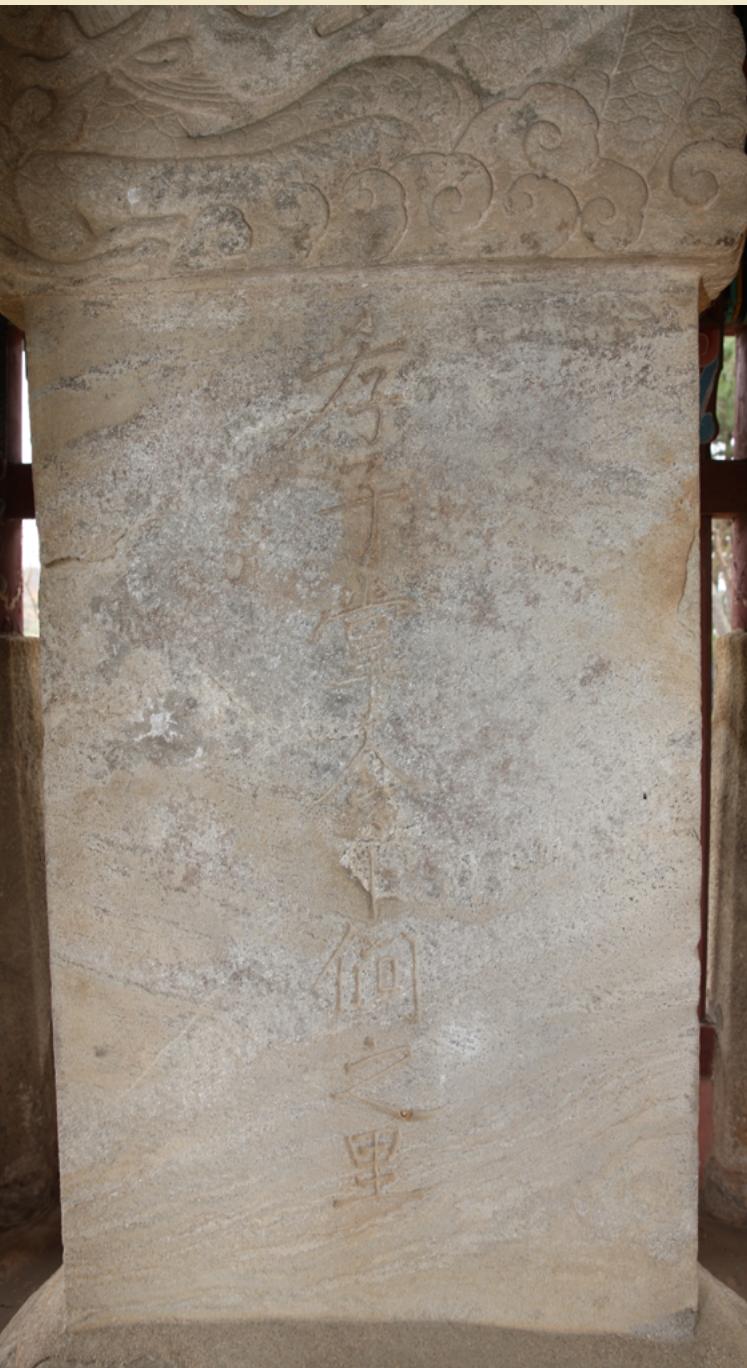
사월 일

명정(命旌 : 정문 충신효자 열려 등을 표창하고자 그 문 앞에 세워둔 붉은 문. 홍문이라고도 함)을 세울 것을 왕명으로 명함.



비명 **효자장령복한지리** <효행비>

지역 금마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 211-4



久慈卜先生於閑堂小記

人物有久而成異者歟也事有始而善終者誠也蓋  
若誠而終其盡者人皆當稱之事也今於洪城郡靈

水洞有閑堂矣乎大路之邊廢祖之間者昔久慈先  
生之靈之廟也 蝶宮遷位辭諱歸鄉憂國為心事

既為舊而復以忠孝終其餘年高乎天朝表彰之數  
錄之矣士林崇拜之精英之壽不光者忠也不泯者

忠也忠水清流於地下君先生之心玉靈依傍龍山此  
處也方當有先忠之靈宇空空雲空空空空空空空

後亦有忠之靈精神流乎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

深安也已矣而為於空空可流於後則固之矣其耳

馬而當也固也者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

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



## 韓性東孝行紀念碑

孝者百行之源而人人所當行底事然其孝之行之卓異古亦罕見而況今倫理斁絕之時哉洪城郡金馬面竹林里韓性東君素以華胄生長法門現爲培養學堂教員而其母夫人智氏望八高齡宿疴沈淹憂心焦煎市肉夜歸虎爲之導又思雉肉雉自隨田夢現神人鱗亦得井及患劇割股以進湯其孝之至行孰不感歎也哉洪之人士將立石表彰而遠來徵

言故余亦同感興歎敢將一言以紀念永樹風聲於百代云爾

己卯五月 日

前成均司成孔聖學撰並書

洪城郡金馬面有志一同立

## 한성동효행기념비



효라는 것은 백행(百行)의 근본이고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 할 일이라. 그러나 효를 택이하게 행한 자는 옛날에도 드물다. 하물며 오늘날 윤리가 막하고 떨어진 시대에 임이랴.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한성동군은 본디 명문의 자손으로 성장하고 법도의 가문으로 배양학당(培養學堂)의 교원으로 그 모친지씨가 팔십에 가까운 고령으로 오랜 지병으로 우환이 초심하여 밤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가 인도해주고 모친께서 꿩고기를 먹고자함으로 스스로 밭을 따라가니 꿈에 신인(神人)에 나타난 바와 같이하였고 숭어를 우물에서 얻어 드렸으며 다리 살을 베어드리니 그 효가 지극하여 효행을 누군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성의 인사가 비석을 세워 표창하고 면일을 증언한 고로 내가 또한 감흥으로 감탄하여 감히 장차 한마디 말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소리가 백대에 영원히 기념하노라.

기묘년 오월 일  
전성군관사성 공성학 짓고 아울러 씀  
홍성군 금마면 유지 일동 세움.



비명 **한성동효행기념비** <효행비>

지역 금마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금마면 총서로 2040번길 77(죽립리 82-52 철마산공원 내)







# 贈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教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行奉正大夫吏曹正郎兼 經筵侍講官春秋館修撰官 昌原俞公諱 炮追慕碑

朝鮮國祖 靖陵之世群賢彙征大猷時升值奸  
兇蔑貞斬伐蕩殘世道交喪是所云己卯土禍也桃  
園俞公炮時爲正言與持平尹漸抗章救靜庵趙文  
正公遂罹文網擯斥累年遯于加平之祖宗若將終  
身當禁少弛公敍拜銓郎而時事危疑不安於朝乞

養老母得邑清風乙酉六月三日卒于官距其生  
成宗壬寅爲四十四歲祔葬于坡州坡平面新谷先  
兆之甲坐用遺命也 宣廟戊辰 贈公弘文館典  
翰 英廟丙寅追贊己卯名臣相臣宋寅明奏曰故  
正郎俞炮卽 中廟朝名臣趙光祖朴祥金淨金湜  
尹漸之黨忠君愛國之心已著于東史則尙闕褒揚  
實爲 聖世欠典請加 贈命 贈副提學兼唧如  
例斯爲公始終大畧也公字明中桃園其號也昌原  
氏以高麗寶文閣直提學諱涉爲遠祖子諱問歷政  
堂文學簽書密直司事再傳至諱弘以司宰令值王

氏屋社棄官入麟蹄月落山中畢生隱淪子諱貴生  
仕 本朝爲工曹典書是爲公高祖也曾祖諱尙智

歷翰林集賢殿直提學承政院左副代言與鄭麟趾  
魚變甲同修國史祖諱造歷翰林司諫院司諫參佐  
理原從勳考諱世健 贈左承旨用公推恩也妣順  
天金氏司藝仲孫女公配洪州李氏司諫慶從其考  
也祔公墓異壙公丁卯中進士甲戌與朴公世熹同  
登文科翰林三司吏曹正郎忠清都事淮陽府使楊  
州牧使清風郡守卽內外踐歷也公與靜庵諸賢同  
其進退其德義風節固多可述而世代寢邈文獻無

徵只有公出宰時儕僚贊章黃冢宰孝獻詩序曰某  
爲清風守朋儕咸歎惜曰材宜玉堂而棄僻邑於計  
則得矣所得非一端治川朴文康公詩曰君侯自是  
第一流端操不與凡人同人稱玉堂天上郎謂宜黼  
黻朝王官少冢宰尹公安仁詩曰徽院讌議贈推直  
銓部論材早得平訥齋朴文簡公誄辭曰明星愈爛  
旭日最光惟茲二物俱出東方誰非東人君厚受哉  
落翰成字銀鉤鐵索吐詞爲章蘭根柳骨其聲望之  
取重當世者類此古人云不見其人視其友是可以  
知公之爲人也公有三子必崇縣監必成參奉必忠

副奉事有三孫沆參奉瀝監王澄僉樞曾孫三人應  
恪將仕郎應宣直長應恂生員子孫繼聲克趾先美  
往往被薦剡登顯仕可驗公身教所推也公後孫炳  
奎後爲進士謁余以發潛闡幽余老屏筆硯久矣竊  
感公遇遭盛際湮滅不稱力疾而爲銘銘曰  
矯矯俞公已卯名臣步趨靜庵同其屈伸苟充志業  
靡遠不臻曠世興感再遇 涣恩榮光上燭天日融

晶于德爾劬于家爾羸遙遙坡山鬱鬱佳城滄桑陵  
谷不朽期銘  
崇禎紀元後四己酉五月十七日通政大夫成均館

祭酒兼 經筵官唐城洪直弼撰  
嗚呼我 祖桃園公克盡忠孝之蹟畧載 墓碣而  
墓所在坡州新谷子孫居洪州金谷道塗脩復倣  
古浸水立山之規又豎于此壽傳而永慕焉十二世  
孫 炳昇謹誌 我 祖實蹟忠孝盡心未充志業  
子孫有憾微誠追慕頌于二碑既立 先壘又豎後  
居屢經滄桑雖幻陵谷隨其不磨觀感裕德十三世  
孫 惠老謹跋 十一世孫相尹十二世孫炳賢炳  
年炳星十三世孫龍老喆老敬老甲老 立

光武八年甲辰十二月 日  
十二世孫曆繕工監假監役行通政大夫 炳憲 謹書  
十一月 日

# 증 통정대부 홍문관 부제학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행봉정대부 이조정랑 겸 경연시강관 춘추관 수찬관 창원유공휘 형추모비



조선국조 정능(靖陵)지세에 군현 휘정(彙征) 대유(大猷)시에 간홍을 멀하고 잔당을 소탕하여  
베니 세도(世道)가 교체되어 이것이 이를 바 기묘사화(1519년) 도원(桃園) 유공형이 이때에 정언  
(正言)으로 지평 윤개(尹漸)와 더불어 정암 조문정공을 구명하기 위하여 항장(구금을 반대하는 글)  
을 하니 드디어 공이 문망(文網)에 걸려 내치고 수년동안 가평에 은둔하니 조정에 서종당엔  
당금(當禁)이 조금 풀려 공을 전랑(銓郎) 제수하니 그 때의 일이 위태하고 조정이 불안함을 의  
심하고 모친을 봉양한다고 하여 청풍골 원임으로 가기를 아뢰고 벼슬을 얻어 을유년 유월  
삼일 관아로 가다가 관아 거리에서 죽었다. 성종 임인년 사십사세이며 파주 파평면 신곡리  
선영 갑좌(甲坐) 유명유언으로 장사지내다 선조무진(宣祖戊辰 1568년)에 증 공 홍문관 전한으로  
추증하고 영조병인(英祖丙寅 1746년)에 추증하고 기묘년 명신인 상신(相臣) 송인명(宋寅明)이 아뢰  
기를 고 정랑(正郎) 유형(兪炯)은 중종조의 명신 조광조 박상 김정 김식 윤개의 무리등은 임금  
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동사(東史)에 나타났으니 그를 숭양하고 포상선  
양하는 것이 실로 성세(聖世)에 펴는 법입니다 하여 증명하여 증부제학 겸 관직을 추증함을  
이 같은 예로 하였다.

공의 시종이 대략이라 공의 자는 명중(明中)이요 도원(桃園)의 그 호이다. 창원씨는 고려 보  
문각 직제학 휘(諱) 섭(涉)이 면 조상이고 휘 경(閭)이 정당문학 첨서 밀직사사를 지내고 두 번  
전하여 휘 홍(弘)에 이르러 사재(司宰)로 영치 왕시에서 벼슬하고 옥사(屋社)와 관을 버리고 인  
제 월락산 속으로 들어가 죽을 때 까지 은거하였다. 아들 휘 귀생(貴生)은 본조에 벼슬하여  
공조전서가 되니 이분이 공의 고조부이다. 증조 휘 상지(尙智)는 한림 집현전 직제학 승정  
원 좌부대언을 역임하고 정인지(鄭麟趾)와 더불어 어변갑동(魚變甲同 : 승진하여 높은 직에 났다는 말)  
으로 추은(推恩)하였다. 모친은 순천김씨 사예(司藝) 둘째손녀이다. 공의 부인은 홍주이씨 사  
간(司諫) 경종(慶從) 이부친이라. 공의 묘소에 합장하다 공은 정묘년에 진사하고 갑술년에 박  
공 세희(世熹)와 같이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삼사 이조정랑 충청도사 회양부사 양주목사 청  
풍군수 곧 내직외직을 역임하다 정암(靜庵) 제 현인(賢人)들과 같이 물러가 그 덕의 풍절을 지

켰으며 많은 저술을 하고 세상의 문현이 멀고 침잠되어 증명함이 없던 것을 다만 공이 외적으로 있을 때에 동료의 경비 도움으로 황총재(黃冢宰) 효현시(孝獻詩) 글의 서문에 이르기를 모는 청풍군수가 되어 벗들이 다 애석하고 탄식하여 이르기를 재독이 옥당(홍문관의 별칭) 있는 것이 마땅한데 버리고 궁벽한 고을에 있으니 하나도 얻는 바가 아니라 하더라. 야천(治川) 박문강공(朴文康公) 시에 이르기를 군후 제 일류로 단정청조(淸操)하여 무릇 사람들과 더불지 않고 사람들이 한결같이 옥당천상랑(玉堂天上郎 : 홍문관의 천상 있는 랑관을 선풍의 면모를 말함)이라 일컬었다. 마땅히 조정의 왕실을 장식하고 총재(대총재로 이조판서의 별칭) 윤공 안인시(安仁詩)에 이르기를 미원(徽院)에서 논의하여 일찍이 육조에 추천하여 인재를 일찍이 얻고 놀재(訥齋) 박문간공 조문에 이르기를 명성이 더욱 밝고 떠오른 햇빛이 가장 밝음이라. 오직 이 두 천상의 물체가 함께 동방에 나오니 누가 동국인중에 그대가 받았다 하지 않으리오. 낙운성자시의 문자가 은 같고리에 쇠줄로 시사를 끄집어내니 문장이 난향과 같고 부드럽고도 골격의 소리는 당세에 인망(人望)자라 이것은 고인이 이르되 사람을 보지않고도 그 친구를 보면 안다 하였으니 공의 사람됨을 말함이라. 공이 세 아들이 있으니 필승(必崇)은 현감하고 필성(必成)은 참봉하고 필충(必忠)은 부봉사(副奉事)하다 손자 셋이 있으니 항(沆)은 첨봉 해(海)는 감정(澄)은 첨추이다. 증손이 셋이 있으니 옹각(應恪)은 장사랑 옹선(應宣)은 직장 옹순(應恂)은 생원이다. 자손이 계속 선조의 미덕으로 왕왕히 천거되어 빛나게 벼슬에 현달하니 공의 몸소 교훈한바를 미루려 알 수 있다. 공의 후손 병규(炳奎)가 후에 진사가 되어 나에게 뵙고 조상의 침잠된 유은(幽隱)한 일을 밝게 밝혀 주기를 말하여 내가 노쇠하고 봇을 놓은지 오래다 하니 부탁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감동하였다. 공이 융성한 시절에 인멸됨을 당하였으니 노환이라 칭하지 않고 명을 지어 이르기를

올바르고 올바르다 유공이여 기묘명신 정암공을 따라 그 굴신(屈伸)을 같이하고 진실로 충만한 지기(志氣)의 학업덕망이 먼 곳까지 이르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세상에 감홍을 일으키고 찬란한 영광을 만났으니 햇빛처럼 등촉을 올리고 덕업에 융합하여 빛나니 가문에 수고로움과 멀리까지 익이 이르고 파산(坡山)의 울울창창한 아름다운 성이요. 창상(滄桑)의 능곡에 썩지 않기를 기약하며 명하니 숭정기원후 사기 기유년 오월 십칠일 통정대부 성균관 좌주 겸 경연관 당성 홍직필 지음

오호라! 선조 도원공의 극진한 충효의 사적을 대략적으로 묘비에 기록하니 묘소는 파주  
신곡리에 있고 자손은 홍주 금곡에 세거하고 진흙길에 있는 구술을 구하여 갈고 닦아 옛  
것을 본받고 자연을 본받아 여기비석을 세워 오래도록 전하여 영모하나이다.

십이세손 병승(炳昇) 삼가 씀.

나은 선조는 실사적이 충효 진심이 지기와 학문과 덕업이 충분치 못하여 자손으로서 조  
금 한이 됨이 있으나 정성된 추모로 비석 둘을 이미 세우고 선영에 또 후에 세워 오랜세월  
이 지나고 창상의 만물이 비록 변했어도 마모되지 않고 조상의 유덕을 보노라. 십삼세손  
덕노는 삼가 발문을 짓다. 십일세손 상윤 십이세손 병현 병년 병성 십삼세손 용노 철노 경  
노 갑노가 세움.

광무 팔년 갑진 십이월 일  
십이세손 선공감 가감역을 지낸 행통정대부  
병현을 삼가쓰다. 십일월 일



비명 증 통정대부 홍문관 부제학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행봉정  
대부 이조정랑 겸 경연시강관 춘추관 수찬관 창원유공휘 형추모비(추모비)

지역 홍동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산 47





## 孝子大成學院直員宋夏燮之門

孝子宋公夏燮系出礪山現住忠清南道洪城郡洪東面求精里而粵自羅女簪纓相繼礪山府院君諡忠靖諱居信卽其十八代祖其後仕宦延綿而曾祖諱詳奎祖諱慶浩考諱柱日配溫陽鄭氏長子基元次基銅次基景次基充次基讚女長李命洙全州人女李會元全州人公賦性孝友根天之誠終始靡懈親齋彌月藥餌百方終無顯效研指灌血延壽二載

望而或以一兩日苟延施延一朔者蓋鮮矣至於宋公親病灌血以延二載之壽苟非格天至誠豈如是卓異乎聞宋公之風者上自宰輔元老以至鄉外士友咸推稱頌表彰之褒陽之如吾老拙不敢贅設而爲其模範一世以勵來後謹搆不朽之文贊揚其萬一云爾

資憲大夫原任奎章閣提學延安金晦秀撰

庚戌二月日立

## 효자대성학원직원송하섭지문



효자송공 하섭은 여산 송씨로 현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에 거주하며 신라와 고려에 대대로 벼슬을 이어와서 여산 부원군 시호로는 충정 휘(譜) 거신(居信)이 18대 조고(祖考) 이요 후손이 벼슬이 이어져 증조 휘 상규(詳奎) 조부 휘 경호(慶浩) 선고는 휘 주일(柱日) 모친은 온양정씨 장자는 기원(基元) 차자는 기동, 기경, 기충, 기찬, 장녀 이명수, 전주이씨 차녀 이회원, 전주이씨 공은 천성이 효우하고 하늘의 정성된 근본을 가지고 있어 종시(終始) 부모님 병 구환에 조금도 게으름이 없이 하고 오래도록 약을 시탕하고 배방으로 하였으나 종당엔 효힘이 없어 손가락을 베어 그 피를 드려 이년의 수명을 연장케 하였다. 혹 하루나 이를 또는 한달이라도 연명하기는 대개 적은 일이라 송공이 부모님 병 구환에 피를 드리고 이년을 연명되었다는 것은 하늘이 지성에 감동하지 않고 어찌 이런 기이함이 있으리요. 송공의 일을 풍문으로 들은 자 고을 성주로부터 원로 출향 외부인사와 벗까지 다 표창하고 포상할 것을 말하여 나와 같은 노인이 감히 쾌설(贊設)치 않고 그 모범을 일세에 장려하고 후손들에게 삼가 어지러지지 않게 만에 하나라도 찬양하는 글을 기록하는 바이다.

사현대부 월임 규장각제학 연안 김회수 지음

경술이월 일 입.



비명 **효자대성학원직원송하섭지문** 〈효행비〉

지역 홍동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355-7(신촌마을 사거리 옆)





# 領議政府事安平府院君贈謚文簡李公神道碑銘

朝鮮推忠翊戴同德開國定 社佐命功臣大臣  
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安平府院君 贈謚  
文簡李公神道碑銘 幷序  
通政大夫前楊根郡守原任 奎章閣 恩津宋  
奎憲 撰  
通政大夫前祕書院丞 安東金甯漢 書  
崇祿大夫前判噉寧院事 海平尹用求 篆

惟洪州西谷鄉智明里原負寅而崇四尺者朝鮮開國功臣領議政府事安平府院君文簡李公衣焉之藏也始公捐館 上震悼輟朝特予祭葬又命易名不祧優渥之典在古希邁光賁泉壤而惟旌紀闕無以昭垂來葉諸孫戚焉亟謀伐石問銘于余按公諱舒字孟陽憲翁其號也以延慶宮提學 贈領議政府事洪陽府院君起宗爲父判典客寺事永芬爲王父大傳少尹得滋爲曾王父李籍洪州鼻祖贊成事維城而文剛公倩笑文翼公應松文貞公延壽皆其

世妣綾城具氏判書沈女也公生高麗忠肅王後元二年癸酉恭愍朝科見國事日非以軍簿郎屏田里凡有除拜或辭以親老或辭以居憂我 藝祖執政朝舉以遺逸爲內書舍人又辭不就及壬申元年始以刑曹典書進奉質國號于明定以朝鮮復命拜

翊戴功臣經筵講讀官三年甲戌 上因趙庸等撰進四書切要問荒寧之義公進曰欲追二帝三王之治則開經筵進儒臣講明聖賢之道也若不然則易流於玩物而喪志矣 上然之俄以大司憲疏請勿輕改法律數宥罪人 定宗戊寅拜參贊門下府事

兼修文殿學士時平壤庶尹成石璘進欹器圖 上御經筵揭示群臣公推演虛欹滿覆之理備陳持盈之難 太宗元年辛巳拜右政丞奉安平府院君中國有難請援謝表語涉不恭帝怒問罪上下惄懼公赴明奏曰小國昧事大之禮爾豈敢有異意辭氣懇惻願款且進詩諷帝甚嘉歎賜宴賜服而寵之又命賦詩公獻十篇御製酬幅而遣之 上備國儀迎勞之又賜馬銀第宅而寵異之是歲又代趙浚如明而還進四書五經等書壬午以本官致仕奉命候 上王于行宮先是鄭道傳之變 上王北狩咸興問安

使往輒不返 上以公爲 上王所素敬信也屢命往候 上王輒命上殿握手公獻袖詩 上王欣然朗讀曰予思卿卿思予果至此耶仍感悟 回鑾秋八月 上命無告之民唧冤抑者進擊登聞鼓公上疏曰京外無告之民以其冤抑告所在官司所在官司不受治者則許令進擊登聞鼓而使憲司推明申聞以伸冤抑而其中挾私懷怨敢行誣告者用反坐律以杜讒佞 允之改登聞鼓爲申聞鼓甲申三月諫院疏陳輔養元子之法以爲師得其人則教養得其正若安平府院君李舒議政府事權近皆可爲師

範也六月復拜右政丞尋以領議政府使致仕七年  
丁亥參功臣宴于廣延樓凡三十八人而各賜盟簇  
二月 命置閔無咎等於外用公之言也己丑以領  
議政府事自陳衰憊懃求辭免纔許旋除蓋欲禪位  
世子也先是丙戌 上欲傳位 世子以公及諸  
大臣請止之至是又欲決行公率百官廷爭四日乃  
蒙 允仍辭職就第以明年重九日 春秋七十  
有八享湖壠新安等祠二配陳氏葬公兆右卯坐朴  
氏與公同坐而左二男慎祉直長慎猷政堂問禮以  
孝旌閭孫男繼祖大護軍 贈戶判承祖牧使曾玄

以下蕃不盡書公之餘事文章如新亭追感文英殿  
對策諸篇迄今膾炙人口喪父母廬墓六年及生得  
旌史氏曰李某正直方嚴清儉自守平居危坐終日  
嘗因啓事見 御座設黃綾褥進曰臣觀褥色非  
殿下所宜用 上愧謝之晚雖貴顯而謙恭下士未  
嘗以勢位驕人不惑異端臨終誠家人喪制一遵朱  
子家禮母作佛事余以爲公識 真主於艸昧攀龍  
附鳳卒之擎乘而安天下公可謂應時之才命世之  
傑也夫銘曰

粵昔天命歸我真人如夔如禹伊河伊權而公偉績

疇敢與鄰卿命萬里楚水吳烟爰定國號克光于前  
戊己多故北狩經年絡繹問使有往無還股肱惟公  
翻然 回鑾薄海蹈舞社稷再安中朝怒我以碍謝  
箋噴言噂沓滿朝傷魂 王曰疇咨克濟厥艱公拜  
稽首毅然北轍感公忠節獎以詩篇皇華載返喜溢

天顏華屋駿馬寵錫便蕃欲釋負荷豈曰倦勤寔  
因災異止以公言繪像凌煙賜寔廣延望雋一代位  
極人臣公又有孝生旌其門公又有文百世是芬人  
有一稱亦足自傳公於衆嫋罔不兼全欝彼佳城有  
屹貞珉我詩孔揚庸告無垠

丁丑夏六月 日立

開 國功臣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  
領議政安平府院君諡文簡公李舒之墓

## 영의정부사안평부원군증시문간이공신도비명



조선추충 익대동덕개국정사 좌명공신 대광 보국승록대부 영의정부사 안평부원군 증시 문  
간이공 신도비명 병서.

통정대부 전 양근 군수 원임 규장각 은진 송규현 찬.

통정대부 전 비서원승 안동 김영한 서.

승록대부 전 판돈령부사 해평 윤용구 전.

오직 홍주 유곡 시골인 지명리 기슭에 동북을 등지고 간좌(艮坐)로 넉자 높이의 봉분이 있으니 조선 개공신 영의정부사 안평부원군 문간공 이공의 의관과 신발을 모셔둔 분묘이다. 공이 별세하시니 임금께서 놀라시고 슬퍼하사 조회(朝會)를 철폐하고 특별히 제문과 예장(禮葬)을 내리며 부조묘(불천지묘로 영원히 모시는 사당)를 명하시니 이렇게 융성한 대우의 전례는 일찍이 예전에도 드문 일로써 영광이 황천에까지 미쳤으되 나타난 기록이 빠져있음으로 후손들에게 밝힐 수가 없으니 여러 후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여 이제 석문을 세우기로 결의하고 나에게 비문을 지어주길 청하므로 상고(詳考)하건데 공의 휘(諱)는 서(舒)요 자는 맹양(孟陽)이며 당옹(蠱翁)은 그분의 호이다.

연경궁제학(延慶宮提學)으로서 의정부사 홍양부원군을 증직 받으신 기종(起宗)은 아버지가 되시고 판전객사사(判典客寺事)를 지냈고 영분(永芬)은 조부가 되시고 태부소윤(太傅少尹)을 지냈으며 득자(得滋)는 증조부가 되시고 이씨의 본적을 홍주로 쓰는 시조는 찬성사(贊成事)를 지낸 유성(維城)이요. 문강공천소(文剛公倩笑)와 문익공옹송(文翼公應松)과 문정공연수(文貞公延壽)는 모두 공의 윗대의 조상이시다. 모친은 능성구씨 판서심의 따님으로서 고려 충숙왕 후원 이년 계유에(1333년) 공을 낳으셨다. 공민왕 때에 문과 급제하였으나 나라의 일이 날마다 글러감을 보고 군부좌랑(軍簿佐郎)으로 있다가 시골로 피해 내려가서 여러번 불렀고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혹은 노부모가 계시다고 사양하고 혹은 상중이라 사양하시니 이씨(李氏 태조)가 집권 함으로 예조집정(憲祖執政 : 승조와 문덕)이 유일(遺逸)을 뽑음에 들어 내서사일(종사품 문하사인)을 시켰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임신년(1392년)에 비로서 형조전서(刑曹典書)로 나아가 명나라에 들어가 조선으로 국호를 승인받아옴으로써 익대공신 경연 강독관으로 승진되었다. 태조갑술(1394년)에 상이 조용(趙庸) 등을 시켜서 사서절요(四書切要)를 지어 올리게 하고 황(荒)과 넝(寧)의 뜻을 무르니 공이 나와서 대답하기를 이제와 삼왕의 정치를 따르고자 하려면 경연을 열어

서 선비 신하들을 모아놓고 성현의 도를 강구하고 밝히소서. 만일 그러하지 않으면 구경거리에 정신이 쏠려 뜻을 잊기 쉽습니다하니 상이 들으시고 옳은 말이오. 하시었다. 얼마 지나서 대사헌으로 하여금 상소케 하여 수유죄의 법률을 가볍게 고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무인년(戊寅年 1398)에 참찬문하부사 겸 수문전학사로 임명하였다. 정종기묘(1399년)에 평양부윤 성석린(成石璘)이 의기도(欹器圖)를 바치니 상께서 이 그림을 경연에 걸어놓고 여러 신하들에게 보이며 그림의 그릇에 대한 설명을 공에게 부탁하니 공이 연단에 나와서 연설하기를 이 그릇은 비우면 쓰러지고 가득하면 엎어지고 물을 알맞게 담으면 똑바로 서게 되는 것이니 사물의 이치가 허(虛)와 지(持)와 영(盈)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정치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태종원년 신사년(1401)에 우정승에 안평부원군을 봉하였다.

중국 명나라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 구원을 청하여 왔는데 구원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답장의 말이 불손하였다 하여 명나라 황제가 대노하여 문책한다 함으로 조정이 모두 겁을 먹고 있는데 공을 사신으로 뽑아서 명나라에 보내어 아뢰었다.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예를 모름으로 그러한 것이지 어찌 감히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용서를 빌고 심히 기뻐하사 칭찬하시고 면복(冕服)을 하사하고 우대하며 또 시를 지으라 명하심으로 공이 시 십 수를 지어 올렸더니 황제가 어제시(御製詩) 두 폭을 하사하시며 돌려보냈다. 본국에서는 상이 나라의 의장대를 갖추어 영접하고 돈과 말, 큰 저택을 주어 특별한 대우를 하였다. 이 해에 조준(趙浚)을 대신하여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서와 오경등의 서적을 가지고와 바치었다.

임오년(1402)에 벼슬을 내놓고 왕의 명을 받아 상왕의 행궁으로 문안드리러 갔다. 이러한 일들은 전에 있었던 정도전(鄭道傳)의 변으로 상왕이 함홍으로 내려가 있으면서 문안 사신이 살아서 돌아오지를 못하는지라 이러한 때에 상이 공으로 하여금 다녀오도록 함은 본디 공이 상왕하고 매우 친밀한 사이였으므로 명을 받고 함홍 행중에 당도하니 상왕이 들어오라고 청하며 손을 잡으며 반가워하였다. 이에 공이 시 한수를 소매에서 꺼내어 올리니 상왕이 흔연히 받아 읽어보시고 나는 경을 그리도 생각하였거니와 경도 과연 나를 이토록 생각했었던가. 이에 감동하여 깨닫고 서울로 돌아왔다. 팔월에 상께서 백성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호소할 데가 없는지라 나와서 등문고(登聞鼓)를 울리라고령을 냈다. 공이 상소하여 이르기를 서울 밖에 사는 백성으로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호소할 데가 없는

자는 소속관사에 고소하고 소속관사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에는 나와서 등문고를 올리도록 허락하시고 그 일을 현사로 하여금 억울함을 풀도록하여 주고 이내 상부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중에 협잡(挾雜)을 해서 남에게 무고를 감행한 자는 도리어 죄를 주어 참소(讒訴)와 아첨을 막으소서. 상이 읽어보시고 허락하시어 등문고를 신문고(申聞鼓)로 고치었다. 갑신년(1404) 삼월에 사간원에서 글을 올려 말하되 원자보양법(元子保養法)은 가르치는 선생으로 쓸만한 사람을 얻으면 그 교양이 바로된다 하였으니 다만 안평부원군이서 찬성의정부사 권근 같은 분이라면 사범이 될만하다고 하였다.

갑신년 유월에 다시 우정승을 삼고 얼마있다가 영의정부사로서 벼슬을 내어놓고 태종 칠년 정해(1407)에 광연루에서 베푸는 공신 잔치에 참석하니 모두 삼십 팔 인이었으며 왕께서 각각 맹족(盟族)을 나누어주었다. 진난이월에 민무구(閔無咎) 등은 외지로 귀양을 보낸 것은 공의 말에 의한 것이다. 기축년(1409)에 영의정부사로 노쇠함을 빙자하여 벼슬을 내어놓기를 간구하였더니 겨우 허락이 났다가 다시 제수되니 이는 대체로 세자를 가르치고 돋고자 함이었다. 몇해 전 병술년에 상께서 전위를 하려고 할 때에 공이 여러 대신들과 함께 말해서 그만두었더니 이제 와서 또다시 결행하고자 하여 공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대궐 뜰 아래에서 사 일동안을 다투어서 겨우 허락이 떨어짐으로 이내 벼슬을 내어놓고 집으로 나아가 서 있다가 그 다음해 구월 구일에 혼을 부름으로 서거하시니 춘추는 칠십팔 세이시다. 호암과 신안 두서원에서 배향되었다. 배위(配位)는 두 분인데 진씨는 공의 산소 오른쪽 조금 아래에 묘좌로 모시고 박씨는 공의 왼쪽에 합쯤하였다. 이 남을 두었으니 신지(慎祉)는 직장(直長)을 지내고 신유(慎猷)는 정당문예(政堂問禮)를 지냈으며 효행으로 정여문을 받았다. 손자 계조(繼祖)는 대호군을 지내고 호조판서로 증직되었으며 승조(承祖)는 공주목사를 지내었다. 증손 현손 이하는 많아서 다 기록하지 못하노라. 공의 나머지 일은 글을 지은 것으로서 신정추감시(新亭追感詩)나 함흥회란시(咸興回蠻詩) 등은 지금까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부모님들의 상에는 시묘 살이 전후 육년을 살아서 정문까지 받았으니 또한 기적이라 하겠다.

사씨(史氏)가 말하기를 이서는 정직하고 몹시 엄하여 맑고 검소하게 자신을 닦아서 평소에도 무릎을 끓고 앉으며 일찍이 있어 왕이 계신 내궐에 들어갔다가 임금의 자리에 황능요가 깔려있는 것을 보고 아뢰기를 “요의 색깔이 전하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였더니 왕이 무안해서 사과하였다.

만년에 비록 귀하게 되어 이름이 나타내었지만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도 겸양하고 공손하여 일찍이 권세와 지위로서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았다. 이단(異端)에 물들지를 않았으며 임종할 때에 집안사람들에게 당부하기를 상례는 일체 주자가례를 따르고 불사는 하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생각하기를 공은 어두운 세상에서 임금될 사람을 분명히 달아서 용을 받들고 봉에 붙어서 높이 날아 천하를 평정하였으니 공은 참으로 시대에 적응한 재목이오. 세상에 이름난 인걸이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비문에 말하되 예전에 하늘이 명하심이 우리 임금님에게로 돌아오니 공의 크신 업적을 누가 감히 따르리오. 명을 받고 만 리 길을 떠나셨으니 초수오연(楚水吳烟)에 고생이 많으면서 이에 국호를 정하여 돌아왔으니 더욱 앞날에 빛이 나도다. 무인년과 기묘년에 사고가 많았으니 북방으로 순수(巡守)한지 일 년이 지나도록 사신들은 줄을 이었으나 수족과 같은 관계였으므로 상왕께서 번연히 수례를 돌리니 바다가 좁다라는 무용의 경축행사가 열렸고 사직이 다시 안정되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보낸 서신 답장의 말이 무례하다고 책함으로 온 조정이 황겁하였다. 왕이 형편의 해결책을 물으니 공은 자원하여 의연히 북경에 들어가니 공의 충의에 감동되어 시편을 선사 받고 중국의 문물을 싣고 올라오니 왕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여 커다란 집과 좋은 말을 상급(賞給)으로 내리었다. 상께서 지고있는 짐을 벗겠다는 것은 선위(禪位)를 하겠다는 뜻이니 이는 변괴 때문이다. 그러나 공은 적극 만류하였다. 공의 말에 따라서 공신의 화상을 능연각(凌烟閣)에 그리고 광연루에서 베푸는 잔치의 영예는 온 세상에 및나고 신하로서의 벼슬은 극귀(極貴)에 올랐도다. 공은 또 효행으로 살아서 정여문을 받았도다. 문장도 또한 백세에 향기를 남기니 사람은 한 가지 재주만 있어도 족히 이름을 남기고 전할 수 있거든 공은 광범하게 겸하지 않은 것이 없도다. 울창한 저 검은 산이여 정민(貞珉)한 신도비가 높이 솟아있네. 내 시로서 부끄럼 없이 이에 고하니 천만년 내려가심을 비노라.

정축 하 유월 일 입  
개국 공신 대광 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안평부원군시문간공 이서지묘



비명 영의정부사안평부원군증시문간이공신도비명 〈신도비〉

지역 장곡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장곡면 지정리 525-2





## 贈吏曹判書行文昭殿參奉諡毅憲公 驪州李公光輪之墓

公字仲任始祖仁德高麗校尉其後有諱行大提學  
諡文節五傳而諱遇僉樞配潭陽田氏監察秀女卽  
公考妣也公生於嘉靖丙午己卯生員以孝薦除  
參奉不仕壬辰倡義討倭八月十八日殉于錦山  
贈執義配享從容堂正宗朝加贈賜諡配晉州  
姜氏郡守晟女子大濬縣監大淳縣監大淑正郎大

濬予以省郡守以養出系以存舍人大淳予以鞭  
以策大淑予以馨正郎曾玄以下不盡錄



# 증이조판서행문소전참봉시호의현공여주이공 광륜지요



공의 자는 중임(仲任)이요 시조는 인덕(仁德)으로 고려시 교위(校尉)이다. 그 후손에 휘(諱) 행  
대제학 시호 문절공이었고 오대(五代)를 내려오다 휘(諱) 우(遇) 첨추(僉樞)부인 담양전씨 감찰  
(監察)의 딸이 바로 공의 모친이라. 공은 가정병오(1546)에 태어나고 기묘년(1579)에 생원하고  
효로써 천거되어 참봉을 제수하니 벼슬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임진년(1592) 의병을 인도  
하여 왜적을 토벌하다가 8월 18일에 금산전투에서 순국하였다.

증집의(執義)를 추증하고 종용당에 배향하였다. 정종조때에 시호를 더하여 내리었다. 부  
인은 진주강씨 군수 성(晟)의 딸이며 아들 대준(大瀟)과 치자 대순(大淳)은 현감이고 삼자 대숙  
(大淑)은 정랑(正郎)이고 대준의 아들 이성(以省)은 군수 양자로 나갔다. 이존(以存)은 사인(舍人)  
이며 대순의 아들은 이편(以鞭), 이책(以策) 대숙의 아들 이형(以馨)은 정랑이다. 증손이하는 다  
기록하지 않음.



비명 증이조판서행문소전참봉시호의현공여주이공광륜지묘 〈묘비〉

지역 장곡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산 77-2





## 孝子監察孝公圭錫之碑

### 監察李公孝行紀蹟碑

監察李公圭錫以善事父母聞士林齊起馳狀褒揚  
乃就其舊居之閭樹碑紀實使余書其事公年纔十  
餘父患內癰積三載夜不解帶禱山祝天靡極不至  
產業剝落躬自耕樵以養王母及偏慈得美味珍果  
必懷進之母又沈疾殫誠藥餌天寒永凍竟得雙鯉  
而供焉嘗糞一如黔婁之爲以至裂指灌血得延其

命前後居瘠柴毀骨立雖祈寒盛暑不脫經帶墓在一舍之強而朔望瞻展不以風雨停制終而猶不改也若夫祭先以誠訓子義方飭身勤儉亦公之餘行也嗚呼世降俗敗不知倫常之爲重浸漬頑愚頓忘生育之恩者滔滔焉然民彝之天終古不墜苟使讀公之碑景公誌孝而感發而興起焉則其有補於風教豈淺尠也哉公字錫玄號芝隱石灘存吾后贈寺正觀榮子慶州世家也

安東金魯東撰并書

戊戌九月 日建

# 효자감찰이공규석지비



## 감찰이공호행기적비

감찰이공규석은 부모님을 잘 섬겼으므로 유림이 듣고 여럿이 일어나 그 실상을 들어 포상하고 선양하여 옛 살던 마을에 비석을 세우고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니 공은 나이가 겨우 십여세에 부모님의 병환으로 적옹(積癱)이 오래되 삼년동안 밤에 옷과 띠를 벗지 않고 간호하며 산령에 기도하고 하늘에 기도하는 지극함이 이르지 않음이 없었다. 집 안 살림이 퇴락하여 스스로 밭을 갈고 나무하며 부모님 봉양을 극진히 하니 좋은 음식과 과일이 있으면 반드시 부모님께 드리고 모친께서 병환이 깊으니 정성으로 약을 시탕하고 잉어를 먹고 싶으면 추운 겨울 얼음이 얼었으나 마침내 잉어 두 마리를 얻어 드리었다. 대변까지도 다 살피었으며 금루(金婁)와 같이하였다. 손가락의 피를 내어서드려 그 명을 더 오래 살게 하였으며 집이 쇠락하였으나 비록 혹한이나 성하더라도 의대(衣帶)를 풀지 아니하고 주야봉양 하였다.

묘소에 여막을 짓고 삭망(朔望)에 첨양(瞻仰)하되 바람과 비가 뿌리지 않게 하며 종신토록 그치지 안하였다. 만약 제사일은 먼저 자식에게 가르치되 올바르게 하고 부지런하며 근검하게 하였다. 이것이 공의 행실이었다. 오호라! 세상풍속이 윤상(倫常)을 알지 못한 패속(敗俗)이라. 더욱 완악하고 부모님의 생육지은(生育之恩)을 망각하는 자가 많으나 민이(民彝)는 하늘이 다하여도 끝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으므로 진실로 공의 사실 사적을 읽고 이를 비석에 기록하니 공의 효도의 감동으로 일어나 풍속의 교화(教化)를 도우니 어찌 적겠는가? 공의 자는 석현(錫玄)이고 호는 지은(芝隱)이며 석탄 존오(存吾)의 후예라. 증사정관영자(贈寺正觀英子)는 경주세가이다.

안동 김노동 짓고 쓴다.

무술 구월 일 세움.



비명 **효자감찰이공규석지비** 〈효행비〉

지역 장곡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장곡면 지정리 96-2





# 贈通訓大夫司僕寺正連山徐公諱效積之墓 贈淑人茂朱金氏祔左

連山之徐載于輿地其受籍蓋遠今其近可紀者有生員寶是生校尉義敏傳縣監宗秀判官憐縣監千齡而有諱澍壬辰之難傾家貲以佐軍興 宣廟嘉之除司憲府監察以獎其功則曰當國家危難有財輸軍豈敢望償辭不拜未幾棄世遺命勿書其職時有以其事白于朝者特 贈通政大夫掌禮院判決

事以褒其志娶東萊鄭氏牧使純佑之女生二丈夫長縣監 贈左承旨後積季卽公公諱效積字季真幼失怙恃而能飭勵自立於文通大義侃侃善談論令人傾倒以家世零丁不樂爲舉子業又當光海昏亂無需世意仁朝改玉隨攀附之列錄原從功第一等而俄而公則逝矣以此身終不登於朝才終不爲時用以公錄功加 贈考判決事公兵曹參辦公於身後亦有承議郎戶曹佐郎之 贈參辦公繼室李夫人性嚴有法度而公與長公承事無不適其意李夫人出有四女子而友愛極摯閨門之內和氣藹然

夫人未嘗曰非己出而諸妹亦不知其爲不同母醇篤之行雖方諸古人無不及云己未庚申之際歲大侵土民之顛連者知公能急人望哺傾一邑公掃儲以賑之不足則又貸官糶數十斛繼之及秋償糶如

數邑侯尹寶壁義公之爲載還之曰邑民阻飢賴公  
得活吾爲地主愧公多矣又何心受償公生於 萬  
歷己卯卒於 天啓丙人宜人茂朱金氏同知彥瑜  
之女事尊章奉君子咸協于禮則公之妹將有行宜  
人侍李夫人治衿鑿執滌隨紙飭精辦事已宜人辭  
還私室夫人笑曰聞婦在家手指下日生一牛今爲

吾嫁女不還家累日損婦牛多矣宜人遜謝出門忽  
有一牛前路怪問之乃夫人賜也其婦順而姑惠如  
此公沒食素致毀者六載男必成五以專城養壽踰  
九耋榮享備物而猶勤蠶績夜以繼晝諸子孫諫曰  
年尊矣幸自休以安子孫心宜人不許曰我自樂此  
後公四十六歲卒公初窆于結城縣支石里先兆之  
次以地道之不甯再遷于縣之銀華峯下坤坐之原  
而宜人祔焉有五男長必亨副護軍以高年陞通政  
次必遠必厚次必成治文辭舉進士任職內外三十  
餘年所居有聲今爲榮川郡守次必行通德郎女長

適具翊次崔世榮今爲三嘉縣監次適洪完內外孫  
曾玄男女無慮數十百人繁衍之慶世所罕聞必亨  
孫麟世必遠子櫻必厚子桓必行子棟樸洪完子曰  
新中武科諸孫之脩行誼績文學將必有成名者又  
多有之盛矣哉九萬之王母卽公之第二妹而公之  
下世在九萬未生之前故未及拜公之顏受公之誨  
然其隱德微行得之於王母訓則稔矣榮川丈今將  
樹石於峯如而命九萬銘之九萬雖不文義不可辭  
茲敢敍其槩而系以銘銘曰

嗚呼徐公旣豐而嗇所嗇者年所豐者德嗚呼徐公

雖謗而伸所伸者天所謗者人德之旣全不贏何傷  
天之旣定食報甚長欲知其德觀于厥家婉婉宜人  
胤慶則多樂哉銀華魯祐有藏我銘孔好用贊幽光

女弟之孫議政府領議政宜寧南九萬 撰

龍仁李遇榮 書

始以 崇禎再甲午三月立碣至今二百餘年而字  
畫已多剗缺不可以垂之永久八代孫基殷十代孫  
承德承益等謀于宗人乃求新石改書以刻而豎之  
實 公沒之三百有三年戊辰春二月也

# 증통훈대부사복시정연산서공휘효적지요 증숙부인무주김씨부좌



연산의 서씨는 여지승람에 기록하여 그 관적(貫籍)을 받은 것은 대개 멀고 근세에 가히 기록한 것은 생월 보(寶) 교위(校尉) 의민(義敏)을 낳고 현감종수 판관 련(憐)에 전하여 현감천령이 휘(諱) 주(樹)라. 임진란에 가정의 자산을 기울여 군사를 일으키는데 쓰니 선조가 가상히 여겨 사헌부 감찰로 제수하여 그 공을 포상하려 하니 이르기를 국가가 위급함을 당하여 사재를 군사 일으키는데 쓰니 어찌 포상을 바라리요 하고 사양하고 받지 안하였다. 얼마 않되어 세상을 떠나시니 운명시에 그 직함을 쓰지 말라하였다. 그 때의 일을 조정에 알린 자가 있어 증통정대부 장예원 판결사가 그 뜻을 포상하였다. 동래정시 목사공 순우의 딸에 장가가 두 아들을 두었으니 장자는 현감 증좌승지 후적이요. 둘째는 공이니 공의 휘(諱) 효적(效積)이 계진(季真)이니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잃고 능히 부지런히 힘써 공부하여 문통대의를 통하여 자립하니 강직하고 담론이 사람으로 하여금 경도 되었다. 가세가 쇠락하여 즐거움이 없고 과거공부를 하나 때는 광해군의 혼란한 시기라 세상에 쓰여 나갈 뜻이 없고 인조(仁祖)에 개혁을 따라 오르니 원종공신에 녹권되어 제 일등이라. 얼마 지나지 않아 공이 운명하니 이로써 종신토록 조정에 오르지 못하고 그 재주를 쓰지 못하였다. 공을 추증하여 증고 판결사공 병조참찬이 되었다. 공의 자식에 승의랑(承議郎)과 호조좌랑이 있다. 증참판공의 계실 이부인(李夫人)이 성품이 엄하여 법도가 있어 공과 장자가 일을 이어가되 그 뜻을 쫓지 않음이 없더니 이부인이 넷의 자녀가 있으니 우애가 극진하고 규문에 화기애애하니 부인이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낳은 바가 아니되 제 자매가 어미가 같지 않음을 알지 못하나 순후하고 독실한 행실로 비록 제 고인(古人)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 이르기를 경신년때에 왜 구가 대침하여 백성이 쇠락하여 유리결식 하는 자가 공이 위급함을 알고 먹이고 한 고을의 저축한 곡식으로 공이 진휼(振恤)하니 부족한 것은 또 관에 대곡하여 십여석으로 식량을 잊게 하여 가을에 상환하였다. 고을 수령 윤 보벽이 공의 의로움을 기록하여 돌아와 이르기를 읍민이 식량이 막혀 공만 믿고 생을 얻었으니 내가 성주로써 공에게 부끄럼이 많아 어찌 마음에 마음에 상을 받기를 바라겠소 하다 공은 만력기묘에 낳아서 천계(天啓) 병인에 죽으니 의인(宜人)은 무주 김씨 동지 언유의 딸이다. 존장을 섬기고 군자를 받드는 것이다. 예법으로 하니 공의 누이동이 의인과 이부인을 모시니 의복과 조석 금침 의대를 다스려 정결

히 하고 의인이 사례하고 사기로 돌아오니 이부인이 웃으며 이르기를 들으리 며느리가 내 집에 있어 잔일을 마칠 때에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다 하니 지금 딸이 시집 간지가 여러 날 인데 집에 오지 안하였다. 송아지를 주리라 의인이 공손히 사례하고 문을 나오니 홀연히 소 한 마리가 문앞 길에 있거늘 괴이하여 물으니 이부인께서 주신 것이라 하더라. 며느리가 순종하면 시어머니의 혜택이 이와 같으니라 하더라. 공이 죽으니 음식을 소식(素食)을 한지 육년이더라. 남자는 다섯가지를 오로지 해야 한다. 천명을 보전하고 노년에 이르러 재물도 구비하라 하고 부지런히 양잠 질삼을 주야 근공(勤功)하더라.

자손이 간하여 말하길 연세가 높으시니 다행이요 가사를 쉬니 자손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니 의인이 허하지 않고 말하길 나는 이것으로 낙을 삼는다 하더라. 공이 죽은지 사십 육년 후에 죽으니 공의 처음 묘소가 결성현 지석리 선영 아래였으나 지도가 편치 않아서 결성현 은화봉 아래 곤좌에 묘소를 이장하고 의인을 합장하였다.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는 필행(必亨)이니 부호군에서 나이가 높아 통정대부로 승진하고 차자는 필원(必遠) 필후(必厚) 필성(必成) 문장으로 진사에 합격하여 내외 임직으로 삼십여 년이라. 지금 영천군수 차사 필행(必行)은 통덕랑하고 장녀는 구익(具翊)에게로 시집가고 차녀는 최세영(崔世榮)에게 시집가고 삼가현감이며 차녀는 홍완(洪完)에게 시집가고 내외손 증현손 무려 수십백이 번성하니 세상에 이런 경사는 드물다.

들으니 필행의 손자 인세, 필원의 아들 직, 필후의 아들 환, 필행의 아들 속박, 홍완의 아들 일신은 무과에 급제하였다. 제 자손들이 문학에 수학정진하여 장차 이름을 드날릴 자가 많더라. 구만(九萬)은 왕모(王母) 곧 공의 둘째 누이 동생이라. 공이 하세할 당시는 구만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라 배알치 못하였으나 얼굴은 공이 받은 바라 그 은덕과 미행이 왕모의 훈도에서 얻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영천(英川)이 고향에 비석을 세워 구만에게 명(銘)을 부탁하니 구만이 비록 문장은 없으나 가히 사양할 수 없어 이에 그 대략을 서술하니 명에 이르기를, 오호라! 서공은 이미 풍성할 때 아끼고 아끼니 풍성한 바가 덕이라. 오호라! 서공이 비록 궁지에 빠졌다가도 해명되니, 해명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요, 궁지에 빠뜨리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덕이 온전하여 쇠약하지 않으니 하늘이 이를 상하겠는가? 이미 보덕식

솔(報德食率)하니 그 덕을 알고자 하면 집안의 완완(婉婉)함을 보라. 의인이 큰 경사는 즐거움이 많도다.

은화봉 아래 합장하니 나의 숨겨진 명문(銘文)에 크게 유광을 찬미함이라.

여제의 손(孫) 의정부 영의정 의령 남구만 지음  
용인 이우영 씀

시이(始以) 숭정재갑 갑오삼월 지금 이 백여 년에 자획이 많이 어질리져 수리하여 영구히  
하지 못하여 팔대손 기은, 십대손 승덕, 승의 등이 종인(宗人)과 의논하여 이에 새로이 비석  
을 새겨 세우니 실로 공이 죽은지 삼백 삼년 무진년 봄 이월이다.



비명 증통훈대부사복시정연산서공휘효적지묘증숙부인무주김씨부좌 <효행비>

지역 은하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507-14







## 高麗平章事張公夏神道碑

通政大夫行祕書院丞兼掌禮院掌禮 文城柳

寅哲 撰

通訓大夫行度支部主事 後孫奎煥 謹書

後孫基鑄 謹篆

高麗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章事結城君張公

諱夏神道碑銘竝序

清溪張公當高麗未以直道事君聞及運值百六無

所施措則掛冠長往潔身自靖因見社屋則矢心罔  
僕不仕 我朝其精忠卓節人到于今稱之公諱夏  
清溪其號也系出安東以太師貞弼爲鼻祖太師與  
金太師宣平權太師幸統合三韓有大功勳自後冠  
冕蟬聯至門下侍中諱槐封結成府院君子孫仍改  
貫焉平章思諱甲內禁諱悅郡守諱用文公之曾祖  
及祖稱也公生于忠肅王內辰及長事恭愍王及辛  
肫謀不軌又與臺臣請戮之 洪武乙卯拜門下評  
理乙未除漢陽尹辛酉拜密直提學適旱禱雨有應  
有錫馬之褒甲子授平壤尹丙寅進階銀青光祿拜

門下侍郎平章事封結城君戊辰出蒞慶尙道都觀察  
黜陟使政務平恕改量田疇使民蒙仁惠之澤焉  
公當恭愍恭讓之際王荒怠于政社稷將傾危則與  
牧隱李文靖公暨諸公扶持挽回靡極不至至被遠

竊而不悔也天命靡常人心有歸于 真主則公歎  
曰天所授也非人力所可圖也遂棄官歸隱于結成  
之縛鐵洞別墅築小亭以居終老不出戶惟以書籍  
自娛也 聖祖龍興有召命公誓死不應 太祖知  
其志之難奪待以不臣之禮 賦龜頸一區以爲惠  
養之資焉公卒于己卯享年八十四葬于結城上西

面陵洞負壬之原配 晉州姜氏葬用魯衛禮生三  
男三女政丞仲魯典書季魯參議蕙魯男也典書金  
居道郡守朴皎府使宋愚壻也有仁府尹有義修撰  
有禮牧使有智贊成長房男也有溫參議有良應教  
有恭生員有儉縣監仲房男也玉綱季房男也執義  
烈臣都事進執義遠瑣晶檢校信孝孫賢獲麟侃義  
僉正英柱碩環公之曾孫也玄以下繁衍不盡錄只  
書其顯達者世文 贈左尹聚五參判潛正良烈臣  
之後也代仁靖難原從功臣遠之後也毅訥進士可  
順贈參議信之後也孝忠 贈執義守紀縣監英柱

之後也公之世今已五百餘年矣文獻散佚實有杞  
宋之歎而惟公立朝直言之風國亡不二之節猶可  
以據史乘譜牒而知其一二矣公之大致已在乎以  
則有何惜於細行之不盡傳也哉嗚呼士大夫當國  
家革命之際盡悴于國志事未伸則寧不顧遯荒忍  
痛含冤爵祿可辭也威武不屈也以終其身如公所  
就其非此也歟 後孫鼎漢德鎮謁余以桓楹之銘  
不獲終辭乃係以銘曰

麗氏之季主昏政亂嗟惟張公忠義侃侃立朝匡救

其言讜直與李文靖同被竄謫九死靡悔志氣不挫

毀冠裂冕見幾而作杜門自靖海山之曲餘公之生  
非生之樂 聖祖旌招固守罔僕俾遂其志以見  
聖德凡民之生莫不周服公居一區高麗日月君臣  
義明扶持網常孰不尊仰百世之光陵谷之阡鬱鬱  
松柏旛旛雲仍克謀伐石執鞭之思載辭揄揚我言  
非誣公名永長

都幹事后孫貞陵參奉龍煥箕春 監董基夏日  
煥基洛時淳箕庸箕八學淳箕福公之葬後五百三  
十四年甲戌十二月 日宗中謹立



# 고려평장사장공하신도비

벼슬하는 동안 청결염백(淸潔廉白)하고 사직을 편안히 하며 벼슬하게 이르러서는 조선에 있어서 정충탁절(精忠卓節)하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칭하였다. 공의 휘(諱)는 하(夏)요. 청계(淸溪)는 호이라. 본래 안동에서 나와 태사정필이 시조가 되니 태사는 김태사 선평(宣平) 권태사 행(幸)과 더불어 삼한의 대공훈이 있어 이후로 벼슬이 이져나와 문하시중 휘(諱) 사에 이르러 결성부 월군에 봉해졌다. 자손이 관향을 개명하였다.

평장사 휘(諱) 갑(甲) 내금 휘(諱) 열 군수 휘(諱) 용문(用文)공의 증조 및 조부이다. 공은 충숙왕 병진년에 태어나서 장성하여 공민왕을 섬겼으며 신돈(辛聃)이 부도한 짓을 함으로 대신과 더불어 이를 참할 것을 청하다 홍무을묘(洪武乙卯) 문하평리(門下評理)에 제수하고 을미 한양윤(漢陽尹)을 제수받고 신유년에 밀직제학을 제수하다 그 당시에 가뭄이 심하여 기우제를 올려 감응으로 강우하여 석마(錫馬)를 포상받고 갑자년 평양윤(平壤尹)을 제수받고 병인년에 은청관록(銀青官祿)에 진급하여 문하시랑 평장사 결성군에 봉하였다. 무진년에 외직 경상도 도관찰로 출척하여 정무평시로 하여금 농지를 개량하여 백성으로 혜택을 입게했으며 공은 당시에 공민왕과 공양왕 때에 왕이 정사와 사직에 황태(荒怠)하여 나라가 장차 위태함에 기울어 목은 이문정공(李文靖公)과 제공(諸公)과 더불어 나라를 기울어지지 않기위하여 만회하고 복을 들었으나 멀리 귀양가는데 이르러서도 후회함이 없었다. 천명이 항상 인심을 떠나 진주(眞主)에게로 돌아가니 말하기를 이것을 하늘이 준바라 인력으로 가히 도모할 바가 아니라 하더라. 드디어 벼슬을 버리고 결성 박철동으로 돌아가 별서 소정을 짓고 거하여 늙을 때까지 문밖을 나오지 않고 오직 독서로 즐겼다.

성조용홍(聖祖龍興) 소명(召命)하였으나 공은 맹세코 죽어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태조가 그 뜻을 빼앗기 어려움을 알고 불신지례(不臣之禮)로 대하여 구항의 한 구역을 혜양의 자비(資備)로 하사하였다. 공이 기묘년 향년 팔십사세에 졸(卒)하여 결성 상서면 능동 임좌에 장사지내고 부인은 진주강씨로 노위례(魯衛禮)에 장사지내고 삼남 삼녀를 낳으니 정승 중로 전서계로 참의 혜로은 아들이요. 전서 금거도 군수 박교 부사 송우는 사위이다. 인부윤(仁府尹) 유의 수찬 유례 목사 유지는 찬성장방(贊成長房)이며 유온(有溫)은 참의(參議) 유량(有良)은 응교(應教) 유공(有恭)은 생원(生員) 유검(有儉)은 현감이니 차남의 자손이요. 옥강(玉綱)은 차남의 손이다. 집의(執義) 열신(烈臣) 집의 원진(遠墳). 정검(晶檢) 교신(交信)은 효손이고 현획린간의첨정(賢獲麟侃義僉正) 영주 석환은 공의 증손이다. 현손 이하는 복잡하고 번거롭게 다 기록하지 않고 다만 세상에 문장으로 현달한 자 중에 증좌윤 취모참찬 진정랑은 열신의 후손이다. 대인(代仁)은 청난원종공신 원진의 후손. 의눌 진사 가순은 증참의 교신의 후손이며 효충이라. 증집의 수기(守紀)는 현감 영주의 후손이라. 공은 금세에 이미 오백여년이 지나 문현이 산실되어 실로 기송(杞宋)하였다. 오직 공이 조정에 나아가 직언하는 위풍과 나라는 망하였어도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절조는 가히 역사에 근거하고 보첩에 기록된 한 두가지만 알뿐이다. 공의 대략 여기에 있으니 어찌 자세하게 다 권하지 못한 것이 애석하지 않겠는가?

오호라 사대부가 마땅히 국가의 혁명할 때에 나라의 걱정을 다하고 뜻을 폐지 못한 즉 차라리 뒤돌아보지 않고 은둔하여 황망한 아픔을 참고 원통함을 머금고 관직의 녹을 사양했다. 위무를 굽히지 않고 종신토록 한결같이 여일(如一)하였으니 공이 나아간 바가 이것이 아니겠는가? 후손 정한(鼎漢) 덕진(德鎮)이 나를 내알(來謁)하여 표목의 기둥이 될 만한 명문을 부탁하니 끝내 사양할 수 없어 이에 명을 지어 이르기를 고려의 마지막 왕이 혼미하여 정치를 어지럽게 하니 아! 오직 공이 충의 강직하여 조정에 나아가 넓게 구국하려 하였으나 이문정공과 옳은 말로 하였으나 유배지에 귀양 갔으며 아홉 번 죽어도 휘가 없고 그 뜻을 꺾이지 않고 몇 번이고 벼슬을 파직하고 의관이 훼손되었다.

스스로 해산(海山)의 험곡에 두문불출 하였으니 공은 생의 낙이 아니었다. 성조(이태조)가 불렀으나 굳게 절의를 지키고 벼슬을 잊어버렸다. 드디어 그 뜻을 보고 성덕과 백성이 감복하지 않음이 없었다. 공은 고려의 한 지역에 거하니 매 일월 군신의 의(義)를 밝게하고 강

상(綱常)을 불들었으니 누근들 존양치 않으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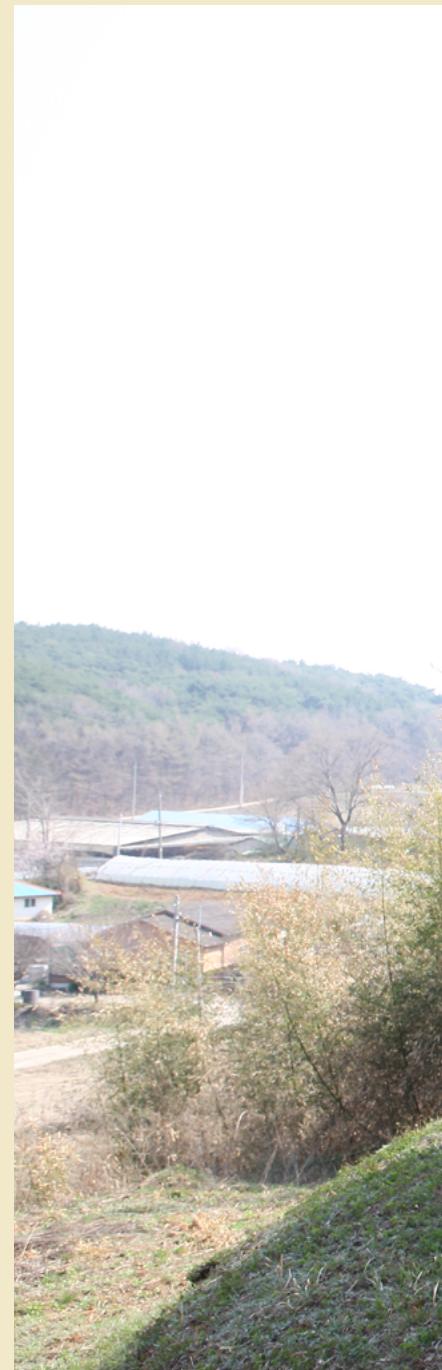
백세 광능곡(光陵谷)의 묘 앞에는 송백이 울울총총하니 운잉(雲仍)이 비석을 세워 찬양하는 말을 기재하여 앞을 터줄 것을 의논하니 나의 말이 거짓이 없이 공의 이름이 오래도록 가길 바라노라.

도가사(都嘉事) 후손 정능참봉 용환 기춘 각독 기하 일환 기락  
시순 기용 기팔 학순 기복은 공을 장례 지낸 후  
오백 삼십 년 갑술 십이월 일 종중(宗中) 삼가 세움



### 비명 고려평장사장공하신도비 〈신도비〉

지역 서부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서부면 중리 산117(능동마을 능동재 윗편)





# 文純公南塘韓先生墓碣銘

南塘韓先生墓碣銘并序

門人果毅校尉世孫翊衛司洗馬金漢祿 撰

集同春宋先生 書

摸仙源金文忠公 篆

昔金河西厚之先生有詩曰宇宙中間有二人仲尼  
元氣紫陽真此儒門千古之大議論也夫宇宙間幾  
多時天生幾多人凡衆人君子之未及乎踐形者姑

舍勿論若其羲皇堯舜以下群聖賢之能盡人道之  
全者指猶可以多屈勿惟見其有仲尼紫陽二箇人  
卓然有立於上下累千萬載之間此其故何也嗚呼  
微仲尼羲皇堯舜之道不傳微紫陽仲尼之道不明  
而紫陽之歿其道遂東至于今五百有餘歲矣非無  
栗尤諸賢之羽翼而闡明之者若論其摠全體之大  
括精微之蘊融通貫徹會極歸極其惟我南塘韓先  
生一人已矣乎然則先生一人抑可以參於仲尼紫  
陽之二而爲宇宙間三人矣乎其未然矣乎是則恭  
俟百世之知罪焉耳嗚呼先生之言曰義理之蘊有

綱領焉條理焉其源蓋出於河洛之圖書伏羲之卦  
畫而說未具帝舜說心成湯說性綱領之說漸具而  
至孔子而備焉子思言中和孟子言四端條理之說  
漸具而至朱子而備焉性理之說於是盡矣後人又

就朱子之說而益究其精剖析已甚其說愈繁而愈有傷於道體之全矣於是栗谷先生又合而言之以救其弊而猶至今未已此則前人之所以遺其憂而有俟於百世者歟其論理氣心性之說則曰無動無靜而涵動靜者理之體也一動一靜而有動靜者理之用也理者無形而無不形無爲而無不爲無在而

無不在者也又曰氣之盈於天地之間者徹內外徹上下無些子中間空闕處可以別容得理也理之在氣中亦徹內外徹上下而無不在非別爲一物在氣中又曰動靜無端陰陽無始理氣只是一箇流行也就流行中截自一陰一陽初生處以爲始而此陰此陽未生之前其理已具是則所謂理氣之源頭也自源頭而觀則理氣有先後而理爲氣本自流行而觀則理氣無先生而理乘氣發又曰陰陽氣也太極所乘之理也動靜者氣也動之靜之者理也自其動靜者而言則氣有動靜而理無動靜自其動之靜之者

而言則理有動靜故氣有動靜又曰動靜異時陰陽異位而太極一理無所不在冲漠無朕其理已具而動靜陰陽其物未生則理氣之非一物而有先後也理在其中渾融無間不見始合不見終離則理氣之非二物而無先後也又曰理氣非二物中爲二物無先後處有先後聖人復起不易吾言矣又曰不離不雜四字發明理氣情狀無餘蘊理在氣中有專以不雜言者有專以不離言者有并包不離不雜之意而言者其言萬物皆同之性者是不犯形氣單指其理

而言所謂專以不雜言者也其言人與物不同而人

與人同物與物同之性者是就氣中各指其氣之理而亦不雜乎其氣而言各指故人與物不同不雜故人與人同物與物同而同爲可循之性所謂竝包不離不雜之意而言者也其言人人不同物物不同之性者是以理與氣雜而言之所謂專以不離言者也然單指各指兼指只在一處性在氣中一而已只在人看得有別耳又曰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氣以成形理亦賦焉人於其間獨得正通之氣故其心爲最靈而其性爲最貴蓋虛靈知覺爲一身之主宰者心也萬善具足爲一心之準則者性也心者氣之聚

而其用至變不可測形而下者也性者理之會而其體至微不可見形而上者也又曰心之爲物氣聚而體虛虛故不昧氣故不齊性在此氣卽其未發虛明而言則謂之大本之性兼其氣稟不齊而言則謂之氣質之性又曰仁義禮智四者之性旣非相離而各有界分而合而看之渾然只是一物事於此看得分明方可以知性也又曰人物之性須於偏中識其全全中識其偏偏者氣也全者理也自其氣而觀則理楷於氣而各爲一理自其理而觀則道超乎器而莫

非全體也旣楷於氣而又超乎器則莫非全體者初不在於各爲一理之外也旣超乎器而又楷於氣則各爲一理者亦非在於莫非全體之外也槩其縱橫論說灑落融徹聆瓏穿穴探搜理窟形容道妙析而

入於精微則條理之細無不貫合而歸於渾淪則綱領之大無不舉而其爲言又皆本之紫陽之訓會其精集其粹而折其衷豈所謂前人之遺憂以俟者非耶微先生紫陽之道殆其不明不傳矣乎且夫先後天之學其來遠矣天地之化萬物之情無不該貫於其中乃理氣之本原道學之宗祖也周公繫其辭而

仲尼作十翼以闡之康節傳其學而紫陽述啓蒙以明之然其大義精蘊猶未盡著而學者每患其昧於所以然之故與其不容已之妙先生又建圖屬說以發揮之易道於是大備嗚呼斯又可以徵前言矣謹按先生諱元震字德昭粵昔殷太師遭明夷之運超然遠覽抱道東來金馬之後寢以衰微八教遙遙遺韻沫沫逮于諱蘭爲高麗大尉庸樹勳烈大振厥聲上黨之韓皆原於是十一世而諱修號柳巷官大提學以主敬之學爲世所重又數世而諱繼禧爲本朝佐理功臣官贊成亦以學問著名則殷師氣脉之

傳蓋綿綿而間見矣後六世諱必迪自號清節居士丁卯虜亂以白衣扈駕江都朝廷議授官辭不受丙子後廢舉自靖諱如益舉孝行縣監爲己巳凶黨所嫉罷官鄉居寔先生曾祖祖考也考諱有箕以文行見稱自號勤修堂常曰吾子孫有能從事學問者吾之願也蓋自清節以後隱德不顯胚胎潛光勵修後人勤讀待辰則意其應期乘運篤生哲人以丕紹殷師之緒於百世之遠者理固然也妣咸陽朴氏敦寧都正崇阜之女也有賢行高識崇禎後肅廟壬

戌九月十三日先生生于漢師之於義洞方娠有夢

龍嘉徵狀貌魁偉大異凡兒既就學聰悟絕倫不煩訓辭文理大進稍長慨然歎曰人生世間當爲天下第一等事每以呂葛自期尤好兵家書潛心理會盡究其說一日讀大學反覆旨意忽渙然自喜曰天下第一等事乃知在此於是棄其初志淳如也識解超詣凡於義理先自大源頭處劈劃將來四子六經無不貫通如太極啓蒙等書晝夜玩索至忘寢食又謂天文地理律呂算數之類亦儒者所當知皆泛濫而旁通之年二十一聞寒水權先生得華陽嫡傳講道黃江之上遂往學焉權先生與語知其爲大儒也於

其歸贈詩王妙歲高才學孔朱說經精博似君無辛勤遠訪漁樵社何幸殘年德不孤蓋深喜其爲吾道得人也既而往見金農巖仲和先生半日論學農巖曰君聰明不患不足但發得太早在耳甲午丁勸修公憂戚易備至丁酉上幸溫宮命道臣薦學行士先生被薦除寧陵參奉戊戌以親病遞景廟辛丑御史趙文命又薦先生邃學通才宜可別擢時今上新冊儲位先生遂除翊衛司副率詣彰義洞私邸奉入東宮侍講書筵屢蒙顧問未幾時事猝變逆臣趙泰齋奏言鄉外猥雜之人不可苟充宮僚意

指先生遂棄官歸壬寅春間兇黨締結內外禍機危迫世第將出閣辭位不勝驚痛自以宮卿在身義不可退步卽日馳赴則妖婢逆宦皆已誅斃邸位

獲安遂卽還鄉今 上元年乙巳冬以領府事閔公  
鎮遠言陞除宗簿寺主簿掌令成震齡以舉賢不能  
先疏斥銓官仍請抄選 經筵官以資輔益而先生  
與焉丙午閔公及講官黃梓迭請招來再降 別諭  
上疏辭不許八月赴 召入京復陳疏乞罷 上命  
引見禮遇隆重諭令畢陳所學先生奏曰帝王爲治  
之道其源出於天其體具於心其用著於事道本在

我而不能行是道者只以人欲間之也是以聖王爲  
治必以克己復禮爲宗而窮理力行爲克己復禮之  
大法敬之一字又爲窮理力行之本以堯舜孔顏授  
受心法反復而證明之 上稱善不已自是 聖意  
傾嚮屢賜引對諮詢治道酬酢如嚮先生感激隆遇  
思竭素蘊以爲人主一心萬化之根須要先格其心  
每當進講輒就本源上從容啓沃以盡導迪之方其  
於賢邪進退之際尤致意焉至若心性名理道學淵  
源異端流弊與夫歷代治亂之由王伯真假之分經  
邦之謨尊周之義民生休戚虜勢成敗無不纖悉指

陳明白通暢 上皆虛襟聳聽獎諭勤懇然卒未有一  
二採施者時朝廷方講討逆之義而 上意惟欲  
調停而并用之上下相持鎮日爭論於是國誣益深  
忠逆無分而 宗社之憂有不可勝言先生以爲此  
係今日大義理不可不言於第五對始極言而洞陳  
之略曰辛丑建儲代理之事及爲宗社建萬世之策  
凶黨及反指以爲逆誣殺大臣謨危國本 殿下臨  
御之後徵討不嚴處分不明故國人以爲建儲代理

是或不出於光明正大必不得已之舉而彼輩之指  
以爲逆亦有所執故 主上部得已私意誅之耶於

是不能無疑於逆須之際而民志不定主勢不尊國家之禍容有極哉蓋自是 聖眷稍衰其後屢對又反復力辨言甚慨切 上終不納先是有 東宮輔導之命間除翊衛司司禦先生亦欲一侍 胃筵餽勉供職然概已浩然有歸志矣適季公啓震爲養宰洪川先生請將母以行 上始斬而終許之諭使速還冬下 別諭促之先生未忍便訣丁未春入京待命三日未蒙 賜對遂陳疏告歸徑出江頭政院以聞 上命騎郎持駟追還先生自以世臣分義異於巖穴高蹈不敢引向前路還到城外待罪翌日入

對時 上疑廷臣懲討出於黨習先生引以爲難安之義又力訟四大臣忠冤及大小臣僚之無罪見薄者 上皆不納於是陳疏乞退遂出宿果川又陳疏告歸乃還鄉承旨金致厘奏曰此人去就實關世道汚隆請追還 上不省俄而 上有大處分復用辛壬黨人前後討逆諸臣并斥罷先生辭召命乞與諸臣同被罪罰仍極論處分之失當玉堂論斥先生合置重典 上不從後逆臣李光佐建白經筵官被抄者濫冒而不副實宜更抄 上亦不答戊申春辛壬逆黨與己巳餘孽合勢稱亂湖嶺之間賊勢猖獗先

生以赴 朝不便遂往湖西營與監司權公傑共議備禦之策時金公在魯爲本道按撫使留鎮忠州辟

先生爲從事權公曰始吾不敢以幕賓相處今不敢捨公亦啓請爲從事光佐沮之曰聞韓某先已在彼係是私客非朝家所知 上不聽而依其啓居無何賊兵次第潰散京外解嚴先生遂還辛亥夏有 召命時 上於講筵以孟子臣視君如仇讐之說爲未安而以 皇明太祖欲廢從享爲不非先生聞甚憂歎因辭疏進戒仍陳 太祖皇帝非斥孟子輕侮朱子其流之弊遂使道術不明義理晦塞而禍亂乘之

者又言聖賢者天道之所寄在天道之所在而人主輕之則固無以受天之佑矣此理甚昭可不懼哉疏入玉堂金尙星等抉摘句語連箚詆訐以爲 殿下將不免爲千古誣聖之主且其所論 皇朝事語多侵逼有乖尊周之義於是 天怒震疊辭旨極嚴竟以不諱 皇朝之失爲悖於春秋之義遂命削經筵官大司諫金龍慶及大臣諸宰相繼疏救久菴尹公鳳九亦言尊周之義論事之體并行不悖元非有損於春秋之義 上皆不納壬子丁朴夫人憂守制如前喪丁巳春副應教尹汲疏陳前日處分過中亟宜

召致以資講問不省至辛酉冬金公在魯復伸救甚至 上始命收削名之教既而又以黎湖朴公弼周言更取辛亥嚴教爻周之癸亥 除掌令丁卯陞執義皆旋遞戊辰儒生沈覲等疏請召還不許先是先生譏寒水先生狀文其篇末有朱子歿吾道東其任傳道之責者惟栗谷尤菴兩先生爲最著之語於是素嘗不悅於先生者以爲貶黜沙翁於道統之傳相

與慾漁沙翁後孫合勢煽動馳文訴辱至是又募得具健等十餘人投疏請罪政院啓却之庚午秋 上幸溫陽先生進到洪州邑村素患卒添欬歎旅次時

有別諭召命上疏辭是冬疾少間扶輿還家辛未二月偶感寒疾以其八日丙子易簀于暘谷精舍遺命治喪用深衣野服襯衫蓋遵尤翁舊禮也四月乙酉葬于勤修公墓東麓壬坐原先生舊居結城南塘間移板橋宮湖後遷親葬于暘谷仍居其下學者或稱暘谷先生初娶昌寧成氏重光女墓在先生墓右幾武下生一男後殷再娶驪興閔氏鎮華女生二男後宗後賢側室男後準早夭女適李思良後殷無嗣而歿四女適崔璞尹勉重鄭在喜吳載晉後宗二男幼後賢三男長顯揭爲後殷后餘幼嗚呼先生之歿

已二紀于茲而幽宮之誌未有所屬後宗等懼門下舊人淪謝殆盡無以徵事實本末乃不計漢祿之識蕪言菲而猥以見託託之非其人顧何敢承當屢辭而託愈勤又何忍終辭謹以平日所聞見參之久菴公之狀而撰次如右蓋惟自寓其秋陽江漢之思曷能有所發於先生之遠且大者歟然竊惟先生生稟異質清明純粹志氣豪勇聞道甚早知行并進而敬該于終始存省交資而誠徹于勤靜英才超邁而磨以鈍根之工衆美俱全而取諸匹夫之善學貫天人識淹古今德備剛柔行通神明逮其充養深厚真

積力久則心與道物理與事融渾然天成自中繩墨

德性寬而栗威儀嚴而恭規模廣而密造詣崇而深此其表裏存著之盛者也居家而父母安其孝兄弟樂其友立朝而國君尚其敬縉紳與其忠與人交而朋友信其仁從學飲其化此其近遠感應之妙者也其爲文章也則溫而理淡而不厭地負海涵優優洋洋溥博時出不可涯涘真載道之具也夫前聖而作經莫盛於孔子後賢而傳義又莫備於朱子而先生乃祖述憲章兼總條貫金聲而玉振之蓋記聞錄十六圖心法精蘊之所在也雜識內外篇論道經世之

要旨也尊周攘夷之義則丙午筵對及論許衡說可考也衛道闢異之功則莊釋陽明以下諸子辨可見也至若朱書同異攷儀禮通解補則又是斯文事業之最盛而大有功於朱門者也嗚呼非默契其心而朝暮遇者能若是乎他餘所著及一二名論之可記者俱在遺集此可略也夫人物性同之論人心純善之說乃告子之緒餘佛氏之宗旨也聖遠言湮學弊道裂時則字李嵬巖東以江門異派立幟而先倡之先生深憂而痛辨焉蓋其心說則彼以爲未發之時氣不用事澹然純一亦善而已氣純善故理亦純善

而爲大本天下未有氣未純於本然而理獨純於本然又謂虛靈不昧在於方寸者爲本然之心而具本然之性血氣清濁充於百體者爲氣質之心而具氣質之性先生辨之曰未發之時心之本體固湛然虛明而其本稟之美惡自在其中爲發後淑慝之種子今曰性因氣之純善而爲大本則是大本不由於理

而乃由於氣也然則所謂大本是氣之謂而非性之謂也又曰心有二副對峙相形性有兩體各在一處虛靈不昧此心之外又有所謂心與性者前古何人有如此道耶其性說則彼以爲人物均受五行之氣

而偏全殺有分數今論其分數多少發用與否則可於五者之中謂一有一無則不可先生辨之曰人物雖均受五行之氣物之所受極其昏濁豈可與論於仁義禮智之粹然者哉人之所以異於禽獸者乃在其性之殊奈何以吾人至貴之性降同於禽獸之異類耶前後往復論說多至累萬餘言彼蓋屢變其說而猶枝梧不已自是以後世之名儒如金三淵昌翕李寒泉縡諸公相繼而附和之於是學者靡然爭趨殆至於易一世先生益懼其儒釋之相混而人獸之無別也書辨辭闢蓋用一生之力而孔朱數千餘年

之相傳者賴以不墜天之生是人其憂患後世可謂至深遠矣若謂以堯舜君民之志不能一試其笙鏞黼黻之手流惠澤於斯民著名德於當世者有足可悲云爾則是特蟪蛄之小知耳又何足以語春櫻之大歲也哉嗚呼先生之於斯文其大業盛烈固生民以來所尠有而語其大者則性理之說是也夫性理之說至微妙唐虞以上無聞殷湯言其名而寥寥至孔子始言成之各正之性則性之所以爲性與夫天下之性不同而自同者著矣而其言渾圓未易領會孟子言性善則只偏於人而犬牛人之性又未論其

所以然程子張子言一原氣質之性則一原氣質非性之當體而人生而靜以上不容說讒說性時便不是性之元又將言未言引而不發至朱子乃有因氣質不離雜之說則孔子所謂成之各正之訓始可以知其所以然矣然其言簡奧猶有待於費辭栗翁言氣局之理則性固是氣局也而不是性亦氣局也尤翁言氣中之理則性固在氣中而理本不離乎氣也至我先生始乃一言而明之曰就氣中各指其氣之理而亦不雜乎其氣而爲言又必以單指兼指之說上下并舉而終歸之一性則朱子所謂因氣質不離

雜之義於是乎煥然大明而性之所以爲性與其不同而自同者如視掌紋無復餘蘊矣蓋性理之說要不過同異二者而同異之中又有同異性之爲性因氣而名而不雜乎氣則其不同而自同者乃其本色定分而其同者離氣之說也其不同之不同者雜氣之說也乃程子所謂不容說不是性者也而世之言性者但見其同與異之同異而未見其同異中之同異故或以不同而自同者混謂之同又或以不同而自同者滾之於不同之不同殊不知其不同而自同者乃真所謂性也而其同者與不同之不同者非性

之當體也夫同者一原之性也不同之不同者氣質之性也氣質之性有善有惡不可以爲貴一原之性人物皆同不足以爲貴惟此不同而自同者對氣質則爲本然之性對一原則爲分殊之性而人獨全而物不得全故爲自貴耳此而不明則人之所以爲人

之道絕豈不殆哉是以孔子言之備矣而朱子猶恐其未著復言之朱子言之詳矣而先生猶恐其未明復言之而其爲言要妙微密形其難形使人如可得而見也此其發揮性蘊至矣盡矣而聖門之功無得而尙焉者也蓋有孔子則不可無朱子有朱子則不

可無先生而孔朱之道不泯則先生之名不磨惟此三人者其將共立於宇宙億萬年之間而與天壤俱弊矣嗚呼其然矣乎其未然矣乎恭俟百世之知罪焉耳乃係之銘曰

惟昔孔門之稱師王遠勛華豈真云遠事功之多孔後惟朱後朱者何所言之誣天厭其阿先生易簣後四十九年 正宗己未特 贈吏曹判書兼祭酒因又致祭 純祖壬戌以道德博聞中正精粹二法 賦謚文純嗚呼先生墜道宜有桓楹之銘而後承零替事巨力綿齋恨者久矣志山金先

生福漢尊信先生無異七十子之□孔子凡於先生後事靡不用其極而今此刻豎此石亦出於金先生多年苦心經紀之餘也顧今滄桑多變人物渺然先生脚下屬筆無人則以先生門人寒澗金先生漢祿所譏幽誌兼用顯刻竊念文谷金公墓誌是尤菴宋先生之文而農巖金文簡公曾已移用墓碣則此不爲無稽而此亦遵志山金先生平日之言也

七代孫相祖敬識

先生歿後一百七十七年丁卯九月 日

# 문순공남당한선생묘갈명



남당한선생묘갈명 병서

문인과의 교위 세손 익위사 세마 김한록 찬  
집 동춘 송 선생서  
모 선원 김문충공 전

옛날 김하서 후(조선 인종 명신 1510-1560년 성리학자) 선생 시에 이르기를 우주 간에 두 사람이 있으니 공자와 주자이다. 이것은 유교의 문에 진실로 최고의 대의를 논함이라. 무릇 우주 간에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인간도 많이 넣으나 무릇 많은 인중에 군자의 도리를 실천한 자는 얼마 없다 고사하고 만약에 복희씨 요순이하 못 성현이 사람의 도를 온전히 다 한 것을 논할 것 같으면 가히 굴诨 자가 많다. 오직 공자와 주자 두 분 뿐이다. 두 분은 탁연히 상하로 천 년대지 간에 우뚝 서있다. 그것은 어떤 연고인가 오호라 공자와 복희 요순의 도는 희미 해져 전해지지 않고 주자와 공자의 도가 희미하여 밝지 못하였더니 주자가 죽으니 그 도가 드디어 동주로 와 지금 오백여년에 이르렀다. 율곡과 송시열의 제 현인이 보좌하고 정미하고 온용함을 관철하고 지극히 그 끝으로 돌아감을 아는 것은 오직 우리 남당 한원진 선생 한 사람이다. 그런즉 선생일인이 또한 공자와 주자와 우주간이 삼(三)으로 참여하였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는 공손이 백세의 죄를 기다린다. 오호라 선생의 말에 의리는 강렬한 조리가 숨어있으니 그 근원은 대개 하도낙서(河圖洛書)에서 나왔으니 복희씨 패(卦) 획의 설명이 가 갖추지 못하고 제순(帝舜 : 순 임금)의 설명과 성탕왕(은나라 시조)의 설명과 강령의 설명이 점차 갖추어 공자 대에 이르러 완비되었다 자사자(子史子 : 공자의 손자 맹자의 스승)의 중화(中和 : 중화 사상) 맹자의 사단(四端 : 인의예지(仁義禮智)) 조리의 설명이 점차 갖춰져 주자에 이르러 완비되었다 성리지설(性理之說 : 즉 성리학)은 여기에 다 완비되었다 후인이 또 주자의 설명에 나아가 더욱 정밀하고 분석적으로 연주하여 그 학설이 더욱 심히 번거롭고 복잡해졌다. 더욱 도체(道體 : 성리학의 근본체계)의 전체를 상하게 되었다. 이에 율곡 선생이 또 말을 합하고 그 폐단을 바로 하였다. 지금은 이미 이 같은 것을 못한 것은 옛사람이 그 근심을 끼쳐서 백세에 기다리는 것이다. 그 이기 심성(理氣 心性 성리학)의 학설을 논한즉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동

정(動靜)을 함양(涵養)하는 이(理)의 정체이다. 한번은 움직이고 한번 고요한 것은 동정이 있다는 것은 이(理 : 이치)의 작용이니 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도 없고 형상 아닌 것도 없고 함도 없고 하지 않은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있지 않은 것도 없는 것이라 또 이르기를 기(氣)는 천지간에 꽉 차있는 것이니 내외를 관통하고 상하를 관통하고 그 사 공간에 조금치도 비어 있는 곳은 없다. 가히 이치를 얻어 별도로 용납한 것이라 이(理)는 기(氣) 가운데 있고 또 한 내외를 관통하고 상하를 관통하고 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일물(一物)의 가지 별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정이 무단히 음양에 이와 기가 시작됨도 없이 다만 이것이 일대 유행함이라 유행하고 중절(中截)하는 것은 일음(一陰) 일양(一陽)이 처음 생신 곳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음과 이 양이 미생지전에 그 이(理)가 이미 갖춰진 즉 이른바 이기(理氣)의 근원이라 근원(根源)에서부터 본즉 이기가 선후가 있으니 이는 기의 근본이 되고 스스로 유행하여 하는 것을 본 건데 이시는 선후가 없고 이는 기를 타고 발하니 이르되 음양 기이(氣理)라 태극이 이를 타는 것이라 동정은 기이며 동과 정은 이이라 그 동정을 말한즉 기는 동정이 있고 이는 동정이 없다. 그 동과 정으로부터 말한즉 이는 동정이 있는 고로 기가 동정이 있고 또 이르기를 동정이 다를 때에 음양의 자리가 다르고 태극의 일이(一理)는 있지 않는 곳이 없이 충막(冲漠) 충적(沖積 : 높고 멀다. 높게 넓게 아득하게 차있는 모양) 되어있고 그 이치를 볼 수는 없으나 이미 동정음양에 갖춰져 있고 그 사물이 생기기 전에 한 물건에 선후(先後)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가운데 있어 혼융(渾融) 무간(無間)하여 시작되고 합해지는 것을 볼 수 없고 끝나고 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즉 이기(理氣)는 이물(二物)이 아니고 선후도 없다. 또 아뢰기를 이기는 두 물건이 아니고 가운데 이물(二物 : 두 사물)이 되데 선후 차도 없이 다시 일어나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말이다. 또 아뢰기를 떠나지도 않고 섞어 지지도 않는다는 네 자(不雜不離)는 이기의 정상을 밝힌 것이요 나머지 이는 숨어있는 것이 아니고 기 가운데 있어 오르지 섞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오르지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불리 불 잡아는 뜻을 아울러 포함한 말이라 그 말은 만물이 성품이 같은 자이다. 이것은 형기(形氣 : 형상을 이루는 氣)를 범하지 않고 홀로 그 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이 높은바 오르지 섞이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 말 이은 사람과 사물이 같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같으며 사물과 사물이 성품이 같은 자이다. 이것은 기가 각각 그 기의 이치로 나가고 또한 그 기에 섞이지 않는 것이니 말하레 각지(各指 :

각각을 가리키는 것)하는 고로 사람과 사물은 같지 않고 섞이지 않는다. 고로 사람과 사람은 같고 물건(사물)과 물건은 같다. 같다는 것은 순성( 순性 : 성품에 순리하는 것)하는 것이요 불 잡 불이 한 뜻이 아울러 포함되었다고 이르는 바다. 그 말은 사람사람이 물건과 같지 않고 물건은 성품과 같지 않은 바다.

이것이 이와 기가 섞이었다고 말하되 오로지 떠나지(不離 불리) 않는다고 말한 바이다. 그러나 단지(單指 : 손가락 하나는 가리키는 것)와 겸지(兼指 : 겸하여 가리키는 것)가 다만 한 곳에 있으니 성품은 기 가운데 있어 하나일 따름이며 다만 사람이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 또 이르기를 하늘을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화생(化生)하고 기는 성형(成形 : 형상을 이룬다)하고 이는 또한 여기에 부여된 것이다. 사람이 그 사이에 홀로 기를 정통한 고로 그 마음이 가장 신령하고 그 성품이 가장 고귀하니 대개 혀령지각(虛靈知覺 : 즉 마음에 지각하는 것)이 일신(一身)에 주재자가 마음이다. 만선(萬善 : 만 가지 선한 것)이 다 구족(具足 : 다 갖춰져 있다.)되니 일심의 법이 된 죽은 곧 성품이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氣)가 모여서 그 씀이 지극히 변화가 불가측이라 형이하자(形而下者 : 형사이로 볼 수 있는 것)이라 성품은 이(理)가 모있는 것이니 그 본체가 지극히 미묘하여 가히 볼 수 없으니 형이상자(形而上者 : 형상을 볼 수 없는 것, 신묘한 것)이라 또 이르기를 마음은 기가 모여서 물질이 되고 그 본체는 혀하고 혀한 고로 기에 혼매(昏昧 : 어둡고 흐린 것)치 않은 고로 가지런하지 않다(일정하고 똑같지 않은 것). 성품은 이, 기에 있은 즉 그것이 말하지 않은 것을 혀명(虛明 : 비어서 밝은 것)하다고 말한즉 이르데 대본(大本)의 성품이 그 기품을 겸했으되 가지런하지 않으니 말한즉은 기질 지성이라고 이르는 것이니 또 이르데 인의예지(仁義禮智) 네 가지는 성품이 이미 위로 깐지 않고 각각 한 물건을 이루니 또 서로 혼동되지도 않으니 이것이 일물(一物)의 일을 여기에서 보니 분명한 것이 바야흐로 가히 성품을 안다한 것이라 또 말하기를 인물(人物 : 사람과 사물)의 성품이 모름지기 편중(偏中 : 편복되고 치우친 것과 중용을 가지는 것 편벽되지 않는 중용)과 온전한 것을 아니 온전한 것 가운데 그 편벽됨을 알고 편벽된다 하는 것은 기(氣)이다. 온전한 것은 이(理)이다. 스스로 그 기를 본 즉 이는 기 속에 질곡(桎梏)되니 각각 일리(一理)는 그 이치를 본즉 도(道)는 기(器 : 보이는 물질)를 초월하고 전체가 아닌게 없고 이미 기에 질곡 되어 있으되 또한 형상에 초월한 즉 전체가 아님이 없다.

처음부터 각각 일리(一理)의 밖 갓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미 형상에 초월하

고 또 기에 질곡 되어 있은즉 가각 일리(一理)라고 하는 것은 또한 전체 바깥에 아닌게 아님 이 없다. 대개 그 종횡 논설이 쇄락(削落 : 깨끗하다)하고 융철(融徹 : 통하고 융합되다) 영통하고 이 (理)의 굴(窟)을 파내고 더듬어 형용의 묘한 도(道)를 분석하여 정미한 곳에 들어가 조리가 세밀하여 깨뚫어 합하지 않음이 없고 혼윤(渾淪 : 혼동하여 빠져들었다)에 돌아간즉 강령(綱領 : 위 머리를 다스려 잡는 기장)에 크게 틀지 않음이 없고 그 말을 한 것은 또한 다 그 근본이 주자의 훈회(訓會 : 가르침)와 정묘한 집성(集成)이 순수하고 절충되었다. 어찌 옛사람이 끼친 우환을 기다릴 바요.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미묘한 선생이 잔망주부자(주자)의 도(道)가 자못 밝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무릇 선후 하늘의 학문은 그 온 곳이 멀다. 천지 하에 화(化)한 만물의 정(情)은 해박하게 그 가운데 깨뚫지 않은 것이 없다. 이기의 본원은 도학(道學 : 도를 배우는 학문)의 조종(祖宗)이다. 주공(周公 : 주나라 주공) 계사(繫辭 : 주역계사전)에 공자께서 십익(주역 십익이 있음)에 이를 밝혔고 강절(소장절 북송시대 역학의 대가)의 그 학문을 전하고 주자가 계몽을 지어서 그 대의(大儀)를 밝혔으니 정온(정밀 미묘함)함이 다 나타하지 못하였으니 매양 그 손이면 (所以然 : 자연스럽게 되는 이치)한 이치가 혼매하며 근심한 고로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미묘함을 선생(남당 선생)이 건도속설(建圖屬說)로써 역도(易道 주역의도) 크게 구비되었음을 발휘하였으니 오후라 이것은 또 가히 옛날의 말(옛 선인의 말)을 징거함 아니라 삼가 선생을 살피건대 휘(諱)는 원진(元震)이요 자(字)는 덕소(德昭)이라 옛날은 나라 태사(太師)가 명리(明夷) 명리괘(卦)로서 주역의 64괘중 하나 곤괘와 이괘가 거듭된 것으로 밝음이 땅 속에 들어감을 상징함. ?괘 地太明夷 운을 당하여 초연히 도(道)가 동래(동쪽을 오다)로 음을 보고 금마후침(金馬後寢)이 쇠미하고 팔교(八教 : 여덟 가지 가르침) 멀고 멀어 끼치 운(韻)이 그 포말(泡沫)이 휘(諱) 난(蘭)에 미치니 고려대 위용수 훈렬 대진 궐성 상당의 한(韓)씨 가다. 여기에 근원이라 심일세 휘(諱) 수(修) 호(號) 유항(柳巷) 관은 대제학 주경지학(主敬은 유학) 세상에 중하게 쓰인 바요 수세에 휘(繼禧 계희)는 본조 [本朝(조선조) 좌리공신 삼은 찬성 또한 학문으로 저명하고, 은사(殷師 : 은나라대사)] 기맥이 전하여 면면히 그 사이에 보였다. 후에 육세 휘(諱) 필적(必迪) 자호를 청절거사(淸節居士) 정묘(丁卯)년에 오랑캐 난리로 백의종군으로 호종하였다. 임금께서 강화도에 피난 가시니 조정에서 상의하여 관직을 주니 신앙하고 받지 아니했다. 병자(丙子)년에 모든 것을 폐하고 스스로 조용히 지냈다. 휘(諱) 여익(如益)은 효행으로 천거하여 현감이 되고 기사(己巳)년인 흥당(凶黨)의 시기로 벼슬

이 파직되고 고향이 거하니 이분이 선생의 증조이다. 휘(諱) 유기(유기)는 문행(文行 : 학문과 덕행)으로 나타내더니 스스로 호를 근수당(勤修堂)이라 하고 항상 말하기를 내자손에 유능한 학문에 종사할 자가 있으리니 나는 이를 원한다 했다. 대개 청절(清節)로부터 이후 은덕(隱德 : 숨은 덕행)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잠광과 육수를 배태한 이후 人이 부지런히 독서하고 때를 기다린즉 그 뜻이 승운(乘運 : 운을 타다)할 시기에 독타입게 철인(哲人)을 낳으니 크게 은사(殷師 : 은나타 태사)의 후세를 백세의 면 자손에 이었으니 이치가 진실하게 그렇게 된 것이다. 모친은 함양 박 씨요 돈형도정 송부의 딸이요 어진 행실로 식자가 높았으며 송정 후(명나라 마지막 연호 1636년) 숙묘(肅廟 : 숙종) 임술 수월 십삼일(1682. 5) 선생은 한양 의동(義洞)에서 낳으니 임신 중 꿈에 용의 꿈을 꾸니 가상한 징힘이 있어 상모가 크고 보통아이보다 크게 달랐다. 취학함에 총명이 절륜하고 훈사(訓辭 : 가르치는 말)를 번거롭지 않게 알아듣고 문리가 크게 진작되어 점점 자라매 개연이 단식하여 말하기를 인생 세간에 마땅히 천하게 일등일을 해야 한다고 하고 매양 여갈(呂葛)[강여상(姜呂尙) : 강태공과 제갈량(諸葛亮) 병법가 정치가]로써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고 더욱 병가서(兵家書 : 병법의 책)를 좋아하여 마음을 가자 앓하고 그 이치를 해독하기를 연구하니 하루는 대학(大學)의 뜻을 반복해서 읽고 그 뜻을 훌연히 터득하고 스스로 기뻐 말하기를 천하에 제일들 일은 여기에 있음을 알고 그 처음의 뜻을 버리고 온전히 하고 무릇의리(義理)를 먼저 대원(大源 : 근물의 근원)의 머리 있는 곳으로 나라가 초해(超解 : 초월하여 이해하는 것) 알게 되니 장래 계획할 것을 사자 육경(四子六經 : 공자맹자증자자사자와 육경)을 관통하지 않음이 없으니 태극 계몽 등서를 주야로 완색(玩索 : 침잠완색(沈潛玩索)의 준말로 보고 사색하다)하여 침식(寢食)을 잊었다 또 천문지리 둘레 산수의 부류를 또한 유자(儒者 : 선비)가 마땅히 다 넓게 익히 알아야 마땅한 바라하고 통달한지 21세에 한수재(寒水齋 선생 權尙夏 : 선생 우암 송시열의 수제자이며 남당 선생의 선생) 권선생이 화양적전(華陽嫡傳 : 화양 우암 선생 송시열의 수제자)이요, 황강 위에 도(道)를 강론함을 듣고 드디어 가서 배우니 권선생과 더불어 말하나 그 대유(大儒 : 큰선비 흥유석사) 됨을 알았다. 돌아갈 대 시(詩)를 지어주어 말하기 묘세(妙歲 : 약관의 나이)에 재주가 높고 공자와 주자 경설(經說)의 배움이 정미하고 넓으니 그대 같은 자를 원처(遠處 : 먼 곳)에 어조사(漁樵社)에서 찾기가 힘든 일이다 하고 어찌 잔년(殘年 : 만년 즉 권상하 자신의 만년)에 다 행한 일 아니겠는가.

덕불고(德不孤 : 덕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는 말 논어에서 나옴) 같은 나의 도를 할 사람을 얻었으니 심히 기뻐하였다. 이에 김농암(金農巖 김창협) 중화선생을 가 뵙고 반나절 동안 학문을 강론하니 농암이 이르기를 군은 총명이 부족함이 없고 근심도 없으니 나만 너무 일찍이 얻었다. 갑오(1714 숙종)년과 정년(丁年)에 근수공(한월진의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다. 정유년(1717 숙종)에 이르러 임금께서 온궁(溫宮)에 행차하시어 도신(道臣 : 관찰사)에게 학행(學行 : 학문과 덕행이 있는 것, 그런 선비) 있는 선비를 천거하라 명하시니 선생(남당 선생)이 천거되어 영능(효종과 비 인성왕후 영주능 서면에 있음) 참봉에 제수하니 무술년(1714 숙종)에 모친의 병환으로 벼슬을 내놓았다.

신축(1721 경종)에 어사 조문명이 또 선생을 천거하니 학문과 재주가 통달하여 마땅히 뽑아 가리었다. 금상(今上 : 그 당시 현 임금)이 새로 저위(儲位 : 와세자 지위)를 책립(冊立)하니 선생이 드디어 익위사 부교(翊衛司 : 세자 익위사)를 제수하시니 창의동 산저에 나아가 밭들어 동궁에 들어가 시강서연(侍講書筵 : 조선조때 세자 시간원, 종사품)으로 여러번 자문(顧問)을 하더니 얼마 안있어 때의 일이 갑자기 변하여 역신(逆臣) 조태구가 아뢰기를 향외(鄉外 : 시골촌)의 외잡(猥雜 : 음탕하고 난잡함)한 사람이라 선생을 가르켜 진실로 궁료(宮僚 : 궁의 官員)로서 채워둘 수 없다하니 선생이 드디어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임인년(1722 경종) 봄에 흥당(凶黨 : 역적의 흥한 무리) 내회에 결연되고 결속 되어 화색이 급박한 위기의 임을 들으니 세필(世筆 : 황세자)가 합사위(閣辭位 : 편전의 문바깥에 인듯함)로 나아가 놀래고 통탄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궁함(宮嘆 : 세제 시강원)이 됨으로부터 몸이 의(義)로서 퇴보치 못하더니 즉일에 거동하니 요비역환(妖婢逆宦 : 역적의 무리)이다. 베어 지었다. 세자는 편안함을 얻고 드디어 환향(낙향, 고향에 돌아보다)하니 금상(今上 : 그 당시 현임금) 원년 을사(1725년 영조) 겨울에 영부사 민공 진원(鎮遠)이 말하데 종부시(종부시 종친부) 주부로 승제하니(陞除 : 장명 성진령) 이 현인을 천거하여 능치 못하니 먼저 상소한 병조판서를 물리치고 경연관 초선(抄選 : 이조 당상이 모여서 특별히 어떤 벼슬에 마땅한 사람을 뽑는 일)을 경연관(經筵官 : 임금 앞에 경서를 강료하는 관원)을 뽑기를 청하니 보익(補益 : 보충으로 늘림)자격으로 선생에게 주어졌다. 병오(1726 영조) 민공 이 강관(경서를 강료하는 관원) 황재를 경질을 함에 재차 불러옴을 청하고 별도로 유시하였다. 상소도 윤허치 않았다. 팔월에 부름을 받고 서울에 가서 벼슬을 파할 것을 상소하니 임금께서 예우로 인견함을 명하며 응중히 하니 배운바를 다 펴기를 유시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제왕 치세의 도는 그 근

원이 하늘의 정체(근본)에서 나와서 그 마음에 구비되니 그쯤이 일에 나타나고 도의 근본은 나에 있으니 이 도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다만 사람이 욕심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왕 치세가 반드시 극기복례(復禮 : 예의에 회복하라는 말 논어에 출)로 근본을 잡고 궁리역행(窮理力行)하며 극기복례를 대법(大法)으로 삼고 경(敬)자 일자는 또 궁리역행의 근본으로 삼어 요순(요임금 와 순임금) 공자, 안연의 주고 받은 심법이 반복 증명된 것이다.

임금이 칭선(稱善)함이 그치지 않고 이로부터 성의(聖意 : 왕의 뜻, 성왕의 뜻)의 경향으로 치도(治道)의 수작(酬酌 : 주고 받다)을 자문하게 되어 선생을 만나 감격됨으로 본디 감춰진 생각을 다 하여니 사람의 주인인 일심(一心)이 만화(萬化 : 만가지가 화생하는 것)의 근본이 되니 모름지기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함을 요(要)하고 매양 마땅히 강론에 나아가니 홀연히 본원(本源)을 쫓아 계옥(啓沃 : 충성된 마음으로 임금에게 아님 흥금을 털어놓다)하게 되니 이런 방책(方策)을 인도함을 다 하여 현사(賢邪 : 어질고 삿된 것) 진퇴(進退)의 때에 더욱 뜻을 얇에 나아가게 되었다. 만약 마음이 명리(明理)도학 연원(淵源 : 근원)과 이단(異端) 유폐(流弊 : 폐단이 되는 것)가 무릇 역대 치란(治亂)과 더불어 왕백(왕백) 진가(真假 : 진실과 거짓)가 구분되고 나라를 경영하는 계획이 주나라(周 중국 기원전 고대 원왕이 다스리던 나라)의 의(義)를 높이고 백성은 척세(戚勢 : 외척에서도)가 없게 하고 성패가 섬세치 않음이 없으니 다 명백 통하여 펴게 됩니다. 임금께서 다 마음을 비우고 경청하여 따르고 유시함을 간절하니 그러나 마침내 한두 번으로 시행함에 있지 않으니 때에 조정에서 역적을 토벌하는 뜻을 강론하니 임금의 뜻이 오직 조정하여 그치 고차하니 상하를 병용해 진압하니 날마다 나라에 무민(譣民 : 속이는 것)만 더해지고 충역(忠逆 : 충신과 역신)이 구분이 없고 종묘사직의 근심이 가이 말로하다 할 수 없다 선생이 이것을 오늘날 대 의리가 매여있는 것이 제 가섯 병에 대하여 극언을 시작하지 아닌 할 수 없음이다. 통진지략에 이르기를 신축년에 건저대리(建儲代理 : 대리청정 하는 것)의 일은 종사에 만세지책으로 흥당의 반역으로 지목하여 무고하게 대신(大臣)을 죽이고 나라의 근본을 위태롭게 모사(謀事)하였으니 전하는 임하시어 뒷일을 징계하고 엄히 토벌치 않으면 처분이 불분명하고로 나라사람들이 건저대리(대리청정)가 혹 광명정대 함에 따라 나가지 못한 것이 괜히 부득이 이를 거론하여 저들의 무리를 지목하여 역신이 된다고 한 것은 또한 짚히는 바가 있는 연고입니다.

주상이 부득이 사의로써 베었으니 여기에 역순(逆과 順)의 지제에 의심이 없지 않으나 뱃

성의 뜻이 주형세를 정하지 않고 국가를 존경지 않고 그 화(禍)를 용납함이 극에 달합니다.

이로부터 성권(聖眷 : 왕의 권속들)이 점점 쇠해지니 그 후로 여러번 대하여 반복으로 간절히 변론하니 왕이 마침내 가납하지 않았다. 먼저 동궁(東宮 : 세자궁) 보도(輔導 : 보필하고 인도함)의 명으로 익위사어(翊衛司禦 : 세자를 위한 강학시위임무)로 제수 받은 것이 있어 선생이 한번 모시고 정하며 경연에 근면하게 봉직하니 개연히 호연(浩然)히 돌아갈 뜻이 있더라 계공(아우) 계진(啓震 동생)이 홍천 현감으로 모친을 모시고 가니 임금께서 모친과 같이 감을 마침내 허락하시다 속히 돌아오라고 유시하시다 겨울에 유지를 내리니 선생이 편결피 못한 것을 재촉하였다.

정미년 봄에 서울에 들어가 명을 기다렸으나 미몽(迷夢 : 인결치 못하다)하니 드디어 소를 올리고 돌아가다 기랑(騎郎 : 병조에 소속된 장관)을 시켜 나루에 (한강) 나오니 궁정원이 듣고 왕께서 돌아오라 명을 하시다 이로부터 세신(世臣)과 의가 나뉘어졌다.

공은 현실을 떠나 자연에 묻혀사는 사람의 처신과는 달라야 한다고 여겨 감히 곧장 나아가지 않고 돌아와서 성 밖에서 죄를 기다리고 다음날 입대(入對)할 때 왕께서 조정신하를 징토(懲討)함이 당습(黨習 : 당쟁하는 폐습)으로 몰아낸다 의심하고 계십니다. 선생이 이를 들어 편 키 어려운 뜻으로서 사대신(四大臣 : 이이명(李以明), 김창집(金昌集), 이건명(李建命), 조태채(趙泰采)) 충원(忠冤 : 충실으로서 원통하게 죽은 혼) 힘써아뢰니(복권할 것을 아뢰다) 대소 신료가 죄가 없다 하는 자 적었다. 왕이다 가납하지 않았다. 물이에 물려갈 것을 상소하고 드디어 나와 과천(果川)에서 유숙하고 또 돌아갈 것을 상소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승지 김치후(金致后)가 아뢰기를 이 사람은 거취가 실로 세도(世道)가 흐려지느냐 융성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을 청하니 왕께서 잠깐 있다가 대 처분하여 신임사화 당인(黨人)들을 다시 등용하여 전후에 걸쳐 토역(討逆 : 역적을 토벌하다)하고 척파(척파 물리치다) 하라시니 선생이 소명(召命)을 사양하는 상소에서 제신(諸臣)들이 같이 죄벌을 입은 것을 처분의 실책을 극론하니 마땅히 옥당(玉堂 : 홍문관의 별칭)에서 논척(論斥) 하라하니 선생이 중전(중전 엄한 제도)에 합치하다 왕이 역신(逆臣)을 따르지 않았다.

이광좌의 선백(建白 : 건의)으로 경연관 피초자(被抄者 : 기록하는 사람)를 무시하고 실로 마땅히 다시 기록하지 않았다. 왕이 또한 답을 않했다.

무신년(1728 영조) 봄 신임(辛壬 : 사화) 역당(逆黨) 기사(己巳 기사환국)의 남은 무리와 합세하여 호

령에서 난을 일으키니 적도 형세가 창궐하니 서생이 기곳에 갔가 조정이 불편하여 드디어 오서영으로사 감사권공 복(복)과 같이 적을 막을 것을 의논하니 때에 김재로(金在魯)가 본도(本道) 안무사가 되어 충주 진영에 머무르니 선생이 종사관이 되었다. 권공(권복)이 말하기를 내가 감히 막빈(幕賓)으로서 대하지 않고 서로 처지가 감히 공을 놓을 수 없으니 공은 또 한 종사관이니 임금께 주청하라 하니 광좌(이광좌)가 이를 저지하며 말하기를 드르니 한모(한남당)는 먼저 저기에 매여 있는 것이지 이는 사객(私客)으로서 조정에 알바가 아니가. 왕이 듣지 않고 상소한 바에 위해 어떠함이 없었다. 척병이 괴산되어 흘어지니 경(京)외가 다 풀려지니 선생이 드디어 신해년 여름에 소명으로 돌아오니 임금께 맹자의 신하가 임금보기를 원수 같이 한다는 설(設)(臣視君如仇○章 맹자)을 강논하니 미안하게 되니 황명대조(명나라 대조 주원장)가 대성전에 맹자를 종향(배반)한 것을 폐하고자 한 것은 선생이 그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통탄을 하지 않음이 없으니 사양하는 상소로 인하여 뜻을 진계(進戒 : 상소를 하여 경계하다) 경연석상에서 명태조가 맹자를 문묘에서 출향(黜享 : 향사를 지내 않게 하는것)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말했다.

그것은 명태조가 맹자를 문묘(서서 배반않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말).

명태조가 맹자를 경모(輕侮 : 모욕하다)하고 주자를 유汰하니 드디어 도술(道術 : 유교의 유술)이 밟지 못하고 의리(義理)가 어두어 막히므로 하여금 화란(禍亂 : 난리가 일어남)이 타고 일어나느 지라 성현을 천도(天道)에서 준바요 하늘의 도가 있는 바라 임금 된 사람이 이를 가벼히 한 즉 진실로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 이치는 심히 밝으니 가히 두렵지 않겠는가! 상소가 옥당(홍문관)에 들어가 김상성(金尙星) 등이 어구를 날조하여 혈뜯고 하여올리니 전하는 장차 천고의 거룩하지 못할 임금이 되시고 말 것이다.

그를 논하니 황조(皇朝 명태조)의 일이 언어가 풁박하는 것이 많고 존주(尊周 : 주나라를 높이는 일)의 뜻은 훼손 하는 것이라 하늘이 진로하고 여러번의 말의 뜻이 극엄하여 마침내 황조(皇朝 명태조)의 실책을 삼가지 않고 춘추의 의를 어그렸다 하니 드디어 경연관직을 사탈하라 명하니 대사간 김용경(金龍慶) 및 대신제 재상이 서로 구하는 상소를 계속 올리었다.

구암 윤봉구(尹鳳九)도 또한 존주(尊周)의 뜻을 논의하는 체(體)로 병행하여 말하니 패덕한 것 이 아니다. 원래 춘추대의에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왕이 다 가납하지 않았다. 임자년(1732) 모친 박씨 상을 당하여 전과 같이하고 정사(丁巳 1737년 영조)년 봄에 부응교 윤급이 상소하여 전일의 처분이 과하여 마땅히 다시 불러 강론케 하라고 하니 불허하고 신유년(1741 영조) 겨울에 김재로 가 다시 상소하여 구명하니 왕이 경연관 복직을 명하였음. 또 여호(黎湖) 박필주(朴弼周)가 다시 신해년(1731 영조) 삭탈한 명의 업교를 효주(爻周 : 글자를 효자 모양으로 지워버리는 것) 하였다. 계해년에 장령을 제수하고 집의(執義 : 사현부)로 승진하였으나 다 무진년(1748 영조)에 유생 심빈(沈빈) 등이 불러올 것을 상소하여 청하니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먼저 선생은 한수(寒水) 선생(권상하 權尙夏) 행장문을 짓고 그 팸말에 주자가 빠트린 우리 동도(東道)에 그 도를 전하하는 책임자가 율곡, 우암 송시열, 양 선생이 가장 나타났다는 말을 이것은 본디 원생에게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 사옹(三翁 金김생)이 도통의 권법에 편출(貶黜 : 폄하하여 빼버림)되어 사옹의 후손이 서로 종용하여 합세 선동문으로 구건(具健) 등 심여인이 청죄(請罪 : 죄를 청하는 것)함을 투소하니 승정원에서 그 투소를 물리쳤다. 경오(1750 영조) 왕이 온양으로 행궁(幸宮 : 왕의 행차로 임시 궁궐) 선생이 먼저 홍천읍에 당도하여 유시를 불렀으나 소를 올려 병세로 사직하고 그 해 겨울에 조금 덜하매 부축하여 고향에 돌아와 신미년(1751 영조) 이월에 우연히 감기로 그 해 팔일 병자일에 양곡 정신(결성 양곡리)에 임종하였다. 치상엔 심의(深衣) 야복(野服) 난삼(난삼)을 쓰니 다 우암의 옛 가례를 준수한 것이라. 사월 읊유에(사월 18일) 근수공 선생의 구택은 결성 남당 간 판교 궁호리에 옮기고 부모님 상소를 양곡에서 이장하고 그로부터 후학자가 혹 양속선생이라 하였다. 선생은 처음에 창녕성씨 중광의 딸에 장가들었다. 묘소는 선생 묘소 우편하에 있고 아들 하나를 낳으니 후(殷 : 후은)은 여홍민씨 진화의 딸과 재취로 두 아들을 낳았다. 후종 후현 이고 측실(側室) 아들 후준은 일찍이 죽고 딸은 이사량에게 출가했다. 후은은 아들은 없고 죽음 네딸만 최박, 유면중, 정재희, 오재진에게 출가하다. 후종 두 아들은 어리고 후현 삼남은 장성하여 세상에 나태고 후은의 나머지는 어리다 오호라 선생이 죽은지 이미 이기(二紀 : 이십이년)이니 유궁(幽宮 : 산소)에 묘지(墓地)가 없어 후종과 문하인 옛사람들이 잊혀진 일은 다 본말을 실로 징험할 수 없음으로 한록(漢祿 김한록)이 아는 바로 외람되어 부탁을 받고 부탁은 그 사람을 되돌아보지 않고 어찌 감히 승당(承當 : 받아들여 감당함)하리요. 여러번 사양하니 더욱 부탁하여 어찌 차마 사양하리요. 삼가 평일에 듣고 보고 한 것을 참고 하고 구름 공의 행장을 찬하매 다음에

도 이와 같이 하니 대개 추양에서 우거할 때부터 강한(江漢 : 양자강의 한수가 핵치는 곳, 무창 한구 한양)의 사색이 선생이 원차대 한바를 발한 것이라 그런 고로 간절히 선생을 생각하고 선생이 낳으매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청명하고 순수하며 지기가 호용하고 도(道)를 일찍이 극고 아울러 행하니 경(敬)을 종시해 박하게 하고 존성(존심 성찰)의 자품이 동정(動靜)에 정성과 통철로 영재 초매(超邁)하고 둔근(鈍根)을 연마하는 독공으로 많은 아름다움을 온전히 함께 피하고 필부의 착한 학문은 천인(天人)을 꿰뚫고 고금을 알으며 덕을 가추고 강유(剛柔) 행실이 신명(神明)을 통하고 충양(充養) 심후(深厚)하니 참공적이 웬 즉 마음과 고가 그윽히 사리에 융浑(融渾)하니 자연히 천성적으로 그 가운데 법도록 이루고 덕성이 관측하고 위엄있는 법도와 공손한 규모가 없고 조밀한 예지가 깊고 표리가 바깥에 성하게 나타난 것이다. 집에 있을 때에는 그 효오씨 부모에게 편안히 하며 형제에게 우애오씨 즐겁게 하고 벼슬에 나가매 나라와 임금에 그 경(敬)으로써 하고 진신(진신 벼슬하는 동료)과 더불을 때는 그 충심으로 하며 봉우에 사위매 신용으로 하며 종학(從學 : 학업에 졸사하는 학자)엔 그 인(仁)으로 하니 이것은 원근에 감응하는 묘지라. 그 문자엔 온화하고 이치가 담담하고 싫지 않으며 땅과 바다같이 함양하고 넉넉히 넓고 넓게 할 때 그 끝이 없으니 참으로 재도지구(載道之具 : 도를 싣는 도구)다. 무릇 옛 성인이 글을 지은 것은 공자같은 분이 없고 그 후에 현인이 그뜻을 전했으니 또한 주자같이 구비한 사람이 없으니 선생이 옛성현의 법도로 글을 짓고 겸하여 다 금성(金聲 : 금성옥진) 조목을 꾀니 옥진은 대개 십육도 심법(心法) 정온(정밀히 삼취진 것)한 바를 기록했다. 잡식 내외편은 논도 경세(經世)요지이다.

주(周)나라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뜻은 병오년 경연식에 허형설(許衡說 : 원나라 사람으로 노재선생 여말 선조에 신진사대부에 영향을 끼친 사람)로 가히 상고했다. 도를 보호하고 이단을 막는 공은 장자와 와양명이라 제 백가를 분별함을 가히 볼 수 있다. 주서동이고의예동해(朱書同異攷儀禮通解)를 보충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문(斯文 : 유학)의 사업이 가장 용성하고 주자학문 하에 큰 공이 있는 것이다.

오호라 그것은 마음에 묵계(默契)이며 조석(朝夕)에 만난 것 같지 않겠는가? 나머지 저서는 한 두 가지를 기록한 것이다. 유집(遺集)을 가이 대략할 것이다. 무릇 사람과 사물의 성품이 같다는 논리와 인심이 순선(純善)지설은 고자(告者)의 단서이며 불씨(佛氏)의 종지이다.

성인은 밀고 학문은 연멸되고 도가 분렬된 폐단에 이외암간(李峴巖간) 강문(江門)의 파(派)를 달리하여 깃치를 세우고 먼저 유림을 인도하니 선생이 심히 근심하고 통탄하여 이 사문(斯文 성리학)을 논변하니 대개 그 심설(心說)인즉 그것은 미발지시(未發之時 : 즉 희로애락을 벌하지 않을 때)요 기(氣)는 일에 작용치 않은 때라 담연(澹然 : 맑고 맑다)히 순일(純一)하고 또한 착하고 기가 순선(純善)한 고로 이(理)가 천하의 대본(大本)이며 기가 본연의 순일하지 않음이 없으며 이(理)가 홀로 본연의 순연하니 허령불매(虛靈不昧 : 마음이 비어 혼매하지 않음) 방촌(方寸)에 있어 본연지심이 되니 본연지성을 갖쳤고 혈기가 청탁(淸濁) 백체(百體 : 신체심신)에 충만한 것이 기질(氣質)지심이니 기질지성이 가졌다. 선생이 논별하여 이르기를 미발지시에 마음의 본체가 진실로 담연(澹然)이 허명(虛明)하고 본 품성의 아름답고 미워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으니 발한 후에 숙특(淑慝 : 맑고 간특한 것)의 종자가 되느니라.

지금에 이르기를 성품은 기(氣)로 인하여 순선하고 큰 근본이 된듯 이것은 이(理)에 말미암지 않고 이에 기(基)에 말미암음이라 그런듯 대본(大本)이라 이른 바는 기(氣)를 이르는 것이고 성품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또 이르기를 마음에는 두 가지가 대치한 형태요 성품은 두 체(體 : 원체근본)가 있어 각각이 한 곳에 있으니 허령불매(虛靈不昧)이요 이 마음 바깥에 마음과 성(性)이라고 이른바는 옛날(前古)에 어떻게 사람이 이와 같은 도가 있으리오. 성품을 말한즉 그것이 사람과 사물이 균등하게 오행(五行)의 기를 받고 편벽되고 온전하고 죽이고 있는 분수(分數)를 지금 논한 본수는 다소 발용(발하여 작용한다) 여부인즉 오자(五者 : 오행)에 가합한다는 중용은 하나는 있는 하나는 없다고 이른 즉 불가하다. 선생이 논변하여 이르기를 사람과 사물이 비록 오행의 기(氣)를 균등히 받았으나 사물(동식물)이 받은 바는 극히 혼탁한 바다. 어찌 가히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순수함을 더불어 논하리오. 사람이 금수와 가쁜 바 자는 이것은 그 성품에 다름이 있는 것이니 어찌 나와 남이 지극히 귀한 성품을 금수와 같이 다른 류(類)와 함께 내려 받았으리오. 전후에 왕복 논설이 만연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대개 여러번 논변한 말이 같고 그 침이 없으니 이로부터 후세의 명유(名儒) 김삼연창흡(金三淵昌翕)이 한천천제(李寒泉<sub>川</sub>宰 : 이간 도암 이재) 제 공이 서로 연계하고 이 학문에 부화 하는자라 일세에 쟁초(爭趨 : 투쟁)하지 않게하고 자못 바꾸어 질까 두려움에 이르렀다,

그것은 유석(儒釋 : 유교와 불교)이 서로 혼돈되고 사람과 짐승의 구별이 없음이라. 글로써 변

론하고 막은 것이 일생에 힘을 냈으니 공자와 주자 수천여년간 서로 전한 것이 이로 말미 암아 떨어지지 않게 하니 하늘이 사람을 내게 한 것은 그 우환의식(憂患의식)으로 한 것이니 후세에는 가이 심히 멀어졌다. 만약에 요순(堯舜)과 백성의 뜻이 그 생용(笙鏞 : 악기)과 보불(黼黻 : 예복)을 한번 시험하지 않고 그 백성에게 혜택을 입음이라 덕과 이름이 당세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애로움이 족하다. 이는 특별히 적은 것을 알 뿐이다. 어찌 말로써 춘령(春櫻)의 대세(大歲)이리오.

오호라 선생이 유학의 대업이오 융성함이라 진실로 생민(生民 : 백성이 생긴) 아래로 드문 바라 언어에 있어서 큰 것은 성리(性理)지설이 이것이라 무릇 성리지설은 지극히 미묘하여 당우(唐虞 : 요순임금 때) 이상은 다름이 없고 은탕(殷湯 : 은나라 탕임 때) 시대의 그 말의 명목은 아득히 멀고 공자시대에 이르러 비로서 그 말이 이루워졌으니 각각 그 성품을 바르게 한 즉 성품이 되는 것은 설품과 천하의 성품이 같지 않고 스슬 같은 것은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 혼원(渾圓)하데 모여짐이 바뀌지 않고 맹자성선을 말한즉 다만 사람에게만 편중됐고 사람과 개 소 등의 성품은 논하지 않은 바라 그런고로 정자(程子) 장자(張子 : 장횡거 선생)의 한 근원의 기질 설을 말한즉 한 근원의 기질이 성품의 당체가 아니고 인생이 고요하고 위로는 참설(讐舌)을 용납하지 않는 것. 문득 이것이 성품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니 또 장차 말하게 불발(不發 : 즉 희로애락을 발하지 않고 고요한 상태)을 끌어 말하지 않은 것은 주자에 이르러서 기질로 인하여 이잡(離雜 : 흩어지고 섞인다)하지 않는다는 설은 공자가 이른바 각각 그 바름을 이뤄 교훈을 시작하는 것은 가히 그 소연한 바를 말한 것이다. 그러니 그 말은 간단하고 오묘하며 율곡과 우암의 기국지리(氣局之理)를 기다림과 같다. 성품은 진실로 기국(氣局)이데 성품이 또한 기국이 아니다. 우암(송시열)의 말에 기중지리(氣中之理)는 성품이 기 가운데 있고 이(理)는 본래 떠나지 않은 것이 기이다. 우리의 선생에 이르러서 비로서 인연으로 이를 밝히어 말하기를 기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각각 기의 이(理)를 가르키고 또한 그 기(氣)에 섞이지 않는 것이다. 또 이르기를 반드시 단지(單指 : 한손가락)가 다른 손가락을 겹한다는 설은 상하를 아울러 들어 종단에는 하나의 성품에 돌아가는 것이라 주자가 이른 바 기질로 인하데 흩어지고 섞이지 않는 뜻이 여기에 빛나게 크게 밝혔으니 성품이 성품이 되는 것과 더불어 같고, 같지 않은 것이 손바닥 지문같이 보여 다시는 여온(餘蘊 : 숨긴 나머지)이 없는 것이다.

대개 성리지설은 그 요체가 동이(同異)의 두가지에 불과한 것이니 동이지중에 동이의 성 품의 있으니 성품은 기로 한 것이고 이름이 기에 섞이지 않은 층 그것은 부동(不同)이고 스 스로 같다고 한 것은 그 본색이 나누어지고 그 같다고 한 것은 이기(離氣 : 기가 섞여있는 것)지설 이라 그 같지 않다는 것은 잡기(雜氣 : 기가 섞여있는 것)지설이라. 이에 정자가 이른자 불용성이 이것이 성품이 아닌 것이라 세상의 말이 성품이 같고 다른 것을 보는 것이니 같고 가른 것 이 그 같고 다른 가운데 같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한 고로 록이 부동이 자동이 것과 혼동되고 이른바 같은 것과 혹 같지 않은 것이라 자동(自同)의 자는 부동(不同)에 혼동되어 있는 부 동이니 별다른 그 부동과 자동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에 참으로 이른바 성품이한 것이 그 같음과 같지 않은 것이 부동자는 성품의 당체(當體)가 아니다. 같다는 것은 성품의 한 근 원이니 같지 않다는 것은 기질지성이니 기질지성이 선과 악이 있고 이것은 성품의 한 근원 이 될 수가 없다. 사람과 물질이 다 같다는 것은 족히 귀히 될 수 없고 오직 이것이 같지 않다는 것과 같은 것은 기질의 대(對)이고 본연지성은 한 근본의 대가되니 나누어진 성품이고 사람만이 홀로 온전하고 물질(동물과 식물)은 온전히 얻지 못한고로 스스로 귀한 것이다.

이것이 밝히지 않은즉 사람의 도리가 끊어지니 어찌 위태롭지 않은가? 이로써 공자말에 구비되었고 주자가 그 나타나지 못한부분을 두려히 여서 다시 말했으니 주자의 말에 상세 히 되었다. 선생은 그 미명함을 두려워하며 다시 이를 말했으니 그 말이 요체가 미묘하고 정밀하고 그 형상이 어려워 사람으로 하여금 기히 알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의 성온(性 蘊 : 성품에 감추어진 것)의 발휘가 지주히다 하였다. 성문(聖門)에 공(功)이 오히려 얻은 바가 없다 가 공자인즉은 없는 바가 없으나 주자인 즉 없는바가 없다. 선생이 공자와 주자의 도를 연 멸케 하지 않은즉 선생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고 오짓이 삼인(삼인)이 장차 우주역만년 사이 에 공립(共立)하여 천지와 같이 함께할 것이다.

오호라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공손히 백세의 죄(罪)를 알고 기다리겠노라.

이에 이어 명(銘)에 이르기를

오직 옛적 공문(孔門 : 유교문)에 칭사(稱師)가 말하기를 훈화(勸華 : 공훈)는 멀고 어찌 진실로 일 과 공이 멀고 많으나 공자 주자가 말한 바는 하늘을 속임을 싫어 함이다.

선이가 가신지 49년 정종 가미(1799 정조) 특별히 이조판서 겸제주 추증하시고 제사를 올리고 순조 임술(1892 순조) 도덕박문중정정이법(道德博聞中正精二法)의 시호를 문순(文純)이라 하사하시었다. 오후라 선생이 땅에 떨어진 도를 마땅히 돌아오게 하여 기둥에 새기니 후에 영체(零替 : 영락되고 바꿔지다) 됨을 힘써이어 한이 되는 것이 오래되었다. 지산 김복한(志山 金福漢) 선생이 선생을 높이 신봉하여 공자의 제자 칠십제자가 복(服 : 죽은 후 입는 복)을 한 것처럼 다름이 없다 하였다. 무릇 선생과 후사(後事 : 후대의 일)에 지주하지 않음이 없어더니 지금에야 비석을 세우고 또한 김선생이 다년간 고심으로 지낸 나머지라 지금 돌아 보건데 세상의 인물이 많이 변하고 아득하여 선생 아래에 글을 짓는 자가 없더니 선생문인 한간(寒澗) 김선생 한록(漢祿)이 지은바가 묘지명 겸 비문으로 새기니 간절히 생각건대 문곡(文谷) 김공(金公) 묘지명과 우암 송선생의 글과 농암(農巖) 김문간공(金文簡公)이 일찍이 묘비를 옮겨 쓸 적에 이것을 상고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는 이것을 또한 지산 김선생의 평일의 말이었다.

칠대손 상조(相祖) 경식(敬識) 삼가 기록하다  
선생 사후 일백칠십칠년 정묘년 구월 일



## 비명 문순공남당한선생묘갈명 <묘비>

지역 서부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서부면 신리 산34-1(신리 마을회관 위쪽으로 300m)





## 清難功臣平城君公神道碑銘

奮忠出氣清難功臣 贈崇政大夫議政府佐贊  
成兼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知訓鍊院  
사平城君行折衝將軍慶尙右道兵馬節度使林  
公神道碑銘并序  
通政大夫成均館大司成侍講院原任司書 金  
福漢 撰  
崇祿大夫判敦寧院事 尹用求 書  
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 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金炳億 篆

維潔州治北青龍山下板橋之里有枕艮而封者卽  
故奮忠出氣清難功臣 贈崇政大夫議政府佐贊  
成兼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知訓鍊院事  
平城君行折衝將軍慶尙右道兵馬節度使彭城林  
公衣履之藏也公沒後三百四年十一代孫宗鎬始  
議樹碑來謁以銘余文短病力而責以世好則不敢  
終辭乃爲之敍公諱得義字子方以唐翰林學士八  
及爲始祖麗季有太師忠簡公成味及社屋自靖曾

祖諱峻北兵使祖諱貞秀佐郎考諱植文校理號松  
坡錦湖亭秀之從子也 贈補祚功臣領議政平陵  
府院君以公勳也松坡公凡再娶貞敬夫人海州崔  
氏郡守霽雲女昌原俞氏參判必毅女公崔夫人出

也生于嘉靖戊午卒以萬曆壬子蓋在宣廟丙申鴻山土賊李夢鶴因寇亂創殘之餘敢生乘時射天之計聚衆森起勢甚猖獗列郡風靡藩樞將兵之臣皆莫能抵抗而惟洪州牧使洪公可臣嬰成固守而亦甚危急公素有智略勇力絕人適居境內不勝忠憤激勸倡起率義旅八百人被甲杖劒馳入圍

城發謀決策多有人所不及者而亦深於乾象豫知將雨放火燒城外廬舍後幾日寒雨連綿賊無所據因以宵遁出城追擊屍遍于野遂斬其魁而平其黨獻捷于朝因拜忠清水虞候陞秩止於慶尚右兵使甲辰策清難功臣三等又錄扈聖原從勳謹案策勳教書有選入郎署歷試郡縣之語則公之履歷行治已有著稱於立功之前而今皆不可考矣然丙申樹立宣出於忠君愛國不能自己之誠心而非有官守責任而然也其視當時棄城避賊蒼黃失措者何如哉扶國勢於將危救一方於已亂雖謂之功

存社稷澤被生民可也亦何恨於平日行懿之不盡傳也哉贈貞敬夫人驪興閔氏察訪恕男女府院君孝曾曾孫生四男二女曠牧使召縣監疇文科副提學嶠參奉女適李尙懿尹壩牧使繼子震喬贈承旨縣監子震喬出后重喬有喬進士之喬副學子世喬縣監參奉子漢喬參判柱國卽副學曾孫也曾玄及外出不具錄銘曰

在昔龍蛇國有大艱蠻雨支離憂虞百端獵賊乘  
旣連陷六邑驚動畿輔廟無長策誰能敵愾一任鴟

張月暉塵漲朝暮洪陽桓桓林公素抱忠義義旅八

百灑泣倡起甲馬入城一軍動色如神其知如虎其  
力先登出擊劇盜以平不日告捷湖海永清 王嘉  
其功封爵乃加煌煌 教書誓以山河擢授制樞大  
用是擬靡究厥施中身而止四子克家聯翩簪纓行  
治若詳遺籍雖零惟厥樹勳可以昭揭螭首龜趺伐  
石如制思闡其幽雲仍之誠我銘以實永視千齡

丁巳五月 日立

## 청난공신평성군임공신도비명



분충출기 청난공신 증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오위도 총부도 총관 지훈련  
원사 평성군 행절충장군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임공 신도비명 병서.  
통정대부 성균관 대사성 시강원 언임사서 김복한 찬  
승록대부 판돈령원사 윤용구 서  
통정대부 승정원 우부승지겸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김병억 전

결성관하 북으로 청용산 아래 판교리에 간좌(艮坐)의 묘소가 있으니 곧 고(故) 분충출기 청난공신 증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겸 판의금부 사오위도 총부 도총관 지훈련원사 평성군 행절충장군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팽성 임공의 옷과 신을 유장(幽藏)한 곳이라 공이 죽은 후 삼백사년 십일대 손 종호(宗穡)가 비로서 비석을 세우기를 의논하여 내게 와서 명을 부탁하니 나는 글이 짧고 병세로 세상의 좋은 글로 감히 책임질 수 없다고 하였으나, 결국은 문사(文辭)를 지으니 공의 휘는 득의(得義)요 자는 자방(子方)이라. 당나라 한림학사 팔급(八及)이 시조이고 고려말에 태사 충간공 성미(成昧)이고 사옥 자정(自靖)에 이르러 증조 휘 준(峻) 북 병사 조부 휘 정수(貞秀) 좌랑(佐郎) 부친 휘 식(植) 교리(校理) 호는 송파(松坡)이며 금호는 형수의 의족하다. 증보조공신 영의정 평능 부원군 공의 훈작이요 송파공이라.

공은 재취하니 정경부인은 해주최씨 군수 제운(霽雲)의 따님이요 재취한 부인은 창원유씨  
참판 필의(必毅)의 따님이라. 공은 최부인의 소생이니 가정무오(嘉靖戊午, 1558년)에 생하여 만력  
임자(萬曆壬子, 1612년)에 졸하였다. 선조 병신(宣祖丙申, 1596년)에 홍산 토적 몽학이 왜란으로 인하  
여 조선 창업 이래 쇠잔한 틈에 난을 일으켜 감히 이때를 타 하늘을 쏘는 계략으로 짐승같  
은 무리를 모아 일어나니 형세가 심히 창궐하여 여러 군이 바람처럼 휩쓸리니 이를 막을  
장수와 병사가 능히 저항을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홍주목사 홍공 가신이 성을 굳게 지키었  
으나 심히 위급하였다. 공이 본디 지략과 용력이 절륜하여 성안으로 들어가서 분충격려 하  
여 의병 팔백인을 일으켜 인도하니 병장기로 무장하고 말을 타고 성 주위를 달려 들어가니  
결책을 모의한 것이 많으나 사람들이 미치지 못한 것이라. 또한 건조한 기상이 심하고 장  
차 비가 올 것을 알고 방화로 성 밖의 천막을 불사르라하고 하니 며칠 후 날씨가 춥고 비가  
연이어 오니 적이 거처할 곳이 없어 도망가니 추격하여 시체가 야산에 널려있고 드디어 그

무리들을 참하니 조정에 승전을 알렸다. 그로인하여 충청수우후 승진하여 제수하고 머물러다가 경상우 병사 갑진년에 청난공신 삼등에 책록되고 또 록호(錄扈)되고 성원 종종훈 근안에 책훈되었다.

교서에 뽑혀 낭서(郎署)에 들어가고 역시군현(歷試郡縣)의 말인즉 공의 이력이 행치가 이미 공을 세워 나타났으니 옛 일을 지금 다 상고할 수 없다. 그러나 병신년에 세운 진실로 충군 애국이 나온 것은 자기 성심이 아니고 관원으로 책임이 있어 나온 것은 아니다. 그 당시 성을 버리고 도적의 무리를 피하여 가는 것을 보고 창망히 어찌할 바를 몰랐으니 어떻겠는가. 나라를 봇들고 장차 위급함을 난리에서 구하겠다는 일방적인 마음이라. 비록 공이라고 말하나 사직이 있고 생민에게 혜택을 하는 것이 가하다. 또한 평일에 행의(行懿)위연을 다정하지 못함을 한이라.

증정경부인은 여홍 민씨 찰방(察訪) 서남(恕男)의 따님이며 부원군 효증의 증손으로 사남이녀를 두니 찬은 목사(牧使)요 집은 현감이요 박은 문과로 부제학이요 우는 참봉이라. 딸은 어상필에게 시집가고 윤유에 시집갔다. 계자(繼子)로 진교증 승지현감 계자 진교는 후출이라. 증교 유교 진사요 부학자(副學子)라 세교(世喬)는 현감 참봉 한교 참판이라.

주국(柱國)은 부학을 지낸 분의 증손이라.

증손 현손 및 그 밖은 다 기록하지 못하였다. 명하여 이르기를 옛날 용사(龍蛇)년에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어 남만으로 지리멸렬하여 근심이 백가지 인데 적도들이 이틈을 타 여섯 고을을 연이어 함락하니 경천동지하여 경기지역과 종묘를 보호할 장책이 없어 누가 능히 일임으로 적을 새매가 새를 치듯이 하리. 달무리가 커지듯 티끌이 조석으로 번지듯 하니 홍양의 군센 임공이 본디 충의를 알고 의병 팔백으로 창도하여 눈물을 씻고 일어나 병마(兵馬)가 업성하여 일군의 기색의 움직임이 신과 같고 그 기지가 호랑이와 같고 그 기력이 면전 출격하여 올라가니 극악한 도적이 하루가 멀다 하고 평정되었으니 승리의 주첩(奏捷)으로 호서가 영원히 청명하였도다.

왕께서 그 공을 가상히 여겨 봉작을 내리시고 그 빛남을 더하셨네. 교서에 산하에 맹서하기를 방어를 뽑아 받아 크게 쓰이니 해아려 궁리하고 그 몸으로 베풀으니 네 아들들이 가문에 관작이 이어졌으나 치군(治郡)의 노력이 자세한 유적이 없고 비록 영실 되어 오직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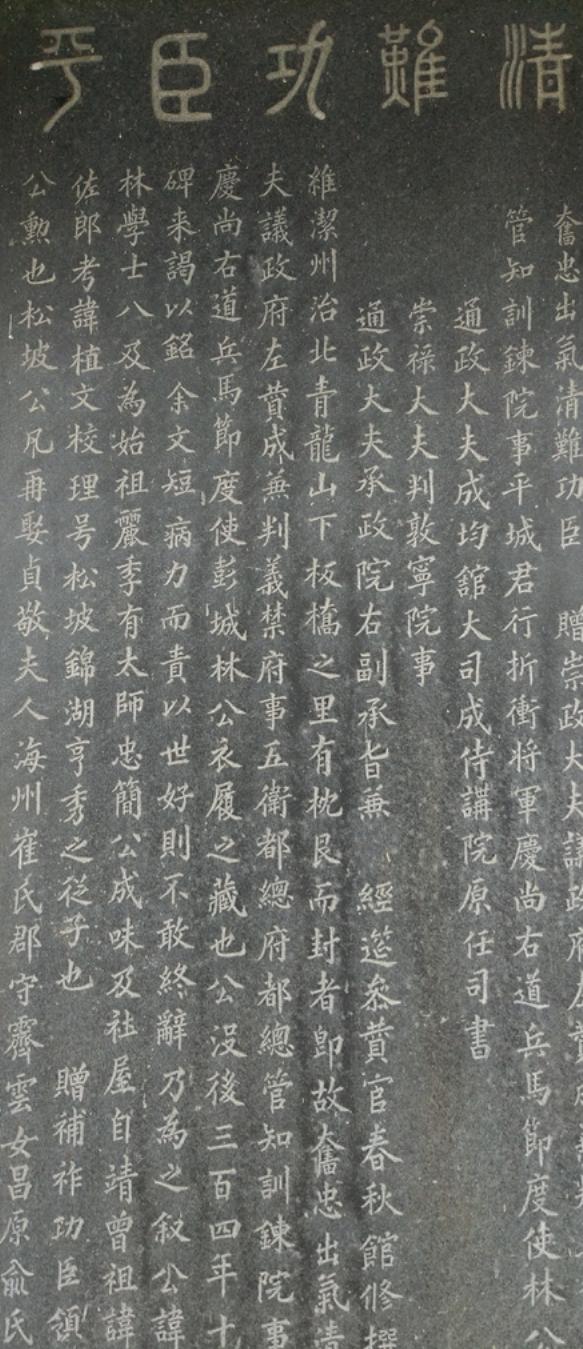
공훈을 비석에 계재하여 그 유암(幽暗)함을 밝게 하니 운잉(雲仍)의 정성으로 내가 사실을 영원히 천년토록 보게 하노라.

정사오월 일 입



비명 청난공신평성군임공신도비명 <신도비>

지역 서부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102(정충사 입구)





## 烈婦南陽洪氏之碑

烈婦洪氏洪城人孔錫參之妻也自幼孝順貞婉善事父母及歸以其事父母者事舅姑敬夫子無違克相其家及孔君客于外而病不起則欲殉之因姑嫜之寬譬不得遂強起縫衣衾送喪次旣返葬因却食雖迫於尊命強一呷而實不下咽旣而俟家人之少間遽取毒藥飲之昏仆在床者十日而終實丁卯六月四日距聞其夫之計二月晦日爲九十二日也嗚

呼烈哉古有給復表闈之典以弊之今亡矣將何以樹風聲而厲頽俗哉鄉之人士謀欲樹石以代綽楔以余忝守是土以狀來請文之噫明制夫死守寡年過五十則蒙旌卹之恩而未五十而死則雖有苦節卓行而不錄焉故學士大夫或銘或贊以紀之俾不泯於後今氏之烈雖未蒙舊制旌復之典而鄉人士之勒石以文者亦古之道也氏籍南陽故名臣文景公吉畋文良公汝方之後也孔氏之先出於己卯人文獻公瑞麟兩家風節世相傳受則靈芝醴泉豈無所本而然哉銘名

婦道從一死生之以嗟今之世何俗之圮或生而離或奪於寡綱之頽矣孰有扶者烈哉孔婦見義分明從夫九原遽捐其生振我頽網警我圮俗豈唯伊人一行之烈世教有賴芳名不滅勒茲貞石以詔女士

凡爲人妻宜觀洪氏  
洪城郡守 洪祐崇 撰  
月城 金正斗 書  
戊辰五月 日  
高道面有志一同建設

## 열부남양홍씨지비



열부 홍씨는 홍성사람이고 공석삼(孔錫參)의 아내다.

어릴때부터 효순하고 정숙하며 부모님을 섬기니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은 시부모님을 섬김을 말함이니 남편에게 공경하고 자식이 어김이 없이 순종하였다. 집안이 어려워 공군이 객지에 나갔으나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객지에서 죽었다. 남편을 따라 같이 죽고자 하였으나 시부모의 만류와 후덕한 마음으로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드디어 참고 어렵게 일어나 옷을 꾀매여 이불과 상(喪)에 보내었다. 영구가 집에 돌아와 장사지내고 인하여 식음을 물리치고 생명이 절박함에 이르니 억지로 한번 마시고 실로 먹지를 아니하였다. 집 식구들이 잠깐 빈 사이를 기다려 급히 독약을 취하여 마셨다가 혼절하여 엎어져 침상에 있은지 십일이 지나 죽었다. 실로 정묘년 유월 사일 남편의 부음(訃音)을 들은 이월 그믐날에서 구십이 일이 되었더라. 오후라! 장렬하도다. 옛날엔 나라에서 열려로 하사하는 바가 있고 마을에 정려문을 내려주는 법을 장려하였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장차 어찌 풍속의 어지러진 소리를 따르리요.

향리의 인사들이 비석을 세워 글로써 대신하고자 하기를 의논하여 나로 하여금 향리의 이 실상을 지키고 글을 지어줄 것을 청하였다.

아! 제도를 밝게함이여. 남편이 죽고 과수(寡嫂)를 지키니 나이 오십이 지난 즉은 정려(旌閭) 내려주는 은혜를 입고 오십 않되서 죽으면 비록 절개가 탁월히 행했다 해도 정문의 록권에 기록되지 않는다. 고로 학사대부가 혹(或) 명을 혹(贊)으로 기록하여 후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으나 지금의 열녀의 경우 비록 미몽(未蒙)으로 옛 정문제도법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으나 향리의 인사가 돌에 글로 새기는 것도 옛날의 도이다.

열여의 관적은 남양이고도 명신 문경공(文景公) 길민(吉旼) 문양공(文良公) 여방(汝方)의 후손이라. 공씨 선대는 기묘년 명인 문현공(文獻公) 서린(瑞麟)의 양가(兩家)의 절조와 풍모를 세상에 전하여 받은 즉 영지예천(靈芝醴泉)이 어찌 그 근본이 없는 바겠는가. 그리하여 명하여 이르기를 부도(婦道)는 일부종사(一夫從事)로 사는 것이니 아! 지금에 와서 세상이 어찌 풍속이 무너졌는가. 살아서 이혼하고 과부의 수절을 강탈하여 강상(綱常)을 무너트리니 누구를 붙들 을 자인가!

열려 공씨네 부녀로서 의로움을 분명히 하고 남편을 쫓아 생을 버리고 구천으로 가니 강

상의 무너짐과 풍석의 퇴락됨을 경계하니 어찌 오직 저 사람의 일심 열려행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겠는가. 꽃다운 이름을 없어지지 않게 이 돌에 새기니 여사의 인도한 교육을 무릇 남의 아내된 자는 마땅히 홍씨를 보라.

홍성군수 홍무승 지음

원성 김정두 서

무진년 오월 일

고도면 유지일동 건설



비명 열부남양홍씨지비 <효행비>

지역 갈산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갈산면 수덕사로 307(가곡리 368-1) 노상마을 입구





## 吏曹參判水北先生金公神道碑銘

有明朝鮮國嘉義大夫吏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 世子左副賓客水北金公神道碑銘并序。故大司憲金君光炫字晦汝我伯氏議政公第三子也。季六十四卒葬于湖西結城縣新卜之山午向之原。明季其子壽仁等類其行請銘于余古人云兄弟之子猶子也。夫銘之我稱美不稱惡論譏其德善功烈明著之後世余之言曷足以信於人也。雖然又嘗

聞陳子禽曰君子遠其子所願學者獨不在於聖人乎。遂爲之敍曰我金氏始顯於新羅遼高麗時諱宣平爲古昌郡城主以郡兵破走甄萱封爲三重大匡太師位居權幸張吉之上世祀于社至今不絕子孫仍居焉于今七百餘季圭組相繼高祖諱璠平壤府庶尹 贈吏曹判書曾祖諱生海信川郡守 贈左贊成祖諱克孝敦寧府都正 贈領議政考諱尙容議政府右議政丁丑之亂殉節于江都旌其門曰忠臣之門妣貞敬夫人權氏領議政轍之孫佐郎愷之女以萬曆甲申九月生君十一遭母喪 贈議政公

命貳室張撫養之既長委禽于進士沈慄之門壬子秋聯捷生進兩試自後值世道晦塞不赴公車徘徊田舍癸亥 國家反正搜訪遺才銓司薦授忠清道連源察訪未赴擢文科庭試卽薦史局旋隸槐院又

錄玉堂南狀位世所稱一時極選人以爲榮拜藝文館檢閱兼史館記事天啓甲子李适反 上將幸公州 命移史官日記事急未果坐罷已敍復待教陞奉教尋遷承政院注書轉成均館典籍改司憲府監察乙丑移侍講院司書又移司諫院正言拜弘文館修撰知製 教辭遞陞拜副校理遞爲軍職于拜直

講修撰登文科重試又爲校理獻納病辭明季由五品拗入天曹從人望也丁卯虜警 扈駕江都還拜副校理移兵曹正郎故事直拜正郎稀潤事一時相傳豔稱橫城民李仁居謀逆就伏以問事勞錄從勳許迪鄭沁等獄又以推官錄正勳言路泥之累拜校理直講吏曹正郎用重試恩超陞宗簿正移執義又移輔德己巳正月以暗行御史出湖西按視守令不法還爲應教五月又以救荒御史巡歷折邑所至親自振救所活頗多七月還入玉堂冬大臣薦拜舍人移執義兼弼善半歲中三四遷不出玉堂東壁政府

郎署諫垣師儒兼職如故庚午改葬 穆陵以都廳郎監視方上事訖 命陞通政階拜掌隸院判決事尋移戶曹參議由地部歷秋官夏官參議參知春官右侍郎同副右副承旨再長諫垣 仁穆王后喪篆銘旌進嘉善拜漢城右尹兼副摠管明季春三爲諫長皆卽辭六月拜大司憲力辭劄陣自廣狹人之失論咸鏡監司睦長欽曾在昏朝爲禮曹參議西宮減膳節目擅自行會之罪 上不答卽辭遞未久復授前職又辭甲戌再爲副提學辭遞會 元宗大王追

崇禮成將相太室大臣臺諫交章力爭 上甚恚蓄

怒以待雷霆之下人不敢喘息大司憲俞伯曾者揣知 上意值臺閣一空乘時停論卽擢長經筵仍貳銓副以示 寵嘉君偕館僚李尙質李時楷等共劾之並論憲府是非無別 上下嚴旨命竄絕塞初配會寧 特移三水三水非人所居水土甚惡道路絕險十步九折去馬而步不十日到配逼迫顛倒殆不可狀聞者莫不失色視君所守如故也 廟議既定大臣復請寬典 不許明季乙亥風灾異常 廟社陵寢大木斯拔 天心始悔盡原逐臣丙子六月西敍軍職八月拜戶曹參判冬金人渝盟舉國入寇不

數日傅畿 上出幸江都敵兵已到西郊倉卒避入南漢君 扈從入城先恩有 教老病宰臣隨 廟社往江都議政公方苦風眩亦隨往焉及江都失守見國勢已去登城門聚燐黃引火之物誓不見虜面放火自焚丁丑正月二十二日也時 大嘉亦出城赴敵營君聞訃晝夜號哭水漿不入口衝虜陳往奔求之遠近終不得遺體涓日只奉遺衣冠虛瘞于楊州東面先塋內巽向之原以貞敬夫人安東權氏祔用故事也禮官請致祭 上入流言疑事不明白寢其奏近臣及臺諫具陳實迹君.

兄弟亦上疏訟冤逐奉几筵流落水原轉入湖西服除不敢還京師寓居洪州之鰲頭村登望故國悲不

自勝獨自流涕 朝廷追錄君 扈從功加嘉義大夫又拜大司諫病辭不赴亡何君之長子被御史構逮不得已入京 恩謝父子相見會北使將至君上疏言臣父之死由此虧義不可共戴一天臣若立朝從仕必有相接之事請解職 不許再疏得准 朝廷知其意出拜清州牧使凡文書用清國季號者皆不署名州有闕政銳意脩舉一切用三尺豪彊多不悅謗言蝟興如除戎器飭軍務無少懈常有枕戈待

朝之意聞余有北行越疆至坡州相見方伯以擅去官守 啓罷之辛巳拜大司諫又拜副提學皆辭壬午會下私戚適有副學之命入城謝 恩還鰲頭尋拜大司諫者三亦不就甲申 昭顯世子自瀋陽還迎于郊外 世子復入瀋陽君亦還鰲頭會有銓貳之 命適大臣謀逆伏誅罷勉入洛獄竟還鰲頭拜大司憲復辭聞 世子大君永還卽入謝拜 世子左副賓客迎于碧蹄已而病辭乞暇沐浴歸鰲頭復拜大司憲乙酉 世子薨奔哭在道聞侍疾醫官無狀兩司請逮問再 啓旋停玉堂因其避辭處置無

據君謝 恩後論玉堂之失且言醫官不可不問仍引避不赴 召見遞移亞西銓上疏辭職疏中只書甲子以故疏不果入以 孝陵祭官落傷不能復命輿病還鰲頭 上引見諸大臣語及前.

日臺諫請逮醫官之非又問姜家子爲其贅壻因此知內間事時頗有傳言醫官李姓人結援後官讒說有效云九月新冊 東宮君自湖西入賀明季春巫

蠶獄大起姜庶人賜死文明兄弟與其母竝拷死文明卽君子壻也於是中旨授君順天府使蒼黃就途數月間哭送牛車之喪者過三關門恐懼不與外

人相接丁亥癰疽發背上數日如柱子大醫用利刀割開瘡口流丹浹籍傍觀者不忍正視而顏色不少變一境之人聞之無不奔走爭以祕方藥物來告有老人自來請吮蓋感其德也病重之日聞上過災減膳卽今損廚供揭榜以示之至七月二十三日晨嘔血因不興暝然而逝君爲人孝謹質素外訥內敏體物不遺事無緩急處之以順人無貴賤待之以誠偏者過之見其中也懦者過之見其制也不以顯盛而曜其章不以艱難而易其守奮節激昂不復有赴會希邁意以是獲正直忠厚之稱臨終自知死生之

理對妻子不作悲哀可憐語但以兄弟遠離不相見爲恨遇嗛口之味對之不甘曰安得割而分之也友愛之情出於天性如此平生不好交游常靜坐手一卷目不有身外事楷書篆筆亦出家法所著詩文皆可觀有四男五女長夭次壽仁餽山縣令次壽民次壽賓長女壻洗馬趙錫馨次適縣監尹雲舉次適正言李廷夔次適縣監姜文明次適都事李恢壽仁娶縣監成弘憲女生二男二女日盛遇盛運女適侍直趙胤錫一女未字壽民娶牧使尹衡覺女生二男俱幼壽賓娶正言鄭麟卿女趙錫馨生三男二女日景

善夭日景望景業俱向學女長適土人李蓋賢生一  
男三女皆幼次適參奉林一儒生一男尹雲舉生一  
男日掞掞生一男一女俱幼李廷夔生二男四女男  
再興餘俱幼姜文明生二男三女男日久望餘皆幼  
內外曾孫三十餘人銘曰

有嶽嶽而立有碌碌而隨惟天所植不可易斯嗟而  
之志百折無悔觀於古又觀於今孰能堪爲儔輩仰  
惟伯氏明眡義方世世勿替永有傳芳余心如木余  
筆如戟九原不昧有電神目.

·叔父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傳 尚憲 譜.  
堂姪通政大夫敦寧府都正 壽增 書并篆.  
崇禎紀元後一百二十六季癸酉十月 日立.

## 이조 참판 수복선생 김공 신도비명



유명(有明)은 명나라가 망했어도 청나라를 섬기지 않고 존화양이(尊華懷夷)로 명나라 마지막 연호를 사용하였음. 즉 숭정원년 1628 이후 고종황제까지 비석문에 사용했으며 숭정년호 즉 1628년 이전의 비문에는 없음.

조선국가의 대부 이조 참판겸 오위도총부 부총관 세자 좌부 빈객 수복 김공 신도비명(碑  
서) 고(故) 대사헌 김군 광현의 자(字)는 회여(晦汝)요 우리 백씨의 정공의 제 셋째 아들이라 육  
십사세 죽으니 호서 결성현 신복지산 오향(午向)으로 장사지내다 명년에 그 아들 수인(壽仁)  
등이 비명(碑銘 : 비문)을 지어줄 것을 청하거늘 내가 말하데 고인(古人)은 형제의 족하라. 무  
릇 비명에 아름다운 덕을 칭하고 칭하지 않고는 어찌 그 덕과 선행과 공이 나타남을 논하  
여 지으리오. 추세에 나의 말이 어찌 남에게 믿음이 족하겠는가. 비록 그러나 또 일찍이 들  
으니 진자금(陳子禽)이 말하길 군자는 그 아들이 원하는바 배움을 멀이 하는 자라 이것은 홀  
로 성인에 있지 않겠는가? 드디어 지어 이르기를 우리 김씨는 시조는 신라에 나타나서 벼  
슬을 하고 고려시에 휘(諱) 선평(宣平) 고창의 성주(城主)가 되어 군병(郡兵)를 거느리고 견훤을  
패주 케하여 삼중 대광 태사(三重 大匡 太師)가 되어 권행(權幸) 장길(長吉)은 사직에 세사(世祀)  
지  
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 자손은 칠백여년동안 거하며 서로 이어져 오다가 고조 휘  
(諱) 번(璠)이 평양부사윤을 지내고 증이조 판서이시다. 증조 휘(諱) 생해(生海) 신천군수 증좌  
찬성 조부 휘(諱) (克孝)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 증영의정 부친휘(諱) 상용(尙容) 의정부 우의정 정  
축지란(丁丑之亂 : 1637년 청나라 침입)에 강화도에서 순절하니 그 정문(旌門)에 이르기를 충신지문  
(忠臣之門)이라 하였다. 비(妣 : 모친) 정경부인 권씨 영의정 철(轍) 권철의 손자 좌랑(佐郎) 개(愷)의  
딸이다. 만력(萬曆) 갑신(만력 갑신은 1584년) 구월에 김광현을 낳고 십일세에 모친상을 당했다.  
증 의정공(上用)의실(돌째부인) 정씨에게 무양(撫養 : 기르다)을 명하고 이미 장성하매 진사 심율(沈  
慄)의 문하에 들어가 배우고 임자년(1612) 가을에 생원 진사 양시험에 연하며 합격하니 이로  
부터 세상에 길이 어두워지고 막혀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공은 시골에 배회하였다. 계해  
(1623년) 국가반정(국가에 부정하는 자) 찾아내고 수사하는 전사(銓司)에 천거하여며 충청도 연원(連  
源) 찰방에 제수하니 나아가지 안했다. 문과 정시에 합격하고 사국선예고원(史局旋隸槐院 : 사  
초를 꾸는 실록청)에 천거하고 또 옥당(玉堂) 남상위(南狀位 : 홍문관 정자의 별호) 벼슬에 천거되니 세상

에 칭하기를 극선인(極選人: 최고로 뽑힌 자)이 하더라 예문과 검열 겸 사관에 승진하여 천계(天啓: 명나라 연호) 갑자(甲子 1624년) 이괄(李适)의 반란 일을 기록하였다. 왕이 장차 공주로 행행(行幸: 임금의 행차 곧 왕이 공주로 피란함)하니 사관(史官)을 옮길 것을 명하였다. 일기가 일이습하여 결과 없이 파하고 다시 교시를 기다려 서술하고 교서를 받아들여 승정원 주서로 옮기고 성균관 전적 새 사현부 감찰이 되고 을축년(1625)에 시강원 사서로 옮기고 또 사간원 정언으로 옮기고 홍문관 수찬지체에 제수하니 사양하고 승진으로 부교리를 제수하고 군직(軍職)으로 바꾸고 또 강수찬(講修撰)을 제수하고 문과 중시에 오르고 교리현납(郊理獻納)에 제수하니 병으로 사퇴하고 명년에 오품(五品)으로 말미암아 인망(人望: 세상에 덕망있고 존경하는 일)을 따른 것이다. 정묘(1627 인조 5년) 청나라 군사가 임노하니 왕을 호위하여 강화도에 갔다 돌아 왔다 부교리에 제수하고 병조 정랑에 옮기고 일의 연고로 곧 정랑(正郎)에 제수하니 일의 틈을 타니 전하기를 횡성현에 백성 중에 이 인거가 반역을 꾀한 일에 종훈(從勳)을 물어 허유 정심등을 가두었다는 일을 기록하고 추관록(推官錄: 죄인 추국하여 기록한 것) 정훈 교리 직강 이조정랑을 제수하고 중시은초승종부정으로 중용되고 집의(執義: 사현부 종삼품)로 옮기고 또 보덕(輔德: 세자 시강원 종삼품)으로 옮기고 기사(己巳 1629년) 정월 암행어사가 되어 호서(湖西)를 암시(按視: 살피고 안무하다) 할세 수령(고을원님)의 불법을 살피고 돌아오다 응교(應教: 홍문관 직제학 예문관)가 되고 오월에 또 구황어사(救荒御史: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벼슬)로 경기도 지방을 순역하여 읍에 구황(救荒: 주리고 부황나고 고통받는 백성을 구제하다)한 바가 자못 많다. 칠월에 드러와 다시 옥당(玉堂: 홍문관의 별칭)에 들어가고 겨울에 대신들이 천거하여 사인(舍人: 문하사부의 내사 사인 정사품)으로 제수하고 집의(執義: 사현부 종삼품) 필선으로 옮기고 반년 중에 삼사번 옮기었어도 옥당 동벽 정부랑서 간원사유 겸직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경오년에 목능(穆陵: 동구릉의 하나로 선조와 선조비 의인왕후 계비 인목왕후의릉 양주에 있음) 개장(改葬: 고치거나 이장하다)하니 도청랑(都廳郎)이 되어 일을 감시감독하여 마치니 왕이 통정(通政)의 계급에 승진 제수하고 장예원 판결사를 제수하고 호조참의 유지부 역추관(戶曹參議由地部歷秋官)과 하관참의참지춘추관우시랑동부우부승지(夏官參議參知春秋官右侍郎同副右副承旨)에 옮기고 재차 장간원(長諫諫: 사간원)으로 인목왕후(仁穆王后: 선조의 계비왕후)상에 비명(碑銘) 정 두전(頭篆: 비석 맨위에 전서로 횡서하는 글씨) 쓰고 가선대부(嘉善대부)에 승진하고 한성 우윤겸부총관을 제수받고 명년 봄 삼월에 간장(諫長: 사간원의 수장)되었으나 사퇴하였다. 유월

에 대사헌(大司憲)에 제수하니 사퇴하고 함경감사 목장흠이 광해군 시절에 예조 참의 서궁감 선 절목에 스스로 독간으로 처리한 죄의 실정을 논함을 진술 기록하여 올렸으나 왕이 답을 하지않자 곧 사퇴하고 자리를 옮기었다. 얼마 안있어 다시 전직(前職)을 제하니 또 사퇴하고 갑술년(1634) 부제학을 재차하니 사퇴하고 체질되었다. 원종대왕 추승례(元宗大王 追崇禮: 인조의 아버지를 추존하는 예)에 태실대신(太室大臣)을 합부(合祔, 合祀) 하는 것을 대신이 힘써 간하니 왕이 심히 노하여 뇌성벽력 아래에 있는 듯 하였다. 감히 숨을 쉴새없이 대사헌 유백종(兪伯曽)이 알리자 왕의 뜻은 대각(臺閣)을 비어두고 논의가 그치자 다시 경연관의 수장을 뽑아 이에 전부(銓副)를 보이니 총가군(寵嘉君)과 함께 관료 이상질(李尙質) 이시해(李時楷) 등이 삽이 추궁하고 논쟁하니 현부(憲府: 사현부)가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더라 왕이 엄한 교지를 내려 절색(絕塞: 인간의 발길 없는 곳 변방의 곳)으로 귀양보내라 명하니 처음에 회령(會寧: 함경북도 두만강 가에 있는 회령군)이 되었다.

특별히 삼수(三水: 삼수갑산 함경도 백두산 아래)로 옮기었다. 삼수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물과 흙이 심히 악하고 도로가 절험(絕險)하며 열발짝에 아홉 번이 꺾인 곳이 말도 걸어가지 못하는 곳이라 십일 동안 걸어서 유배지에 당도하니 엎어지고 자빠져서 자못 그 형상을 들수가 없어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이 지키는 바 연고를 보임이라(거할 곳이라) 조정에서 이미 정한 곳이라 대신(大臣)이 다시 관전을 베풀기를 청하니 왕이 불허하였다. 명년 을해(1635년) 풍재 이상(風災異常)이라 묘사(廟社)와 룽침(陵寢: 왕릉)의 큰 나무가 뽑이었다.

천심이 비로소 축신(逐臣: 내쫓아버린 신하)을 다 원래대로 하고 뉘우치다. 병자년(1636) 유월에 서서군직(西敍軍職)하고 팔월 호조 참판을 제수하고 겨울에 금나라 사함 유(渝)가 나라와 맹약할 것을 들어 나라에 들어와 수일도 안되어 경기도 내 전해지니 왕이 강화도에 행차하니 적병이 이미 서교(西郊: 서쪽지방)에 이르니 급히 남한산성에 피하여 들어가니 공이 호종(扈從)하여 성에 들어갔다. 선은(先恩)으로 늙고 병든 신하도 따르라 교시하니 종묘가 강화도로 가니 의정공이 풍현(風眩: 병환)의 고통에도 따라가니 강화도에 이르러 성(城)을 지키는 것을 잊고 나라의 형세가 이미 기우러 지는 것을 보고 성문에 올라 유황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을 가지고 맹서하기를 오랑캐 청나라 군사를 보지 않기로 하고 불을 놓고 스스로 분신 자결하니 정축년(1637) 정월이십 이일이라 때에 왕의 행차가 또 성을 나가 적군의 진에 가니라. 공(公)

이 부고를 듣고 주야로 통곡하고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적진을 뚫고 가서 구하고저 하나  
원근에서 종당엔 유체(遺體 이정공이 나라가 기운 것을 알고 화약에 불을 부치고 분신 자결하여 그 유체나 찾을려고  
하나 찾지를 못했다는 말)

며칠을 보내다가 다만 유물인의 관을 받들어 양주동명 선영내 손향(異方 : 손방향)으로 빈 옷  
만을 묻었다.

정경부인은 안동 권씨를 합장했다. 옛일이라 예관을 청하여 치제(제사)하니 왕이 떠도는 말  
에 의심을 가졌다, 불분명한 백침(의관만 묻었는 혀장을 밀함) 근신(近臣) 및 대간의 아뢴 것이 들어가  
니 그 실질적 사적을 진술하여 갖추라 하였다. 공의 형제가 또 상소하여 원통하게 죽음을  
송주(訟奏)하여 드디어 궤연(几筵 신주를 모신 궤 혼백을 모신 궤 영연) 받들고 수원으로 내려가(流落水源 :  
선조가 묻혀있는 고향 태어나고 자란 고향) 서호(西湖 : 충청 우도 서해 안에 위치한 지역)로 옮겨들어가 벼슬로서  
서울에 돌아가지 아니했다. 홍주(洪州) (鱉頭村 : 지금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에 우거(寓居)하였다.

언덕에 올라가 고국의 서울쪽 하늘을 바라보며 비애로운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홀로 눈  
물을 흘리었다.

조정에서 공을 공신록에 추가하여 기록하고 호종공신(扈從功 : 왕을 호위하 모신 신하) 가선대부  
를 더하여 또 대사간에 제수하니 병으로 사망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장자가 어사구체(御史  
構逮 : 임금의 명오 지방을 순시하는 기구)가 되어 부득이 서울에 들어가 사은하고(謝恩) 부자가 상봉  
할 때(이것은 생부인 김상현을 상봉할 일인함 김광현을 김상현의 형인 김상용의 아들로 김상현에게 양자로 감) 청나라  
사신이 장차 이르니 공이 상소하여 말하기 신의 아버지 죽음을 청나라 오랑캐로 말미암으  
니 같이 하늘을 이고 서있을 수 없다하여 신(臣)은 만약에 조정에 벼슬할 때 반드시 서로 상  
접(相接 : 청나라 사신과 서로 접촉하는 일) 하는 일이 있으면 직책(벼슬)을 내놓기로 청합니다 하니 왕  
이 불허하며 재차 상소하여 허락하고 조정에서 그 뜻을 알고 외직으로 청주목사를 제수하  
니 무릇 문서에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서명을 하지 않고 조정에 첨예한 뜻을 들어  
일체삼척(三尺) 호강(豪強)을 많이 쓰나 기뻐하지 않고 비방한 말이 일어나면 무기로 제압하  
듯하며 군무(軍務)를 정비할 때 조금도 나태함이 없게 하며 창을 베고 자며 조정에 뜻을 기  
다리며 들으니 내가 북으로 관할을 넘어 파주에 이르러 관찰사를 만나 직책을 버리고 독  
단으로 했다하여 아뢰니 이를 파했다. 신사년(1641) 대사간에 제수 또 부제학에 제수하고 다

사양하고 임오년(1642) 사사로 척신(戚臣)에 가 있다 부학(副學 : 부제학)의 명이 있어 성안에 들어가 사은(謝恩 :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례하는 일)하고 오두리(홍성 갈산 오두리)에 돌아오다 대사간을 세 번 제수하였으나 다 나아가지 않았다. 갑신(1644)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심양(瀋陽 : 당시 청나라 수도)에서 돌아와 성 밖에서 맞이했다. 세자가 다시 심양에 들어가 공이 오두리에 돌아오다 왕명으로 이부(吏部 : 상서)가 대신이 역모를 꾀하여 베일 것을 아뢰었나 마침내 오두리로 돌아오다 대사헌에 제수했으나 다시 사양했다. 세자대군(世子大君 : 소현세자) 영원히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곧 성안에 들어가 사배(謝拜 : 사은숙배)하고 세자 좌부빈객(佐副賓客)으로 벽제(경기도 벽제)에 나아가 맞이했다. 그 후 병으로 사퇴하여 쉴 것을 아뢰었다 목욕하고 오두리에 돌아가니 다시 대사헌에 제수했다. 을유년(1645년)에 세자(世子 : 소현세자 청나라로부터 돌아와 얼마 안 있다 폭사했다)가 죽음으로 달려가 곡하고 길에서 시종(侍從)이 병이 있음을 듣고 의관에 뵈니 내세울 큰 병이 아니었다. 양사(兩司 : 사헌부)에서 체문(逮問)할 것을 청하니 재차 임금께 아뢰어 옥당(玉堂 : 홍문관의 별칭)에 머물게 하고 그 피사(避謝) 처치가 근거가 없다하였다 공은 사은하고 옥당의 실책을 논하고 또 의관을 말하는 것은 불가불 묻지 않을 수 없고 이에 인피(引避 : 공동책임 지는 일을 피하는 일)하였다. 왕이 불러도 나아가지 안했다 체직되어 다 서전(西銓 : 병조판서)으로 옮기었으나 상소하여 직책을 사양하였다. 상소의 글에 갑자년(1624)의 연고로 상소가 결과가 없었다. 효릉(孝陵 : 인종과 인종비 능)제관으로 들어가다 낙상(落傷)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왕이 가마를 명하여 왔으나 병으로 오두리에 돌아오다. 왕이 제대신과 친전하여 전(前)일을 말하니 대간이 의관(의원)의 그릇됨을 체문(逮問)하기를 청하였다. 또 강가자(姜家子 : 인명미상) 그 사위됨을 묻자 이로 인하여 내간일을 알 때에 자못 의관(의원) 이씨 성인(李姓人)에게 말을 전하여 참설(讒說 : 남을 음해하는 말)이 있었다하나 구월 새로히 동궁(東宮 : 세자)을 책봉하니 공이 호서(湖西 : 고향으로부터)로부터 궐에 들어가 하례하고 명년 봄에 무고(巫蟲 : 남을 혹독하게 자주하는 일 그런 사건) 옥사(獄事 : 죄를 가려내어 하옥하고 심문하는 일)가 크게 일어나 강서인(姜庶人 : 강씨 서인)들이 사사(賜死)되고 문명(文明)은 공의 사위라 이에 왕의 교를 받고 공이 순천부사를 제수 받고 급히 나가니 도중에 수개월 간에 우차(牛車)로 죽은 자를 나르는 상(喪)에 곡송(哭送 : 울며 장송하는 것)하는 자 많아 문을 닫고 두려움에 밖에 사람과 더불어 접하지 않았다. (이것은 유행병이나 기타로 인하여 백성들이 많이 죽은 일을 말한 듯 함)

정해년(丁亥 1647년)에 등창에 종기가 발하여 수일동안 반자(柈子 : 판자 모양으로 뾰족하게 굽히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한 모양)의원이 예리한 칼로 등창종기를 가르니 피가 낭자하여 자리까지 흥건이 젖었다 옆에서 보는 자가 참아 이 광경을 볼 수가 없었다. 공은 조금도 안색을 불변하였고 사람들이 것들 듣고 비방약을 가지고 오는 자 많아 한 노인이 와서 등창 종기를 빨었다고 하였다. 그 덕에 감화함이라 병중에 왕께서 재앙으로 인하여 감선(減膳 : 나라에 재앙이 있어 흥년이 들면 왕은 반찬의 가지 수를 주린 다말)한다는 말을 듣고 공이 곧 주방에 반찬을 덜게 하고 계시(揭示 : 방으로 계시하여 보게 하는 것)하게 하였다. 칠월 이십삼일 새벽(1647년)에 피를 토하고 일어나지 못해 고요히 운명하였다. 공이 사람됨이 효심이 있고 근신하고 순박하고 밖으로는 말을 어눌하게 삼가고 안으로는 민첩하게 하며 체물(體物 : 본인과 사물)을 일에 빠뜨려 실수하지 않고 완급(緩急)한 곳이 없이 순호롭게 귀천이 없이 정성으로 대하니 편벽된 자 과다한 자 보기를 다 중용했다. 유약한 자 지나친 것은 그 제재하였다. 지나치게 나타내지 않고 그 문장이 빛나되 어렵지 않게 하고 쉽게 하며 분절(奮節 : 분투하고 절조있는 것)을 지키고 격양되어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여 마음에 정직 충후(忠厚)함을 얻을 것을 희구하였으니 임종에 스스로 사생(死生)을 알아 처자들에게 애통해 하지말라 가련한 것은 다만 형제가 멀리 떨어져 만나지 못한 것이 한이라 하였다. 입에 맞는 음식 대할 때는 좋은 음식을 달게 여기지 않고 말하기를 어찌 나누어 먹을꼬(형제간 애우 애를 생각하는 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항상 형제 나갈 이 먹으면 좋을 터인데 하고 마음에 걸린다는 말) 우애지정(友愛之情)은 하늘에서 나보다 이와 같이 평생에 교유(交游)치 못하고 항상 고요히 하여 손과 눈은 독서를 하고 자신의 분외의 일에 있지 아니하였다. 글씨에 해서와 전서가 또한 일가를 이루어 나타내고 시문도 다 가히 볼만하였다 사남오녀를 두었으니 장자는 요절하고 차자 수인(壽仁)은 증산현령(淸陽增산)이고 차자 수민(壽民) 차자 수빈(壽賓) 장녀 사위 세마(洗馬 : 벼슬 정구품) 조석형(趙錫馨) 차녀 현감 윤운거(尹雲擧)에 시집가고 차녀 정언(正言 : 사간원 정육품) 이정기(李廷夔 차)에게 시집가고 차녀 현감 강문명(姜文明)에게 시집가고 차녀 도사(都事 : 의금부의 한 벼슬 종구품) 이회(李恢) 수인(壽仁 차자) 현감 성홍현(成弘憲)의 딸에 장가들고 이남이녀를 두니 성우 성운(盛遇 盛運)이고 딸은 시직(侍直 : 벼슬이름) 조윤석(趙胤錫)에게 시집가고 차녀는 미혼 수민(壽民 차자) 목사(牧使) 윤형각(尹衡覺)의 딸에게 장가들고 이남을 두었으나 다 어리가 수빈(壽賓 차자)은 정언(正言 : 사간원의 한 벼슬 정육품) 정인경(鄭麟卿)의 딸에 장가

들었다 땔 사위 조석형(趙錫衡 큰사위)은 삼남이녀를 두었으니 큰아들 경선(景善)은 요절하고 경망, 경업(景望, 景業)은 다 어리고 땔은(장녀) 사인(土人) 이신현(李薰賢)에게 시집가고 일남삼녀를 두었으니 다 어리다. 차녀 참봉(參奉 종구품)임 일유에게 시집가고 일남을 두었다 윤운거(尹雲擧 공의 둘째사위)는 일남을 두었으니 섬(撋)이다. 섬(撋)은 일남일녀를 두었으니 다 어리다. 이정기(李廷夔)는 이남사녀를 두니 장자는 재홍(再興)이오 나머지는 다 어리다. 강문명(姜文明 막내사위)은 이남삼녀를 두었으니 장장은 구망(久望)이오 나머지는 다 어리다.

내외증손 삼십 여명이다.

명(銘)을 지어 이르기를

높고 높은 산이 서 있음이여 하늘이 심은 바를 따라 녹녹(碌碌 푸르고 윤나며 부드롭다) 함이여, 가히 바꾸지 못함이로다.

아! 뜻이 백번도 꺾임이 없고 후회함도 없도다.

옛일을 보고 지금을 보아도 누가 능히 짹하리오.

우러러 오직 백씨(伯氏 : 남의 형을 존대하여 하는 말)의 밝은 혜안이여. 의로움이 세세토록 변함 없이 전하도다.

나의 마음은 나무와 같고 붓은 창(載)과 같아 구천(九天 : 하늘)에 전신(電神)의 눈에 어둡지 않게 하소서.

숙부 대광 보국 승록 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령 경연사 감춘추관사 세자부(傅) 상현 지음  
당질 통정대부돈영부도정 승증 서병진(전서를 아울러 쓰다 비석의 두전(頭篆))  
승정기원후 일백이 십육년 계유 시월 일 세움  
(승정기원후 116년을 당시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연수를 해아리면 승정원년은 서기 1628년이므로 1744년임. 청나라 건륭 9년임. 영조 20년)



### 비명 이조 참판 수복선생 김공 신도비명 <신도비>

지역 갈산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1-8(홍양서원 뒤편에서 서해안고속도로쪽으로 200m)



## 洋夷侵犯大院君斥和碑

洋夷侵犯非戰則和主和賣國  
戒我萬年子孫  
丙寅作辛未立

(大院君斥和碑)

### 양이침범대원군척화비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여도 싸우지 않으면 화친(和親)하는 것이니, 화친은 매국하는 것이라.

나의 만년 자손에 경계하노라.

병인년(丙寅年 1866년)에 지어서 신미년(辛未年 1871년)에 세우다.

대원군 척화비.



비명 양이침범대원군척화비 〈척화비〉

지역 구항면 위치 및 장소 구항면 오봉리 산 141





## 連山徐氏石譜

### 連山徐氏族譜

始祖寶進士配泗川金氏父都事有武墓失傳子義  
敏習讀官配慶州金氏父文輔墓結城銀河面佛玉  
洞雙窓有表石子宗秀定山縣監墓結城德隱洞壬  
坐有表石配奉化鄭氏父右議政文潤墓失傳子憐  
濟州判官墓德隱洞子坐有表石配江陵崔氏父禮  
曹參判璡墓德隱洞癸坐有表石子千齡燕岐縣監  
配光州鄭氏父司憲府執義熊墓德隱洞雙窓丑坐

有表石子澍 贈兵曹參判配 贈貞夫人東萊鄭  
氏父牧使純佑后配貞夫人廣州李氏父 贈左承  
旨應麟墓德隱洞子坐三位各窓有短碣右邊有立  
碑子後積石城縣監配廣州李氏父 贈執義馨世  
墓德隱洞酉坐合窓有表石子必榮 贈承旨配  
贈淑夫人安東權氏父牧使峴墓參判公墓下壬坐  
有表石合窓長子榦次子植長子榦 贈兵曹參判  
配 贈貞夫人清州韓氏父文佐郎尙玄墓參判公  
墓下雙窓子坐子奎世配南陽洪氏父進士琥墓結  
城銀河面注岩丑坐雙窓子道弘配平澤林氏父武

科涉墓先山下壬坐雙墳子宅善武府使配昌寧成  
氏父胤文墓龜項面莊佐洞甲坐合窓有表石子潤

載武府使配全州李氏父府使禹錫墓考位階下艮  
坐合窓有表石子學彬字君平通德郎壬午生墓德  
隱洞細谷乾坐配嘉林趙氏父德元注岩生塋下艮  
坐各窓子基元字元之壬寅生墓德隱洞承旨公墓  
下子坐配平澤林氏父永錫系子龍錫字致雲癸未  
生墓屈木面莊佐洞艮坐配漢陽趙氏父奎絃.

茂長公 贈兵曹參判諱榦子奎世第二子道恒字  
汝久配慶州李氏父護軍球墓結城屈木面注岩乙  
坐合窓子長善字元伯配安平李氏父世顯墓注岩  
艮坐雙墳子潤成字大仲配全州李氏父義仁墓新  
昌竹谷子坐繼配密陽朴氏父鎬墓牙山北面車峴  
酉坐三配安東金氏父璫墓注岩艮坐乾位合窓子  
復彬字伯初丁卯生配安東金氏父璫子墓厚字聖  
崑辛卯生配濟州高氏父慶彬.

司評公諱植第二子延世忌辛酉十一月二十三日  
墓支石里山幕洞子坐配全州李氏父寔益忌丁未  
正月二十二日墓合窓有四子秉文秉春秉元秉樞  
長子秉文忌丁丑十月十五日墓山幕洞艮坐配文化  
柳氏父斗齡忌甲午十月十五日墓合窓有二子  
和善泰善長子和善忌戊申十二月初三日墓考位  
階下艮坐配林川趙氏父恒林忌壬子二月初三日  
墓合窓子志宅字士仁忌庚辰十二月二十九日墓  
祖考山左麓艮坐配光山金氏父碩忌三月初五日  
墓祖考山下艮坐后配廣州李氏父弼邦忌十二月

初四日墓前配雙窓后配慶州李氏父慶春忌十二  
月初六日墓乾位雙窓有三子晚中遠中時中長子  
晚中字器成戊進生配青松沈氏父能然有二子墓  
鎬墓洛長子基鎬字周京庚寅生配昌寧成氏父載  
忌八月二十六日墓幕洞辰坐有一子庚戌生幼  
后配慶州朴氏父東菴次基洛丙申生諱志宅第二  
子遠中出后第三子時中字穉聖丁丑生配全州李  
氏父和 有二子皆幼諱秉文第二子泰善忌正月  
初十月墓考位左麓卯坐配延安金氏父燮忌十月  
初五日墓合窓有三子志奎志道志禮長子志奎忌

六月初三日墓祖考山右麓甲坐配仁川蔡氏父之  
恒忌正月初一日墓雙窓子達中忌八月十五日墓  
幕洞壬坐配潭陽田氏忌七月初九日墓合窓無后  
系弟遠中字鳴大癸酉生配全州李氏父澤曄忌七月  
二心六日墓幕洞卯坐諱泰善第二子志道忌正月  
二十七日墓幕洞戌坐配全州李氏父得祿忌九月  
十七日墓雙窓子永中字君明壬戌生配白川趙  
氏父永鎮忌正月初十日墓幕洞有一子后配漢陽  
趙氏父彥國有六子諱泰善第三子志禮忌十一月  
十七日墓幕洞寅坐配漢陽趙氏父惟禹忌八月初

六日墓雙窓子一中壬戌生配韓山李氏父泰運忌  
八月二十九日墓親山階下子基元甲辰生諱延世  
第二子秉春忌九月初十日墓幕洞子坐配衿川姜  
氏父鳳翔忌二月初三日墓雙窓子晦善忌正月初

八日墓考位下同坐配林川趙氏父恒林忌十二月  
二十五日墓卯坐子志文忌六月二十二日墓艮坐  
配坡平尹氏父輔燦墓合窆子慶中庚午生配韓山  
李氏忌三月十一日諱延世第三子秉元忌十一月  
十四日配豐壤趙氏父天瑞子義善忌九月二十六  
日墓德隱禾谷癸坐配昌寧成氏后配平山申氏父

必龍忌九月十九日墓合窆子志禹忌十二月初八  
日墓幕洞甲坐配文化柳氏父行運忌正月十九日  
墓合窆系子亨中乙丑生配光山金氏父聲八子墓  
英甲申生配新平李氏父諱延世第四子秉樞忌  
八月初十日墓考位下子坐配長水黃氏父履夏子  
種善忌十一月二十三日墓洪州躬耕面栢洞癸坐  
配平澤林氏父馨遠忌十月十六日墓乾位左邊同  
坐子志浩字養直忌七月初八日墓寶蓋山東麓庚  
坐配海州崔氏父譽有二子長子夏中丙寅生配曲  
阜孔氏父履訥次子殷中字元瑞己卯生配廣州李氏

父相一.

諱澍字景霖 贈兵曹參判墓德隱洞第四崗子坐  
配 贈貞夫人東萊鄭氏父牧使純佑祖漢龍號西  
坡墓同塋祔左配 贈貞夫人廣州李氏父左承旨  
應麟墓同塋祔右子長後積次效積.

子效積字季貞 宣廟己卯生丙寅卒以靖社原從  
勳 贈戶曹佐郎以贈孫持世推 恩贈僕正配茂  
朱金氏父同知彥瑜墓結城佳次山坤坐合窆有標

石子長必亨次必遠必厚必成必行。  
子必行字士庸己未生戊寅卒以孫海朝推 恩贈  
左承旨配 贈淑夫人平山申氏父佐郎斌祖 贈

領相忠一墓結城斗嶺大斗里坤坐合窆子長櫨次  
棟樸樛楠。

子楠字子華 孝廟戊戌生己巳卒配居昌慎氏父  
友三參判守謙七世孫配安東金氏父峴墓洪州金  
谷東幕洞子坐品字成墳子遇世次鳳世建世無后  
子遇世字慶會 肅廟甲子生癸丑七月十八日卒  
墓考墓同崗壬坐配安平李氏父世儉政丞舒後辛  
未十一月初七日卒墓乾位西麓丁坐子秉五無后  
次秉九子秉九字士咸 肅廟乙未生壬寅正月二  
十五日卒墓東幕先塋東麓壬坐配安東權氏父知

樞儀丙辰十一月初十日卒墓洪州躬耕仙岩里丁  
坐子孟善次郁善子孟善字養之 英廟戊寅生戊  
寅十二月初二日卒墓妣位塔下丁坐配驪興閔氏  
父百泰任辰正月二十一日卒墓東幕先塋下壬坐  
系子志台。

子誠中字賢進癸酉生配清州韓氏父範商子基德  
字必受癸巳生配杞溪俞氏父鎮遠子彙載諱志台  
次子時中字聖汝壬午生配豊川任氏父喜嘉善同  
知中樞府事師聖曾孫諱秉九次子郁善字文哉  
英廟癸未生乙酉十一月二十七日卒墓洪州碧蹄

山東麓仙岩丁坐配安平李氏父庭燮丁亥八月初  
七日卒墓乾位南申坐子志台出后次志奎志斗志  
箕子志奎字仲五 正廟己酉生乙巳七月初十日  
卒配溫陽方氏父大鑠兵使 贈兵判輪之後戊子  
六月初十日卒墓結城斗嶺石鼎里杜鵑峯寅坐子  
弦中次璜中.

子弦中字玄玉甲戌生配昌寧成氏父載重子基鼎  
丙申生字元德.

諱志奎次子璜中字黃玉 純廟乙酉生配平澤林  
氏父相成子基柱次子基弼.

諱郁善第三子志斗字汝七辛亥生甲午五月二十一  
七卒墓東幕先塋東麓壬坐配仁川李氏父萬確議  
政府弘文大提學謚恭度公文和十五世孫子長大  
中次漢中.

子大中字利見甲戌生配坡平尹氏父遂璧墓舅墓  
北西坐配昌寧成氏父亮默庶子基宅諱志斗次子  
漢中丙戌生字景文配光山金氏父聲重光城府院  
八戊午生甲午五月二十九日卒配坡平尹氏父倪  
墓仙岩里午坐雙墳子長鎬中次遁中.

子鎬中字華瑞癸未生配潭陽田氏父光德  
諱志箕次子遁中字應汝乙酉生配彥陽金氏父漢  
臣子基天.

(崇禎紀元後四癸丑秋七月紀)

承旨公諱必瑩第三子植司評公配河東鄭氏父參軍以享墓德隱洞細谷合窓西坐有床石面刻后配朔寧崔氏父生員鼎良墓雙窓附左子徵世配咸陽朴氏父都正起祖墓支石書堂谷子坐合窓有床石面刻子秉贊配延安李氏父進士命裕墓移窓于月乃洞子坐合窓有床石面刻子復善配昌寧成氏父致復墓洪州番川面鍾懸里巽坐合窓有床石面刻子志訥生員配潘南朴氏父師彥活堂東賢六世孫墓德隱洞第五崗亥坐合窓有床石面刻子德中字元龍忌丁酉九月十六日墓月乃洞曾祖階下癸坐

配密陽朴氏父羲淳判書好元八世孫墓種懸祖山下庚坐甲辰正月二十七卒子基慶字必之 正廟戊午生配潘南朴氏父獻納奎壽諮議弼昌五代孫墓結城斗嶺面月谷癸坐忌丁酉六月初四日后配光山金氏父宗古自岩球九世孫子永載甲辰生。生員公諱志訥第二子衡中字在玉辛丑生乙未六月初七日卒配南陽洪氏父祖範白石茂積六世孫墓種懸祖山右邊丙坐合窓子基晚字成甫戊辰生忌庚寅七月二十五日墓結城銀河長村壬坐配坡平尹氏志默大司諫是勇七世孫系子彭錫癸巳生

衡中二子基昉字明甫甲戌生配坡平尹氏父晉奎參奉月梧堂樸五世孫子彭錫出后二子范錫三子  
渭錫。  
生員公諱志訥第三子衍中字仲延丙午生忌壬子

八月十以日配豐壤趙氏父南箕浦渚翼九世孫墓  
斗嶺面古井子坐合窓子基緒字承汝乙丑生忌丁  
亥八月初七日墓斗嶺面月乃洞艮坐配德水李氏  
父霽熙墓雙窓系子冕載衍中次子基昞忌己酉四  
月二十九日墓茅淡沙谷亥坐配坡平尹氏父晶奎  
子冕載出后次子元載三子允載秉贊第二子翊善

九月初三日墓斗嶺面月乃洞子坐配全州李氏父  
東標忌十二月初六日墓合窓后配坡平尹氏父範  
忌正月初五日墓斗嶺面柿洞癸坐子志誼次子志  
闔三子志誠志誼通德忌四月初八日墓斗嶺面佟  
洞甲坐配贈淑夫人晉州姜氏父參判垣忌十月  
十四日墓合窓子允中正月十六日卒墓柿洞甲坐  
配青松沈氏父泰鎮忌三月十三日墓月乃洞子坐  
系子基千配楊州趙氏父鼎鉉志闔忌二月十四日  
墓月乃洞子坐配全州李氏父通德郎在元忌九月  
二十三日墓雙窓子存中出后二子孝中出后三子

好中四子孟中好中配昌寧成氏父堪子基元配清  
州韓氏父啓貞孟中配驪州李氏父若欽沙圃志賤  
后忌十二月十一日墓支石里禾谷乾坐后配晉州  
姜氏父在益忌八月二十三日墓月乃洞子坐子基  
寅志誠忌十二月十二日墓書堂洞子坐配光山金  
氏父和用忌十二月十二日墓雙窓系子孝中忌正  
月初八日墓月乃洞庚坐配韓山李氏父海聖忌四  
月初八日墓禾谷乾坐子基千出后次子基一配晉  
州鄭氏父師夏。

側1

系子志台字伯三 正廟乙巳生甲午八月初七日  
卒配安東權氏父趾聖甲午八月十六日卒墓東幕  
妣位山北麓合窆墓庭有岩子誠中次子時中.

側2

始祖十五代諱寶子義敏子宗秀子憐子千齡子澍  
子效積子必行子以子遇世子秉九子孟善子志台  
子誠中子基德子彙載.

側3

連山之徐不知上古年代以其失傳故也爲其子孫  
者豈不痛悶而安知將來之不如今也十三代孫誠

側4.1

中玹中大中三從兄弟慨然有志自八代祖以下諱  
字與墓所大略書刻于硯石一張而八代祖以上書  
載于宗派以藏於德隱洞墓門石岩中庶幾万一有  
考於子孫哉.

## 연산서씨석보



시조는 보(寶) 진사(進士) 부인 사천 김씨 부친은 도사(都事)이고 무묘(武墓)였으나 실전되었다. 아들 의민(義敏)은 습독관(習讀官)이며 부인 경주김씨 부친 문보(文輔)는 묘소가 결성 은하면 불옥동 쌍묘 표석이 있고 아들 종수(宗秀)는 정산현감 묘소 결성 덕은동 임좌표석이 있다. 부인 봉화정씨 부친 우의정 문형(文炯) 묘소 실전 아들 린(麟)은 제주판관이고 묘소는 덕은동 자좌 표석이 있다. 부인 강능최씨 부친은 예조참판 진(璉)은 묘소가 덕은동 계좌 표석이 있다. 아들 천령(千齡)은 연기 현감부인 광주정씨 부친 사현부집의이며 웅(熊) 묘소가 덕은동 쌍묘 축좌 표석이 있다. 아들 주(徵)는 증 병조참판 부인 증정부인 동래정씨 부친 목사공 순우(純佑) 후실 정부인 광주이씨 부친 증좌승지 응린(應麟) 묘소 덕은동 자좌 삼위(三位) 가 각각 봉분이 있고 우편에 짧은 비석이 있다. 아들 후적(後續) 석성현감 부인 광주이씨 부친 증 집의 형세(馨世) 묘소 덕은동 유좌 합편 표석이 있다. 아들 필영(必榮) 증 승지 부인 증숙부인 안동권씨 부친 목사공현 묘소는 참판공의 묘소 아래 임좌 표석이 있다. 쌍분임 장자 익 차자 식(植)은 증병조참판 부인 증정부인 청주한씨 부친 좌랑 상현(尙玄) 묘소는 참판공 묘소 아래있고 쌍분 자좌오향 아들 규세(奎世) 부인 남양홍씨 부친 진사 호(號) 묘소는 결성 은하면 주암리 축좌고 쌍분 아들 도홍(道弘) 부인 평택임씨 부친 무관 섭(涉)의 묘소는 선산 아래 임좌, 쌍분 아들 택선(宅善)은 무관으로 부사 부인 창영성씨 부친 윤문(胤文)의 묘소는 구항면 장좌동 갑좌이며 합편 표석이 있다. 아들 윤재(閏載)는 무관으로 부사를 지냈다. 부인 전주이씨 부친부사 우석(禹錫)의 묘소는 선친의 묘소 계단 아래 간좌, 합편 표석이 있다. 아들 학빈(學彬) 자는 군평(君平)은 통덕랑 임오생 묘소는 덕은동 세곡 건좌이다. 부인 가림조씨 부친 덕원(德元)은 주암선영 아래 간좌했다.

각 봉분 아들 기원(基元) 자는 원지(元之)는 임인생 묘소 덕은동 승지공 묘소아래 자좌 부인 평택임씨 부친 영석(永錫) 계자(繼子) 용석(龍錫) 자는 치운(致雲) 계미 생 묘소 굴목면 장좌동 간좌 부인 한양조씨 부친 규현(奎紱)은 무장공 증 병조참판 휘(諱) 익의 아들 규세(奎世) 둘째 아들 도항(道恒) 자는 여구(汝久) 부인 경주이씨 부친 호군 구 묘소 결성 굴목면 주암리 을좌했다. 합폐아들 장선(長善) 자는 원백(元伯) 부인 안평이씨 부친 세현(世顯) 묘소 주암동 간좌했고 쌍분 아들 윤성(潤成) 자는 대중(大仲) 부인 전주이씨 부친 익의 묘소는 신창면 죽곡리에 자좌했다. 계배(繼配) 밀양박씨 부친 호 산소는 아산 북면 차현리 유좌했다. 셋째 부인 안동김씨

부친 육(旭) 묘소 주암리 간좌했다. 부군과 합평 아들 복빈(復彬) 자는 백초(伯初) 정묘생 부인 안동김씨 부친 진(璉) 아들 기후(基厚) 자는 성곤(聖崑) 신묘생 부인 제주고씨 부친 경빈(慶彬) 사평공(司評公) 휘(諱) 식(植)의 둘째 아들 연세(延世) 기일(忌日) 신유년 시월 23일 묘소 지석리 산막동 자좌오향. 부친 식익(寢益)은 기일 정미년 정월 22일 묘소 합평. 네 아들이 있으니 병문(秉文) 병춘(秉春) 병원(秉元) 병추(秉樞)이다. 장자 병문은 기일이 정축시월 15일 묘소 산막동 간좌 곤향 부인 문화유씨 부친 두령(斗齡) 기일 갑오 시월 15일 묘소 합평. 아들 둘이 있는데 장자 화선(和善) 차자 태선(泰善)이다. 장자 화선은 기일 무신 시월초 삼일 묘소 부친 묘소 계단 아래 간좌. 곤향 부인 임청조씨 부친 항림(恒林) 기일 임자 이월 초 삼일 묘소 합평. 아들 지택(志宅) 자는 사인(士仁) 기일 경신 십이월 십구일 묘소 조부 산소 좌측 산록 간좌. 곤향 부인 광산김씨 부친 석(碩) 기일 삼월 초 오일 묘소 조부 산소 아래 간좌. 곤향 둘째부인 광주이씨 부친 필방(弼邦) 기일 십이월 초 사일 묘소 큰부인과 쌍분 후부인 경주이씨 부친 경춘(慶春)은 기일 시이월 초 육일 묘소 건좌 손향 쌍분 세 아들이 있으니 만중(晚中) 원중(遠中) 시중(時中)이다.

장자 만중은 자가 기성(器成) 무진생 부인 청송신씨 부친 능연(能然) 두 아들이 있으니 기호(基鎬) 기락(基洛)이다.

장자 기호의 자는 주경(周京) 경인생 부인 창원성씨 부친은 재(載) 기일은 8월26일 묘소 막동 진좌. 한 아들이 있으니 경술생 어리고 둘째 부인 경주박씨 부친은 동명(東蓂) 차자 기락은 병진생 휘 지택(志宅)의 둘째 아들 원중(遠中)의 계에서 나오고 셋째 아들 시중은 자가 치성이며 정축생 부인 전주이씨 부친은 화(和) 두 아들이 있으니 다 어리다. 휘 병문(秉文)의 둘째 아들 태선(泰善)의 기일은 정월 초 십일 묘소는 선친 묘소 좌측 기슬 묘좌. 부인은 연안김씨 부친은 섭(燮) 기일은 시월 초 오일 묘소는 합평. 세 아들이 있으니 지규(志奎) 지도(志道) 지례(志禮)이다. 장자 지규의 기일은 유월 초 삼일 묘소는 조부산소 우측 기슬 갑좌. 부인은 인천채씨 부친은 항(恒) 기일은 정월 초 일일 묘소 쌍분. 아들은 달중(達中) 기일 8월 15일 묘소는 막동 임좌. 부인 담양전씨 기일 9월 9일 묘소는 합평. 자손이 없으므로 동생 원중으로 이어졌다. 자는 명대(鳴大) 계유생 부인 전주이씨 부친은 택엽 기일 7월 26일 묘소 막동 묘좌. 휘 태선의 둘째 아들 지도의 기일은 1월 27일 묘소는 막동 술좌. 부인 전주이씨 부친

득록(得祿) 기일은 9월 17일 묘소 쌍분. 아들 영중(永中)의 자는 군명(君明) 임술 생 부인은 백천조씨 부친 영진(永鎮) 기일은 1월 10일 묘소 막동. 아들은 하나이다. 둘째 부인은 한양조씨 부친은 언국(彦國)이요 여섯 아들이 있으니 휘 태선의 셋째 아들 지례이니 기일은 11월 17일 묘소 막동 인좌. 부인은 한양조씨 부친은 유설(惟高)이다. 기일은 8월 6일 묘소는 쌍분. 아들이 있는데 일중(一中)이며 임술 생 부인 한산이씨 부친 태은. 기일은 8월 29일 묘소는 친상 아래에 있다. 아들 기원(基元)은 갑진 생 휘 연세(延世)의 둘째 아들 병춘의 기일은 9월 10일. 묘소는 막동자좌. 부인은 금천강씨 봉상(鳳翔)이요. 기일은 2월 3일 묘소는 쌍분. 아들 회선은 기일이 1월 8일 묘소는 선친 아래 같은 좌향이다. 부인 임천조씨 부친은 항림(恒林)이고 기일 12월 25일 묘소는 묘좌. 아들 지문의 기일은 6월 22일 묘소는 간좌. 부인은 파평윤씨 부친은 봉혁이며 묘소는 합평이다. 아들은 경중(慶中)이고 경오생 부인 한산이씨 기일은 3월 11일 휘 연세의 셋째아들 병월은 기일이 11월 14일이고 부인 풍양조씨 부친은 천서(天瑞). 아들은 의선(義善)이며 기일은 9월 26일, 묘소는 덕은리 화곡 계좌이다. 부인 창영성씨, 둘째 부인 평산시씨, 부친은 필용(必龍)이며 기일은 9월 19일 묘소는 합평이다. 아들 지설(志高)의 기일은 12월 8일이고 묘소는 막동 갑좌. 부인 문화유씨 부친은 행운(行運), 기일은 1월 19일 묘소는 합평. 계자(系子) 향중(享中) 을축생 부인은 광산김씨 부친은 성팔(聲八)이며 아들 기영(基英), 갑신 생 부인은 신평이씨 부친은 휘 연세 기일은 8월 10일. 묘소는 선친 묘소 아래 자좌오향이다.

부인 장수황씨 부친은 이하(履夏) 아들은 종선(種善)이고 기일은 11월 23일, 묘소는 홍주 궁경면 백동 계좌. 부인은 평택임씨 부친은 형원(馨遠), 기일은 10월 16일, 묘소는 선천 좌편 끝 같은 좌향이다. 아들 지호의 자는 양직(養直)의 기일은 7월 8일 묘소는 보개산 동쪽 기슭 경좌이다. 부인 해주최씨 부친은 전, 두 아들이 있으니 장자는 하중(夏中), 병인생 부인은 곡부공씨 부친은 이눌(履訥)이며 차자 은중(殷中)의 기묘생 부인은 광주이씨 부친은 상일(相一)이다. 휘 주(廚)는 자는 경림(京霖) 증병조참판이고 묘소는 덕은동 제 넷째 묘소 자좌 오향이다. 부인 증정부인 동래정씨 부친 목사공 순우(純佑) 조부는 한용(漢龍) 호는 서파(西波) 묘소는 같은 묘소 합장 좌편. 부인 증정부인 광주이씨 부친은 좌승지 응린(應璘), 묘소는 같은 산소 합장 우편. 아들 장자는 후적(後積), 차자 효적(效積)이다.

아들 효적의 자는 계진(季眞)이며 선조조 기묘년생 병인년 졸하다.

정사원종훈 증호조좌랑 증손 지세 추은(推恩) 증복정 부인 무주김씨 부친 동지(同知), 연유(彦瑜), 묘소는 결성 가차산 곤좌 합평 표석이 있다. 아들 장자는 필향(必享), 차자는 필원(必遠), 필후(必後), 필성(必成), 필행(必行)이다. 필행의 자는 사용(士庸)이고 기미생 무인년 졸 손자, 광해조 때 추은 증좌승지 부인은 증숙부인 평산신씨고 부친은 좌랑 식(式)이다. 조부는 증 영상 충일(忠一)이며 묘소는 결성 두령 대두리 곤좌, 합평이다. 아들 장자는 숙(櫨) 차자는 옥적(燭櫛)이다. 아들 적(櫛)은 자가 자화(子華)이고 효종조 무술생 기사년에 졸하고 부인은 거창 신씨 부친은 우삼(友三)이고 참판 수겸의 칠세손 부인 안동김씨 부친은 현(峴), 묘소는 홍주 금곡동 동막 동자좌 오향이다. 아들 우세(遇世)의 차자 봉세(鳳世) 건세(建世), 후세가 없다. 아들 우세의 자는 경회(慶會)이고 숙종조 갑자생 계축 7월 18일 졸하고 묘소는 선친과 같은 낙 맥 산등성이 임좌다. 부인 안평이씨 부친은 세검(世儉) 정승 서(舒)의 후손 신미년 11월 7일에 졸하고 묘소는 선친 위 서편기슭 정좌 계향이다. 아들 병오(秉五)는 후손이 없다. 차자 병구(秉九)의 자는 사함(士咸)이고 숙종조 을미생 임인 전월 25일에 졸하고 묘소는 동막 선영 동편 기슭 임좌다. 부인 안동전씨 부친은 지추의 병진 11월 10일에 졸하고 묘소는 홍주 궁경 선암리 정좌다. 아들 맹선(孟善), 차자 옥선(郁善)이 있으니 아들 맹선의 자는 양지(養之)이다. 영조조 무인생 무인 12월 2일에 졸하고 묘소는 모친 산소 아래 정좌했으며, 부인은 여홍민씨 부친은 백태(百泰)이고 임진 1월 21일 졸하고 묘소는 동막 선영 아래 임좌했다. 아들 성중(誠中)의 자는 현진(賢進)이고 계유생 부인 청주한씨의 부친 범상(範商), 아들 기덕의 자는 필수(必受)이고 계사생 부인 기계유씨의 부친 진원(鎮遠), 아들 휘재(彙載)이다.

휘 지태의 차자 시중(時中)의 자는 성녀(聲女)이고 임오생 부인 풍천임씨 부친 희(喜) 가선 동지중추부사사성 증손 휘 병구의 차자 옥선(郁善)의 자는 문재(文哉)이다. 영조조 계미생 을유 11월 27일에 졸하였고 묘소 홍주 벽제산 동쪽 산기슭 선암 정좌다.

부인 안평이씨 부친 정섭(庭燮) 정해 8월 7일에 졸하고 묘소는 선친 묘소 남쪽 신좌다. 아들 지태 지규 지두 기(箕)의 아들 지규의 자는 중오(仲五)이고 정조 기유생 을사 7월 10일에 졸하고 부인 온양방씨 부친은 대집 병사 증병판 윤(輪)의 후손 무자 6월 10일에 졸하고 묘소는 결성 두령 석정리 두견봉 인좌다. 아들 현중, 차자 황중(璜中)이다. 현중의 자는 현옥(玄玉)

이고 갑술생 부인 창령성씨 재중(載重), 아들 기정의 자는 원덕(元德)이다.

휘 지규의 차자 황중의 자는 황옥(黃玉)이며 순조 을유생 부인 평택임씨 부친은 상성이다. 아들 기주, 차자는 기필이다.

휘 육선(郁善)의 셋째 아들 지두의 자는 여칠(女七)이고 신해생 갑오 5월 27일에 졸하고 묘소는 동막 선영 동쪽기슭 임좌 변향. 부인 인천 이씨 부친 만옹.

십오세 손 아들 장자 대중(大中) 차자 한중(漢中)이다. 아들 대중의 자는 이견(利見)이고 갑술생 부인 파평윤씨 부친 수벽(遂壁), 묘소는 선친 묘소 북쪽 유좌. 창령성씨 부친 양묵(亮默). 서자(庶子) 기택. 휘 지두(志斗) 차자 한중 병술생 자는 경문(景文) 부인 광산김씨 부친 성중 광성부원군 충숙공 극성의 후손 아들 기방(基邦) 휘 육선의 넷째 아들 지기의 자는 계팔(季八) 무오생 갑오 5월 29일에 졸하고 부인 파평윤씨 부친 현(僂), 묘소는 선암리 오자 자향 쌍분. 아들 장자 호중(鎬中) 차자 유중이다.

하들 호중의 자는 화서이고 계미생 부인 담양전씨 부친은 광덕(光德) 휘는 지기(志箕)이다. 유중의 자는 응녀이고 을유생 부인 언양김씨 부친은 한신(漢臣) 아들은 기천이다.

승정기원후 사계축 가을 칠월 기록

승지공 휘 필영(必榮)의 셋째 아들 식의 사평공 부인 하동정씨 부친은 참군(參軍) 이향(以享)으로 묘소는 덕은동 세곡 합평 유좌 상석이 있다. 앞면에 후배 삵령 최씨생원 정량(鼎良)이라 새기었다. 묘소는 쌍평 좌측에 아들 징세와 부인 함양박씨 부친 도정(都正) 기(起) 조부 묘소는 지석 서당골 자좌 오향 합평 상석이 있고 그 면에 아들 병찬 부인 연안이씨 부친 진사명유라 새기었다.

묘소는 워랜동에서 이장하였고 자좌 오향으로 합평 석상이 있으니 그 면에 아들 복선(復善) 부인 창령성씨 부친 치복이라 새기고 묘소는 흥주 번천면 종현리 손좌 건향 합평 석상이 있으니 그 면에 아들 지눌(志訥) 생원 부인 반남박씨 부친 사언(師彦) 활당 동현 육세 손이라 새기었고 묘소는 덕은동 제 오 열 산소 해좌 사향 합평 석상이 있으니 아들 덕중의 자는 원용(元龍)의 기일은 정유 9월 16일 이라 새기었다. 묘소는 월내동 증조부 묘소 아래 계좌 정향이고 부인 밀양박씨 부친 희순(羲淳) 판서 호원(好元)의 팔세 손 묘소는 종현 조산 아래 경좌 갑향이다. 갑진 정월 27일에 졸하고 아들 기경의 자는 필지(必之)며 정조조에 무오생

부인 반남박씨 부친 현납(獻納)의 규수(奎壽), 자의(諮詢) 필항(弼恒)의 오대 손 묘소는 결성 두령 면 월곡리 계좌 정향이다. 기일은 정유년 6월 4일 후처 광산김씨 부친 종길(宗吉) 암구로부터 구세 손 아들 영재(永載) 갑진생 생원공 휘 지눌의 제 둘째 아들 형중의 자는 재옥(在玉)이고 식축생 을미 6월 7일 졸하고 부인은 남양홍씨 부친 조범(祖範) 백석(白石) 무적(茂積)의 육세 손 묘소는 종현 조부 산소 우편 병좌 임향 합편이다. 아들 기만의 자는 성보(成甫)고 무진생 기일 경인 7월 25일 묘소는 결성 은하 장촌 임좌 병향.

부인 파평윤씨 지묵(志默) 대사간 시용(是勇)의 칠세 손 계열 자 팽석(彭錫) 계사생 형중의 둘째 아들 기방의 자는 명보(明甫)이고 무술생 부인 파평윤씨 부친 진규(晉圭) 참봉 월오당 규(樸)의 오세 손 아들 팽석 후처에서 두 아들이 있으니 범석 삼자 위석이다.

생원공 휘 지눌의 셋째 아들 연중(衍中)의 자는 중연(仲延)이고 병오생 기일은 임자 8월 10일 부인 풍양조씨 부친은 남기(南箕), 포저익(浦渚翼)의 구세 손 묘소는 두령면 고정리 자좌 오향 합편.

아들 기서의 자는 승여(承汝)이고 을축생 기일 정해 8월 7일 묘소는 두령면 월내동 간좌 곤향. 부인 덕수이씨 부친 제희(齋熙) 묘소는 쌍분 계자이고 연중의 차자는 기병, 기일은 기유 4월 29일 묘소는 모담 사곡리 해좌 사향. 부인 파평윤씨 부친 정규(晶圭), 아들 면재(冕載) 후처에서 차자 원재(元載) 삼자 윤재, 병찬의 둘째 아들 익선(翊善)의 기일은 9월 3일 묘소 두령면 월내동 자좌 오향.

부인 전주이씨 부친은 동표, 기일 12월 6일 묘소 합편. 후처 파평윤씨 부친 범, 기일 1월 5일 묘소 두령면 시동 계좌 정향. 아들 지의(志誼) 차자 지은(志闇) 셋째 지성(志誠). 지의는 통덕랑이고 기일은 4월 8일. 묘소는 두령면 통동 갑좌 경향. 부인 증숙부인 진주강씨 부친 참판 원(垣) 기일 10월 14일 묘소 협편.

아들 윤중(允中) 1월 16일에 졸하고 묘소는 시동 갑좌 경향. 부인은 청동심씨 부친은 태진(泰鎮) 기일 3월 13일 묘소는 월내동 자좌 오향. 계자 기천(基千)의 부인 양주조씨 부친 정현(鼎鉉) 지언의 기일은 2월 14일 묘소는 월내동 자좌 오향. 부인 전주이씨 부친 동덕랑 재원(在元) 기일은 9월 23일 묘소는 쌍분. 아들 존중의 후처에서 아들 둘 효중, 후처 아들 셋 호중, 넷째 맹중이다. 호중의 부인 창영성씨 부친은 감(堪)의 아들 기원(基元) 부인 청주한씨 부친 계정,

맹중의 부인 여주이씨 부친 약흡(若欽) 사포 지천의 후인 기일 12월 11일, 묘소는 지석리 화곡동 건좌 손향. 후처 진주강씨 부친 재익(在益) 기일 8월 23일 묘소는 월내동 자좌 오향. 아들 기인 지성의 기일은 12월 12일 묘소는 서당동 자좌 오향. 부인 광산김씨 부친 화용(和用)의 기일 12월 12일 묘소는 쌍분. 계자 효중(孝中)의 기일은 정월 8일, 묘소는 월내동 경좌 갑향. 부인 한산이씨 부친 해성(海聖), 기일 4월 8일 묘소는 화곡동 건좌 손향. 아들 기천 후출(后出) 차자 기일, 부인 진주정씨 부친 사하(師夏) 계자 지태(志台)의 자는 백삼(伯三)이고 정조조에 을사생 갑오 8월 7일 졸하고 부인 안동권씨 부친 지성(趾聖) 갑오 8월 16일에 졸하고 묘소는 동막모친 산소 북쪽 산기슭 합평 묘정에 바위가 있다. 아들 성중(誠中), 차자 시중(時中).

시조 15대 휘 보(寶) 아들 의민 종수 린 천영 주 효적 필행 우세 병구 맹선 지태 성중 기덕휘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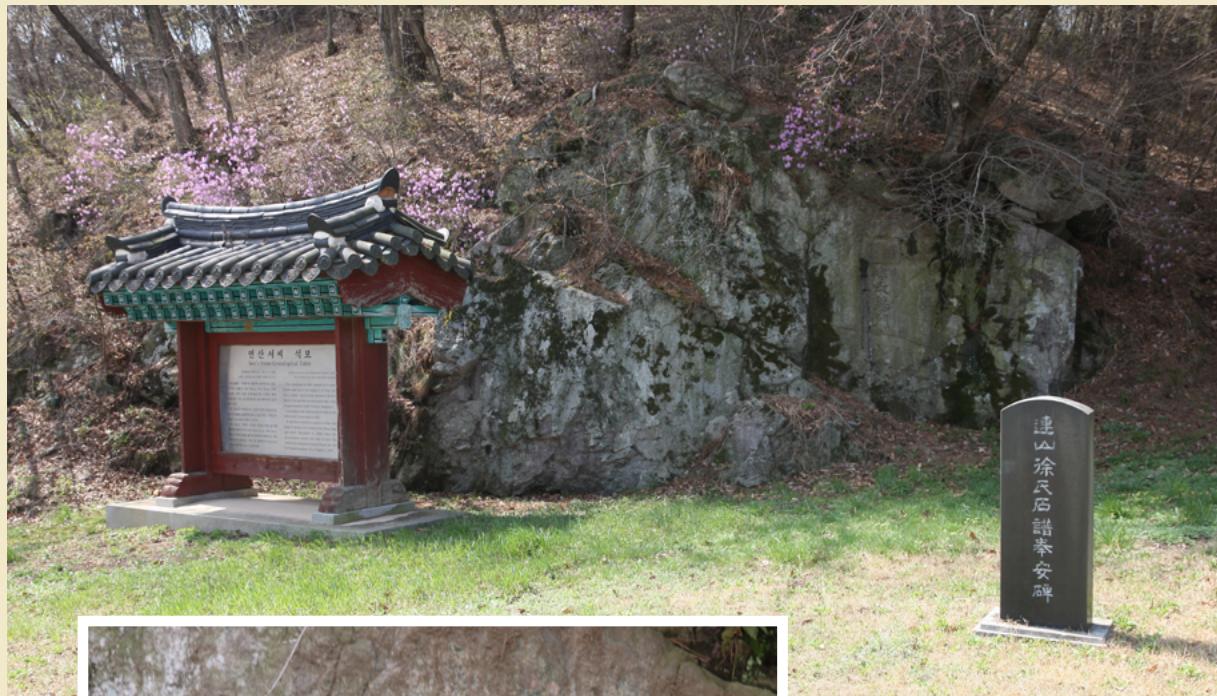
연산 서씨 상고 연대는 실존하여 알 수 없어 그 자손이 어찌 통민(痛悶)하지 않으리요. 장래 지금 같지 않으리라. 13대손 성중 현중 대중 삼종 형제가 개연히 뜻이 있어 팔대 조 이하 휘 자여(字興) 묘소를 대략 연석(硯石)의 한 장에 서각(書刻)하고 팔대 조 이상은 종파에서 기록하여 덕은동 묘소 문바위 가운데 감춰두고 몇 대라도 만일에 자손에게 상고하게 함이니라.



### 비명 연산서씨석보〈세보비〉

지역 구항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583-3(현재 석보는 홍주성역사박물관에 보관)





## 贈兵曹參判徐公墓碣銘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徐公墓碣  
銘并序

連山之徐逸其遠譜其世次可紀自生員諱寶始其  
葬結城德隱洞自生員府君之孫定山縣監諱宗秀  
始東邊第一岡是也配宜人鄭氏右議政文炳女別  
葬廣州穿嶺之北子濟州判官諱憐繼葬第二岡配  
恭人崔氏禮曹參判璫女葬第三岡判官府君年十

八登武科狀元十九出貳濟州州有深穴妖蟒能作  
風雨官民以神祀之每歲春秋以十五歲女兒洗置  
盤上獻穴前作樂而禱蟒噬之以入不然風雨害稼  
自官籍民女計其年以次用之府君與牧使及兩縣  
宰約於禱祀日齊會戮之及期皆稱疾不出府君奮  
身獨往使力士操斧立穴左右俟樂作蟒出手槍拄  
其口斧斫其頭自此妖孽永絕子諱千齡進士燕岐  
縣監葬第三岡崔恭人墓下配宜人鄭氏執義熊女  
祔左異封三子長湜次湜皆早卒無後其季諱澍字  
景霖生嘉靖甲辰卒萬曆丁酉當壬辰兵荒大饑獨

湖右稍完流離土女咸以公爲歸公隨至以濟之且  
悉出餘蓄輸致軍前朝廷賞其功除司憲府監察  
公以非本意不拜且戒家人勿稱官號及卒朝廷  
褒其辭賞特贈通政大夫掌隸院判決事後子後

積參靖 社原從勳加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前配鄭氏牧使純祐女後配李氏贈左承旨應麟女竝從公 贈封貞夫人葬第四岡三墓而公居中二夫人前左後右鄭出二男縣監贈左承旨後積 贈左郎效積一女適判官崔貞元李出四女適生員 贈參判鄭旼縣監 贈左贊成

南斌判判 贈領議政金槃杞平君 贈領議政俞伯曾自生員府君及公六世皆單嗣公始有二南孫曾以下百餘人而進士二人武科七人宰郡縣四人茲豈非源羨川豐之效耶且外裔之盛世罕其比名位隆顯者既不可悉數而當丙丁之變天地翻覆之際成仁取義之美多萃於公家鄭氏女之子文科狀元雷卿以弼善陪 世子入瀋陽欲爲之國除賊反被其害有特 贈優恤之典南氏女之女婿文科狀元吳達濟以校理疏斥和議爲清人所執去不屈死有爵謚之 贈立祠之褒金氏女夫人當江都之陷

與其子生員狀元益兼竝死節夫人則旌門生員則贈職享祠俞杞平以清名直節望臨一時而自南漢下城退于田野抗志辭榮亦庶幾蹈海之風此雖曰遭時不淑與禍相嬰然其仰遺教欽流風夫豈若以貴仕論餘慶之比而已哉及金氏夫人之曾孫母儀一國卽 仁敬王后也亦豈非未艾之第祿耶後夫人李氏有女士之行公歿不粒者累月不肉者十五年嗣子承旨君病疫危夫人日夜禱天指已出女願代俄自染革諸女環泣夫人曰何害子生而吾死

則汝家之慶讀經史通大義傍涉曆算占相等術而

最精五行兒孫之生問其日時以定其壽夭窮達後  
多驗且職度甚高雖嫠居窮鄉訓子女擇婚嫁皆得  
其宜歸至於世道之隆替人士之出處子壻若諸孫  
有所質門則裁量道理事勢之所在別白是非得失  
之所歸無不脗合於時義然未嘗以此自多不欲有  
聞於外既文而壽女孫若鄭弼善雷卿金大提學益  
熙兄弟吾先人兄弟夫就外博皆受學而成業雖以  
九萬之藐末稚齒亦蒙提誨者有年今茲記名寔夫  
人之賜是賴追慕之遠曷有其已公之曾孫樞司評  
植居近松楸瞻依興感與諸孫合議將樹牲繫之石

記世葬之次發潛德之光屬辭于九萬迺作銘曰  
蓋山之陽德隱之岡徐氏之藏四世及公享嗇于躬  
詒後則豐子姓蕃衍多列 朝踐自出尤顯德之攸  
好神之攸勞天之攸報

外曾孫議政府領議政南九萬撰并書

議政府領議政崔錫鼎篆

崇禎紀元周甲後十七年甲申立

## 증병조참판서공묘갈명



증가선대부 병조참판겸 동지의금부사 서공 묘갈명 병서

연산의 서일은 그 원원(遠源)이 그 족보에 세차가 생원 휘(諱) 보(寶)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고 그 결성현 덕은동에 장사지낸 생원부군의 손자로부터 정산현감 휘(諱) 종수(宗秀)가 동변에 제 일 산으로부터 시작이다. 부인 우의정 문형의 따님으로 별다로 광천천령 산북 쪽 자좌에 장사지내고 제주판관 휘(諱) 린(燦)은 제 이의 묘소로 이어 장사 지내고 부인 공인(恭人) 최씨 예조참판 진의 따님으로 제 삼묘소 판관부군 년 십팔세에 무과에 장원, 십구세에 제주로 나가 제주에 깊은 암혈에 요망한 이무기가 있어 능히 풍우를 지으니 관민이 매년 춘추로 제사지내니 십오세 여자를 목욕하여 반상(盤上) 위에 두어 굴 앞에 드리고 풍악을 리고 기도하면 이무기가 물고 들어갔다. 그렇지 않으면 풍우를 일으켜 해를 입히니 관민이 그 해 다음에 쓸 여자를 계획하니 부군(府君)이 목사와 더불어 그 양현 현감과 기도제사 지내는 날 일제히 모여 죽일 것을 약속하니 그 제사일에 이르러 다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안하였다. 부군이 분신(奮身) 홀로 가서 역사(力士)로 하여금 도끼를 가지고 굴 좌우에 서서 풍악을 울리니 이무기가 나오는지라 창 잡은자가 그 입을 찌르고 도끼든 자가 그 머리를 쪼개니 이로부터 요망한 요괴가 영원히 없어지더라.

아들 휘(諱) 천령(千齡)은 진사로 연기현감하고 제 삼에 장사지내고 최공인의 묘소 아래다. 부인 의인(宜人) 정씨 집의(執義) 융의 따님으로 좌평에 합평하고 봉분을 달리하다 아들 셋이 있으니 장자는 황이요 차자는 혼이니 다 일찍 죽어서 후손이 없다. 끝 막내 휘(諱) 주(廚)자는 경림 가정갑진(嘉靖甲辰) 생하여 만력정유에 졸(卒)하였다. 임진병란에 대기근이 들어 호우가 점점 백성이 유리(流離)되고 사녀가 다 공에게로 돌아가니 공이 이들을 구제하고 남은 양식을 균량으로 실어가 대었다. 조정에서 그 공을 포상하여 사헌부 감찰에 제수하니 공은 본 뜻이 아니다하여 사양하고 또 가족들에게 관직명을 쓰지 말라고 하였다하고 운명하니 조정에서 포상도 사양하니 특별히 증통정대부 장예원 판결사를 추증하여 내리다 아들 후적은 참정사 원종훈을 더하였다. 증가선대부 병조참판겸 동지 의금부사로 추증하다. 진실부인 정씨 목사 순우의 딸이요 후실부인은 이씨 증좌승지 응린의 딸이다. 아울러 공을 쫓아 증정부인으로 추증하여 봉하고 제 사에 장사지내다 묘소가 셋이 있는데 공은 가운데이

고 두 부인이 전좌 후우에 있고 정씨 부인은 두 아들을 두었으니 현감증 좌승지 후적이요 증좌랑 효적이 딸 하나인데 판관 최정원 이씨 부인에 사녀를 두었으니 생원이요. 증참판으로 추증한 정환(鄭暉)에 시집가고 증좌찬성 남식(南식) 증영의정 금반(金鑪) 기평군 증영의정 유백(俞伯) 일찍이 생원 부군으로부터 육세 손에 이르기까지 다 외아들로 후사를 이어오다가 공이 비로서 두 아들을 두니 손자 증손자 이하 백여인이라. 진사(進士)가 인(仁) 무과 급제자 7인 군수 현감이 4인이라. 이것이 어찌 근본 원천이 풍요로움이 아니겠는가?

또 외손이 번성하니 다 명위에 비하면 드문 바라 높이 현달된 자가 가히 그 수를 다할 수 없다. 병정호란의 변을 당하여 천지가 엎어 때라 성인취의(成仁取義)로 공의 집에 많은 미덕이 모였다.

정씨부인 딸과 아들이 문과 장원급제하고 뇌경(雷卿)과 필선(弼善)이 세자를 모시고 심양에 들어갈 때 나라에 적반의 해를 입힘을 제거하였다. 증우혈지전(贈優血之典)을 특별히 추종하였다.

남씨의 딸 사위는 문과 장원하고 오달제 교리(校理)와 척화(斥和) 논의를 상소하여 청나라 사람에게 잡히는 바가 되었으나 굴리지 않고 죽으니 관작과 시호를 추증하고 사당을 세우고 포상하였다.

김씨부인은 강화도가 함락되자 아들 생원장원한 익겸과 같이 절개를 지켜 절사(節死)하였다. 부인인 즉 정문(旌門) 세워주고 생원은 증직(贈職)하고 사당에 향사하게 했다.

유기평은 청렴하고 곧은 절개가 있으며 일시에 명망하였으나 남한산성으로부터 내려와 전야로 물러나 청나라에 저항하는 뜻을 지녀 영화를 사양하고 또한 몇 번이고 도해지풍(蹈海之風: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하는 것)을 했었다.

이것이 비롯 말하되 때를 밝은 세상을 만나지 못하고 화가 서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존양하는 끼친 유훈을 공경하는 유풍이 어찌 귀한 벼슬이 여경(餘慶)에 견줄만 하겠는가. 그리고 김씨부인의 증손자 모의(母儀)는 일국의 인경왕후이라. 또한 어찌 성한 식록으로 갚지 아니함이 없으리요.

후에 부인 이씨는 여사로 행실이 있어 공이 죽은 후 밥을 먹지 않은지 여러 달 육식을 하지 않은지가 십오년이라. 아들 승지군(承旨君)은 병으로 위독하니 부인이씨가 하늘에 주야

로 기도하고 하늘이 미미 나를 내었으니 내가 대신코자 원하나이다 하니 후에 염병(染病)이 위급하여 딸들이 둘러 앓아 울원 부인이 말하기를 어찌 자식을 해하느요 내가 죽으면 이집에 경사이라 하더라. 경시를 읽어 대의를 통하고 잡서로 역산과 점상(占相) 등의 술수를 가장 정밀하게 통하여 오세 된 아손들의 연월일시를 묻고 그 수요 궁달을 정하면 후에다 염험하고 또 관직을 높고 심할을 헤아리니 비록 궁향에 과수로 산다해도 자녀의 가르침과 인연여가를 택하였다. 마땅히 돌아가고 세상의 도가 응체(隆替)된 것과 인사의 출처와 사위와 제 손자의 질문에 이르러 재량도리 사세 지소에 별다른바가 있어 시비득실이 돌아가는 바가 시의에 합당하지 않음이 없더라. 그러나 일찍이 이로부터 밖에 문장과 수를 들리지 않게 하고자 했다.

외손같은 정필성 뇌경 김대재학 익희 형제들은 나의 선인의 형제요. 아직 밖에서 수학하지 않고 학업을 이루는 것은 비록 구만(九萬)이 어리고 가르침을 받들지 않고 나이가 지금에 이름 자를 쓸 정도이다. 이것이 무릇 사람이 신뢰함을 주어서 멀리 추모하는 정이 어찌 그 침이 있으리요. 공의 증손 최사평이 거처 가까운 곳에 송추(松楸)를 심어 첨양하니 감응이 일어나 제손들과 더불어 합의하여 장차 비석을 세우고 재세와 장사지낸후 잠덕(潛德) 광속(光屬)을 기록하여 그 문사를 구만이 기록하니 이에 명을 지어 이르기를 대개 야산의 양지바른 곳에 결성 덕은동 묘 서씨 사대 가장 유요에 가장된곳이라. 공이 향색(享齋)에 이르러 후손에 전해져 자손이 풍성하고 성씨가 번연(蕃衍)하여 조선 아래로 자연히 더욱 덕망이 현달한 바는 신이 좋아한 바요. 하늘이 복으로 보은한 바로다.

외중손 의정부 영의정 남구만 짓고 씀  
의정부 영의정 최석정이 두전을 씀  
승정기원 주갑후 십칠년 갑신에 건립



비명 증병조참판서공묘갈명 <묘비>

지역 구항면 위치 및 장소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산111(지정리 580번지 영모재 위)







2017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 홍성의 금석문

洪城의 金石文

© 홍성문화원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2017

발행일 2018년 1월

발행인 김한국

발행처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기획 홍성문화원

제작 주식회사 한솔이엔티

### 비매품

ISBN 979-11-89097-05-9 0509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8012591

\*이 책은 「한국문화원연합회\_2017년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홍성의  
금석문

洪城의 金石文

